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7월 10일 수요일(주간) 제377호



법석 조대 **금산 스님** 목포 목우암 주석



"일상삼매(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하게 되면 일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매달리면 그것은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집착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심(無心)해야 얻을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문화환경평가제 법제화 필요"

국회차원 여론 '환경평가' 대체, 전통사찰 · 문화유적 보호 가능

조계종도 "적극 추진" 밝혀

7월 이후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불교계에서 3·15 범불교도대회 등 환경집회 때마다 정부에 제도화를 촉구해온 문화환경영향평가제(이하 문화평가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를 포괄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 소음, 먼지, 진동,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종교문화환경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해법. 문화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사찰의 간접적인 환경 피해와 함께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복단의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사업특성과 입지조건을 고려, 문화·문화재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를 권고조항으로 다루고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산관통도로저지 시민종교연대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립공원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제 법제화등 법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공사의 재검토를 위해 국회 차원의 성명서 채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화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했던 이미경(민주당) 의원 역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화재 보호, 수질변화 대책, 차량소음 대책 등 문화환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히고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면 여야 합의에 의한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화를 추진해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도 전통사찰과 역사문화유산보존을 위해 '문화환경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에 따른 절차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정책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및 역사문화유산보호지구 도입 등 하류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사회국장 지거스님은 "문화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면 북한산에 분포된 불교문화재를 건설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북한산등 환경현안이 시급한 만큼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북한산을 파괴로부터 막고 철거위기에 놓인 송추 철마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자 청년들이 환경수호단을 결성했다. 50여명의 '북한산 살리기 환경수호단'은 조를 편성, 주야로 철마선원에서 정진중인 스님들을 외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사진=고영배 기자

신도단체 실무자 워크숍

지역 · 단체간 유대 · 현안 네트워크 모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신도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27~28일 1박2일간 강원도 횡원 한국레저개발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간, 단체간 실무책임자들의 교류를 통한 지역별 유대강화 및 지역적인 사업과 현안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중앙신도회의 조직화와 유대감 강화 △지역, 사찰, 단체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연계및 교류의 장 마련 △각급 단위 실무책임자들의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중앙신도회는 산하 조직인 5개 광역신도회와 24개 교구본사신도회, 종단등록신도단체(교수불자연합회, 교사불자연합회, 산악인불자연합회, 불자교정인연합회, 운전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1개)와 직장직능단체, 주요 기초지역신도회 및 주요사찰신도회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문의 02)733-7277. 김재경 기자

파괴된 바미안 대불 디지털로 원형 복원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의해 완전 파괴됐던 바미안 대불(3~4세기 경 제작, 높이 55m)이 디지털중순 3차원 디지털로 복원된다.

문화재 디지털 복원 전문가 박진호(숙명여대 강사)씨는 유네스코와 아프가니스탄이 복원을 계획 중인 바미안대불이 복원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3~4세기 경 최초 조성됐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하고 신심도 키우고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미륵종찰 법주사와 수영장등 놀이시설이 가득한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속리산 팀사랑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정: 2002년 7월 30일(화)~ 8월 1일(목) 2박3일
-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 일대
-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300명)
- ◆참가비: 7만원
-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립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전화: (02 738-7860
-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봉은사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 찬 : (재)보덕학회,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는 문화콘텐츠 寶庫

불화(佛畵)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영산회상도나 지옥도(감로탱)의 경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청중과 하늘사람들이 하나의 도판에 각자의 독특한 인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들 인물의 모양은 경전에 묘사되는 역할 등에 따라 상당히 개성적으로 표현된다. 팔부신장 등 외호의 임무를 맡은 인물의 경우 무서운 얼굴에 무기를 들게 된다.



지옥도에 나타나는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의 경우 거기에 맞는 흉한 얼굴로 묘사된다.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끔찍한 장면도 사실 그대로 묘사되는 것이 지옥도의 특징이다. 화악의 캐릭터와 지고지선의 캐릭터가 불화에는 함께 묘사되는 것이다.

불화 속의 다양한 인물 모습이 캐릭터 사업에 접목된다. 불화속의 인물들이 종교적 경건함을 살짝 비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온다니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인가? 이것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제2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주체인 호남대학교는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기 분석해 2D와 3D 캐릭터 및 플레쉬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는 만봉스님의 단청문양 8천여 점을 검토해 문양 위주의 작품을 일러스트 작업 과정을 거쳐 디지털로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주)엔알케이)도 포함됐다.

불교를 문화콘텐츠 개발의 보고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낯설지 않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기반이 되어 온 불교는 종교적 범위를 논하기 이전에 전통문화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시대에 누가 어떤 시각으로 그 전통들을 재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없다. 보물을 잘 활용해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자신이 정보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논리가 불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한 생각을 돌리면 지옥과 극락도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잘 알고 있는 불교계에서 보다 획기적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단 등이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성보박물관**

1. 사찰에 갔을 때 성보박물관이 있으면 반드시 관람하십니까?
①반드시 한다 ②가능하면 한다 ③하지 않는다

2. 성보박물관을 관람할 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설명 부족 ②전시공간의 협소 ③전시유물의 빈약 ④기타

설문 참여: 7월 1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8호 9면에 싣습니다.

"종교간 다양성 체험 교류 場 확대"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인도네시아서 열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6차 총회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해자로서의 아시아(Asia, the Reconciler)'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한국 북한을 비롯 22개국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등 각 국의 종교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네팔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화해 모델인 6·15 남북한 정상의 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는 인도네시아에 '비교 종교, 문화 연구 센터'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종교간 문화간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더욱 넓혀가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구독신청 (02)737-0090

www.tanheo.com 7월8일 오픈

현대불교신문사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여시아문"할인
- 불교전문쇼핑몰"마하몰"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사 설

문화환경평가제 도입해야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국도 5㎞의 확포장 비용이 공기 맑히기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다.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계획하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전통사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원의 폐쇄가 예상됨에도 북한산 관통도로 재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가 추최한 '국립공원 내 자연 ·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화환경평가제 도입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 문화환경 평가 대상까지는 논의가 나아가지 않았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수행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다. 소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가의 소음 규제치가 적용된다. 선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화환경영향평가제 추진을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모두 제안했다. 정당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길 바란다. 불교계의 역할도 활발해져야 한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새로운 제도의 당사자이다. 특별기구를 구성해 사찰의 수행 · 문화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화환경영향평가제가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불교의 많은 유형의 문화유산, 무형의 가치를 지닌 자산들은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보전의 책임을 위임받은 일차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 또한 국민들로부터 관리와 보전의 책임을 위임받았다. 이점을 정부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성불교 활성화 하자

7월은 '여성주간(週間)'으로 시작했다. '여성주간'이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직 여성들에게 공정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불교계는 어떤가. '평등사상'의 종교이면서도 그 전통은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불리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이점 마땅히 고쳐야 한다. 불교는 신도 가운데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이들이 사찰 운영과 신도회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 종단을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이다.

7천여 명에 이르는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 수행과 생명존중에 기초한 헌신적 봉사, 평화와 환경을 위한 사회활동 등의 성과 또한 높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종단은 이런 역동성에 주목하고 그들의 저력과 가능성에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교 각 종단은 의식의 구태를 벗어나는 일대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종단 정책을 결정하는 종무행정에 비구니 스님을 다수 참여시켜 차별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성 불자들은 기복적'이란 예단은 이제 접어두고 이들을 올바른 신행 행 증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여성 불자 편에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신행조직의 활성화와 자발적 참여, 청소년층의 조직 결성과 이를 돕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불자 층이야 말로 한국불교의 미래적 자산임을 확신하고 이들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일에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탈북주민대상 포교네트워크 구축

하나원·정착과정서 지역포교사단·사찰과 연계 법회

'좋은벗들' 불교배우기·역사탐방 운영

불교자원봉사련 현장체험 정착 지원

최근 중국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불교 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포교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그간 좋은벗들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로 대표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불교단체들의 지원은 통일운동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올 2월부터 매주 탈북자들에 대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의 활동은 포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월 27일 조계종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교사단의 '탈북자 대상 포교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포교사단은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이 매년 두 세배씩 늘고 있지만, 기독교계의 선교로 65% 이상이 기독교 신자화(2001년의 경우 불자는 600명중 2.3%에 불과)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사업에 나서게 됐다.

현재 포교사단은 서울경기 대학팀을 중심으로 탈북자 관련 1차 정부기관(하나원 이전)에서 매주 목요 법회를 개설, 평균 5~20명에 대한 불교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앞으로 2차 정착시설인 하나원 및 3차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도 지역포교사단 및 사찰과 연계해 정기법회 개설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토록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좋은벗들(이사장 유수스님)은 매월 한 차례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불교 배우기' 강좌와 합께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개월간의 교육이 끝날 때마다 70~80여명의 교육생들이 경주지역 불교문화를 2박3일간 둘러보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아 포교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북한이탈주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격월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재래시장보기, 고궁관람, 노래방, 볼링장 등 우리문화 체험을 통해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좋은벗들 노옥재 국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는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100m내 건물높이 제한

서울시 보호조례개정, 경관지구 등 문화재위 심의거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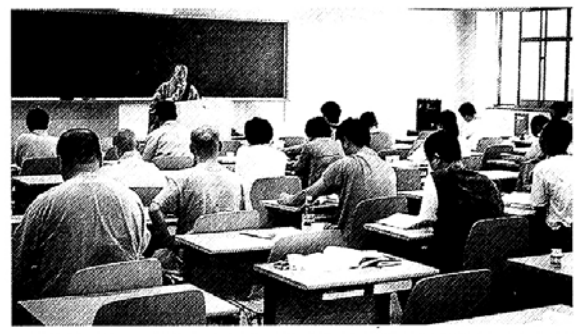
국가문화재주변 100m이내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물높이도 제한된다.

서울시의회는 6월 29일 문화재영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100m) 시지정문화재(50m) 인근에 건설공사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문화재보존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건물높이는 문화재가 위치한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27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보호구역 경계와 접한 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을 경관지구나 보존지구, 사적건축물보존지구로 정할 때도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원우 기자



◇전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이 4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1회 종무행정 강좌에서 강의하고 있다.

예비종무원 50명대상 첫 종무행정강좌 열어

조계종 총무원은 1일부터 5일까지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에서 50명의 종무원과 예비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종무행정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종무행정 강좌는 △종단 및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 △관공서 대응능력 향상 △사찰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인근지역 도시계획 역사문화환경 중심 전환을

이희정씨 포럼서 주장

"조계사 인근지역의 도시계획을 도심업무기능에서 역사문화환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2일 포럼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열린 '조계사 포럼'에서 이희정씨(서울시정연구원 연구위원)는 '조계사 인근지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변화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조계사 인근지역이 역사문화환경과 국민의 정신적 생활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인사동의 경우 전통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진 명소로 인식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의 도시계획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조계사 부근에는 별다른 도시계획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조계사나 우정총국 등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유도위주의 도시계획이 계속 추진된다면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 종훈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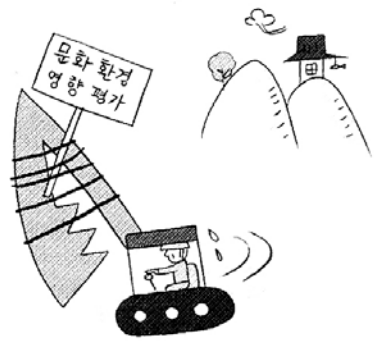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일 총무원 기획실장에 종훈스님(파천 보광사 주지 · 인터뷰 3면)사회국장에 지거스님(영양 영성사 주지)을 새로 임명하고, 문화국장 혜안스님(전 재정국장)등 국장급 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전보 발령된 스님은 기획국장 태진(전 조사국장), 감사국장 법승(전 호법국장), 호법국장 의연(전 감사국장), 조사국장 자공(전 상임감찰) 스님이다.

사회국장 지거스님은 도원스님을 은사로 파계사에서 득도했으며,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85년 사미계, 8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수료) 문화예술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환경과 문화를 함께 살리려면…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홈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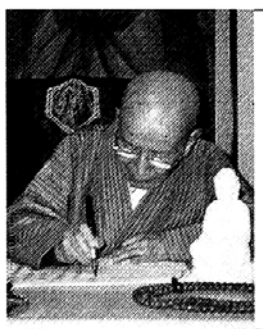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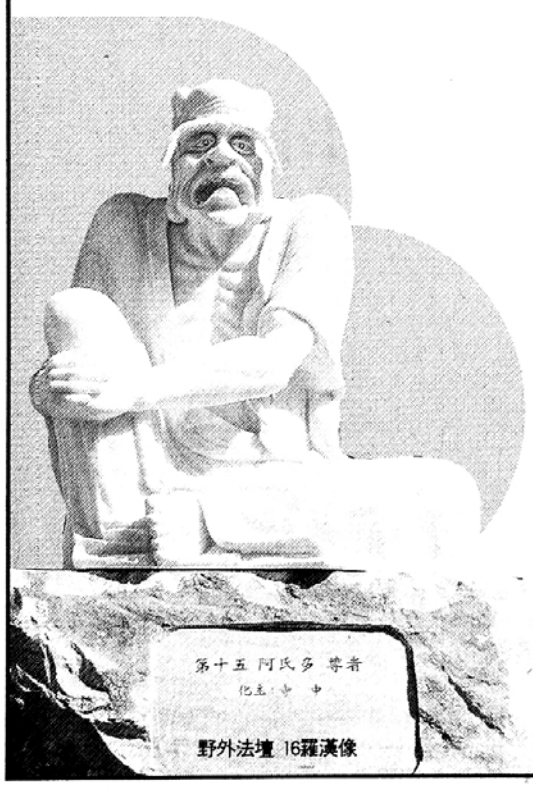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 korea buddha co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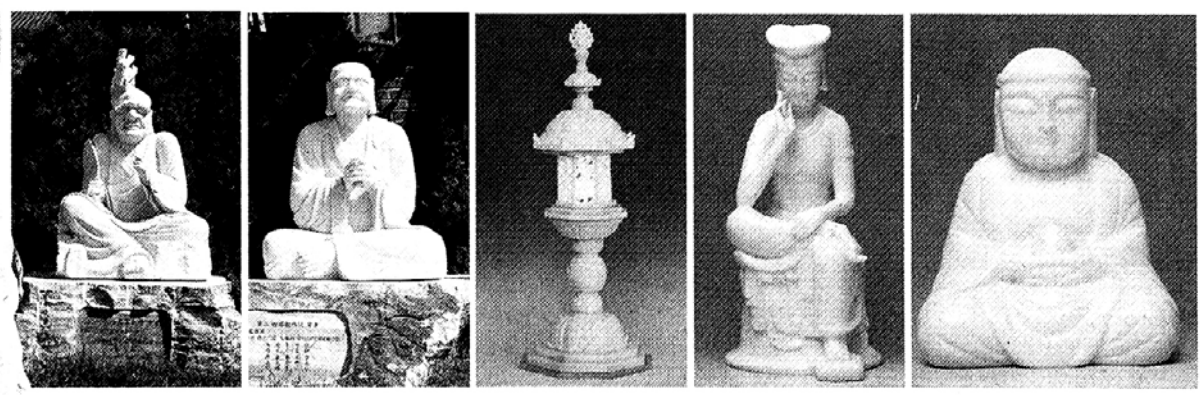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通 慈悲하시고 遠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通聖像
二五四五年 六月 二十一日
小林 正觀 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11~18일 대만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

10개 분과 '여성잠재력 발휘' 모색

한국 40명 참석…발표논문 입수·소개

국제불교여성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일명 '붓다의 딸'(Sakyadhita)은 '선여인(善女人)-세계의 교량'을 주제로 11~18일 대만 타이베이 화범대학에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여성 불교학자와 수행자, 사회운동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지구촌 여성들이 상호 협력해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핵심의제로 10개 소주제로 분과회의를 열어 불교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소주제는 △세계의 불교 여성에 대한 이해 △대만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이해 △불교 전통간의 대화 △세계 종교간의 대화 △수행과 일상의 실천 △불교학과 수행 △세대간의 대화 △상호이해와 중생구제 △전통과 현대 △남녀간의 상호이해 등.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한국 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에서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본각스님과 비구니회 사회국장 담교스님 등 40명이 대거 참석, 한국 비구니 관련 4개의 주제발표와 2004년 제8차 대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한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측 대표단장인 본각스님은 "오는 2004년 서울 국제불교여성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표단과 함께 차기 한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운영 노하우 습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발표되는 (조은수미시간대 교수의 '익명성으로부터 자기 발견으로-20세기의 한국 비구니들' 등) 4편의 한국 비구니 관련 발제문 중 본각스님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비구니 교육', 중앙승가대 교수 능인스님(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의 '한국 비구니 사회복지 활동 현황', 석담스님(미 버지니아 주립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의 '초기 중국과 고대 인도 불교의 여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미리 입수해 소개한다.

전통 · 현대 아우르는 한국비구니 교육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한국 비구니 승단은 세계 종교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긴 여성 수도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불교는 고려 광종 때 승과 실시, 대각국사 의천의 교선합일(敎禪合一) 주장,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쌍수(定慧雙修) 제창 등을 거치면서 선과 교를 겸하는 승려 교육을 정통으로 여겼다. 근본불교 이래의 3학(계, 정, 혜) 이수를 근간으로 근세에 접어들면서 승려 교육은 전통 강원교육이 기본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승려 역할의 다중성(多重性)에 눈뜬 한국 불교계에서는 비구니들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한국 불교계는 교단의 중요 직책을 비구만으로 한정하는등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전통 강원과 대학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대를 열어가는 참다운 수행자상을 연마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구와 동등한 교육 기회 부여

한국비구니 사회복지활동 현황

능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000년 12월 현재 전국 사회복지 시설은 1226개소(비인가 시설 포함 1800개소), 이중 불교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78개 단체, 317개소에 이르며, 비구니 스님이 운영중인 시설은 30개소에 이른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는 1990년 각종학교 인가후 2002년도 2월 현재 362명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출, 이 가운데 비구니 318명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종립 동국대학교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졸업생 451명 중 비구니 15명, 비구 10명을 배출했다. 또 1991년 개설된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에서는 30명의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중 비구니는 11명이다.

이처럼 불교의 사회복지 참여와 비구니들의 사회활동은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국민교화와 세대통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비구니 운영 복지시설 30개소

초기 중국 · 고대인도 불교여성 비교

석담스님(버지니아大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국 동진(東晋) 때인 357년에서 511년 사이에 이름을 떨친 비구니 65명을 소개한 〈비구니전(比丘尼傳)〉과 기원전 6세기~3세기경 인도의 비구니 원로들의 게송을 모은 〈장로니게(長老尼偈)〉 사이에는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 〈비구니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혼 또는 소녀로서 비구니 승단에 출가했다. 반면, 〈장로니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비구니 승단에 귀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구니전〉에서는 도시 상류층의 세속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미혼으로서 비구니의 삶을 택한 반면, 〈장로니게〉에서는 상류층(왕비)에서부터 하류층(창녀)까지 차별없이 비구니 승단에 융화되었다. 〈장로니게〉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비구니전〉과는 달리, 출가하기 이전에 이미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장로니게〉에서는 73명의 여성 가운데 12명이 비구니가 되기 전에 이미 일정 단계의 깨달음을 얻었다.

中 미혼 출가 印 신분차별없이 융화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미신고 복지시설 대책마련 해야

불교계 모두 30여곳… 장애인 등 600여명 수용

최근 들어 미신고 복지시설 난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미신고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은 30여 곳으로 장애인 · 노인 · 노숙자 · 청소년 · 아동 등 600여 명이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수용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불교계 미신고시설은 전국 미신고 시설 637곳의 채 5%에 불과한 것으로, 개신교 377곳, 천주교 210곳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과 함께 소방, 위생, 안전문제 등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시설 대부분이 '시설 양성화'를 기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는 양모 원장은 "시설 구비 조건을 갖춘 시설들도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특히 노인시설의 경우,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 시설장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갖추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 등이 신고 기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시설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건부 신고제'를 도입, 신고접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인력 부족, 소방 · 위생 등 환경 열악
시설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 양성화 등 절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미신고 시설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미신고 시설에 운영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인적자원 지원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 모색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미신고 시설의 운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신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를 포함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회장 지거스님)는 1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미신고(소규모 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토론회'를 갖고, 종교계 미신고 시설 양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종단 발전 과제 하나씩 해결"

신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종훈 스님



7월 2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된 종훈스님(과천 보광사 주지)은 능가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득도하여 석암스님을 계사로 71년 사미계, 74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2년 해인사 승가대학 83년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86~91년 조계종 교무국장, 93년 불교방송 편성국장,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소감은?

"책임감이 앞선다. 종단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쉽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기획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종단의 종무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서간 벽이 없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기획실이 솔선수범하여 총무원 내에서 메인이 되기보다는 지원에 충실하는 서포트 역할을 하겠다."

◈북한산관통도로 문제 등 환경과 관련한 현안이 많다. 종단적인 해결방법은?

"북한산 문제는 종단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북한산 문제를 엄밀히 보면 지역개발과 환경수호라는 두개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은 힘을 이용하거나 정치논리로 풀기 보다는 합당한 논리를 찾아내야 해결된다."

활력 위한 종도의견 개진 필요

◈종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종단이 항상 싱싱함을 가지고 현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도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한다. 종단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론에 귀 기울이고, 어떤 비판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본사, 해외유수잡지 독점 공급

현대불교신문사가 다음과 같은 해외 유수 잡지들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잡지들은 아시아계 예술분야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본사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고 있는 불교잡지 Tricycle(트라이시클)을 비롯, 동양미술, 철학 종교 관련 영자책을 수입 공급할 예정입니다.

- Arts of Asia(아트 오브 아시아)
- Oriental Art(오리엔탈 아트)
- Orientations(오리엔테이션)
- Asian Art News from Hong Kong(아시안 아트 뉴스)
- World Sculpture News from Hong Kong(월드 스컬쳐 뉴스)
- Asian Art Newspaper from London, U.K.(아시안 아트 뉴스페이퍼)

이들 잡지 도서의 구입문의는 여시아문(02-732-1512) 또는 인터넷(www.buddhapia.com/eng)으로 하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원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일주문



'…종교인의 역할' 세미나

정각 스님은 11일 부산시청에서 '현대문명과 인간성회복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무용제 참석차 출국

법현 동국대 국악과 교수는 6~13일 터키 버사에서 열리는 제 41회 국제무용제에 참석키 위해 3일 출국했다.



보명사 홈페이지 오픈

성민 인천 보명사 주지는 최근 보명사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주소는 www.bomyungsa.com 이다.



통도사서 하계수련회

이영자 신수회 회장은 13~14일 양산 통도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에서는 신수회 하반기 계획도 논의된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상국(공정모), 현담(남기원), 덕우(강승욱), 법기(이원희), 법현(석권영), 현담(최훈), 해관(박일용), 법화(박래석), 혜종(김용호), 성원(김대성), 상윤(이윤석) 법사.

육해공 군승 11명 임관

군불자 양성과 포교를 담당할 육 · 해 · 공군 불교 군종장교 11명이 6월 29일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임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후보생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초발심을 되새기며 적극적으로 군포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신교 30명과 천주교 17명의 군종장교도 임관했다.

인 사

중앙승가대 △총무국장=천산 △법인국장=법상 △교학국장=송하스님

태고종 서울남부교구 △종무원장=운담 △종회의장=운경 △호법원장=재홍 △중앙종회의원=법진스님

불교여성개발원 △간사=이화

"불교발전 스님업적 새삼 느껴"

SBS사극 '여인천하' 보우역 능화 스님



"보우 스님역을 맡고 보니 승과제도 부활 등 나라와 불교 발전을 위한 스님의 업적이 매우 컸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승과제도 부활은 40여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 유정과 휴정 스님 같은 승병들이 나라를 구하는데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SBS-TV 대하사극 '여인천하'(유동윤 극본, 김재형 연출)에서 보우역에 캐스팅된 능화스님(인천 광역시 지방무형문화재 제10호 · 사진)은 보우 스님을 되새기는 기회였다고 피력했다. 능화 스님이 출연하는 장면은 22일 방영되는 마지막회분에서 '명종을 알현하고 나오는 장면', '문정왕후와 국정을 논하고 나오는 장면', '궁궐로 들어가는 장면' 등 세 장면.

능화 스님의 이번 캐스팅은 김재형 PD가 무념 스님 때문에 예전부터 친분이 두텁던 능화 스님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연기 경험은 없지만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해 6월 26일 촬영을 마쳤다는 능화 스님은 "대본을 받고보니 보우 스님이 문정왕후와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사료를 뒤져보니 확실한 근거가 없어 자칫하면 보우 스님을 폄하시킬 수 있어 삭제시킬 것을 제작진에게 부탁해 그 부분은 방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방영 마지막회 세장면 출연

김주일 기자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달려갈 터"

'베스트 친절 시민상' 받은 고명오 씨



선정된 것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월드컵 홍보관에서 영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숙소를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한 멕시코인을 6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숙박지를 잡아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좋은 나라 운동본부'는 고씨와 같이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푼 시민 40여명을 심사한 끝에 고씨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위해 봉사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더 열심히 살라고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사회계몽 프로그램 '좋은나라 운동본부'가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에게 가장 감동적인 친절을 베푼 자원봉사자로 선정, '베스트 친절 시민상'을 받은 고명오씨(49 · 사진)는 5일 저녁 자신의 이야기가 방영되면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자 부끄럽다는 말부터 꺼냈다.

. 고씨가 '베스트 친절 시민'으로 지하철 공사 직원으로 사당역에서 근무하는 고씨는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아침에 퇴근해서도 자원봉사활동지로 향하는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역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내 김난숙씨와 함께 20년이 넘게 조계사를 다니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봉사를 생활화 한다는 고씨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태국대사 조계종 스님 초청 오찬

솜분 상기암부트(Somboon Sangiambut) 주한 태국대사는 6월 28일 태국대사 관저에서 도영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등 조계종 간부 7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솜분 태국대사는 "한국의 전통사찰문화에 깊은 신심을 느꼈다"며 "향후 양국 불교교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영스님도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부산 제등행진 우수사찰 시상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6월 28일 불기 2546 부처님오신날 봉축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봉축행사 경과보고, 제등행진 우수 사찰 표창패 수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범어사, 삼광사, 진각종, 여여선원, 한마음선원, 혜원정사, 동명불원 등이 우수사찰단체로 수상했다.



삼광사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대법회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와 육군 53사단(사단장 이호문)은 6월 29일 53사단내 호국자운사에서 호국 위령대재와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7백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도원스님은 "월드컵 성공이 부산아시안게임과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성공개최로 이어져 국운이 더욱 융성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산아미타 합창단 창단식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은 7월 4일 서울 동산불교회관 2층에서 동산아미타 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30명으로 구성된 동산아미타 합창단(단장 신유진)은 박상훈 씨가 지휘를 맡아 앞으로 불교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교육과 포교 현장에 나선다. 동산아미타 합창단은 11월에 찬불가교류차 일본 호카이도 양원사를 방문한다.

"어머니 간병 힘들땐 항상 기도"

운봉가요제 효행상 불자가수 이효정 씨



"은비녀 꽂으시고 곱게 천사처럼 살아오신 어머니도 치매병 앞에선 한낱 나약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16년동안 간병하느라 힘들때도 많았지만 부처님께 항상 기도하며 노래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6월 28일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1회 운봉가요제'에서 가수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효행상을 수상한 불자가수 이효정씨(40 · 사진)의 수상 소감이다. 97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노래한 '우리 어머니'를 발표하며 KBS-TV 가요무대에 단골로 출연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이효정 씨의 효심은 이미 가요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씨의 이같은 효행은 97년 KBS-TV '병원24시'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40~50대를 중심으로한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다.

94년 1집 '새벽달'로 데뷔 한 이후 2집 '사랑의 조약돌', 3집 '농부의 아내' 등 잇달아 음반을 발표한 이씨는 요즘 틈틈이 독거노인 돕기와 서대문공원 무료식사 봉사 등 봉사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틈틈히 독거노인돕기 봉사활동도

남한산성 국청사를 자주 찾는다는 이 씨는 "주로 〈천수경〉을 외우며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보살핌 때문인지 요즘에는 어머니의 병이 예전보다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사찰이나 교계 행사에서 찬불가나 불음 가요를 부르는 음악 포교 활동에도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자 홍명보 선수 인기 상한가

브론즈 볼 수상 · CNN 베스트11 이어 축구협 MVP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국가축구대표팀 주장 불자 홍명보 선수(사진)의 인기가 월드컵 이후에도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2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컵 최우수 선수 3위에 해당하는 'FIFA 브론즈 볼'을 수상한데 이어, FIFA가 선정한 2002월드컵 올스타 대열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세계적인 권위지인 월드사커 선정 베스트 11, CNN 선정 베스트 11, 로이터 선정 베스트 11에 뽑히는 등 2002월드컵을 통해 축구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도 2일 주장 홍명보를 대회 MVP로 선정해 5일 해단식에서 시상했다

홍명보는 또 MBC 공익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느낌표'의 인기 코너인 '박경림의 길거리특강'에 출연해 자신의 축구인생을 30분간 얘기할 예정이다. 13일 밤 9시 45분에 방영된다.

홍명보의 인기는 출판계에서도 증명되었다. 지난 5월 출간한 자서전 〈영원한 리베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전국 16곳의 도서판매자료를 집계해 발표한 6월 넷째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홍명보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종교가 불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엄정한 자기관리와 팀플레이의 중요성, 좌우명이 '一心'이라는 것 등을 언급했다.

13일 '길거리 특강'서 축구인생 소개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정기수련과정(1개월) 안내

1. 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에서 1개월간의 입산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신행 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단, 외국인 참가 단체등 각 특성에 따라 지도자와 사전협의 하여 일정표를 짜게 됩니다.

2. 참가회비
■개인 : 1개월 50만원 ■단체 (30인이상 기준) 회비조정

3. 기준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불교기초교리
5시	오체유법 및 참선	15시	선 · 관 · 무 수련
6시 30분	아침공양(발우)	17시 30분	저녁예불
7시 30분	운력	18시	저녁공양(발우)
9시	선 · 관 · 무 수련	19시	예습 및 복습, 독서
11시	참선	22시	취침
12시	점심공양(발우)		

4. 개 강 일 ■2002년 7월 25일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 금요일 회주스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술 담배 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라.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계 특별수련회 안내

1. 일정 및 내용

기간(3박4일)		내 용
1차	7월 25일 (목요일) ~ 7월28일 (일요일)	弓 · 觀 · 武 수련, 묵언(참선), 발우공양, 사찰예절, 전통문화강습, 예불, 108배, 운력
2차	7월 30일 (화요일) ~ 8월 2일 (금요일)	
3차	8월 6일 (화요일) ~ 8월 9일 (금요일)	
4차	8월 13일 (화요일) ~ 8월16일 (금요일)	
5차	8월 20일 (화요일) ~ 8월23일 (금요일)	

※초 · 중 · 고생 수련회는 다소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 준 비 물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은동화, 도복(별도)
3. 장 소 ■강원도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
4. 신청기간 : 2002년 6월 ~ 각 차수 2주전까지
5. 수련회비 : 6만원(1인)
6. 입 금 처 : 국민은행 812-24-0442-619 예금주 - 이동규

◈중앙수련원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구)용암초등학교 우 220-852

◈서울수련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3-1 거양 B/D 4층 우 137-849

접수신청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팩스 : 02)891-0770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총본회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직원채용공고

1. 모집직종 및 인원

직 종	모집인원	자 격
사회복지사	2명	복지사 2급, 3급
경리사원	1명	경력직 1명
간호사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기기사	1명	2급
보일러기능사	1명	보일러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2급(제4류)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자격증 사본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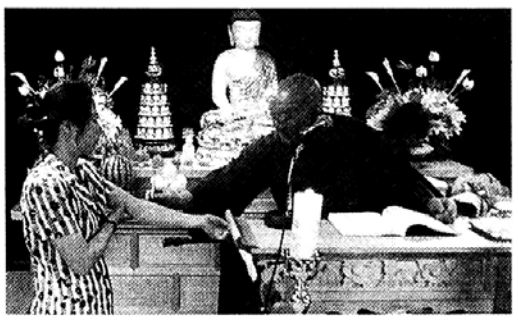
3. 모집기간
2002. 7. 1 ~ 7. 30

4. 연 락 처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85 사회복지법인성라원
◎ 전 화 : 02)743-0294/Fax 02)747-4866
◎ E-mail : sungla@sungla.or.kr
◎ Homepage : www.sungla.or.kr

사회복지법인성라원 성라실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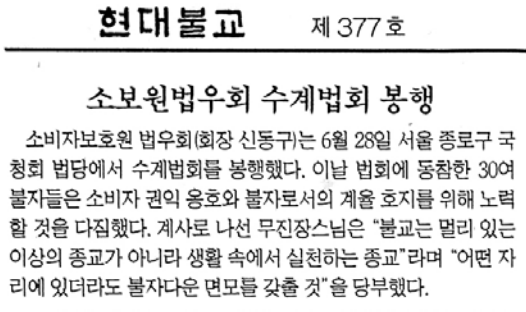
소보원법우회 수계법회 봉행

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구)는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국청회 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30여 불자들은 소비자 권익 옹호와 불자로서의 계율 호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계사로 나선 무진장스님은 "불교는 멀리 있는 이상의 종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라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불자다운 면모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은평불심회 정년퇴직자들 위로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6월 27일 열린 2002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에서 15명의 퇴직자들을 위로했다. 청소행정과 이병옥, 지적과장 서상원 등 2명의 불심회원이 포함된 퇴직자 모두에게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책을 선물했다. 불심회는 매년 두차례 열리는 정년퇴임식때마다 퇴직자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증정해왔다.



풍경소리 사무실 이전·현판식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대표 덕신)는 3일 종로구 견지동 110-8번지 길상원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풍경소리는 청계사 성형스님, 옥천암 성전스님, 현등사 초격스님을 부회장에 위촉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친환경 삶의 지혜 배웠어요"

철도청불교단체협, '발상의 전환' 주제 여름수련회

'산의 형세를 해치지 않으면서 더불어 조화로운 사찰환경을 조성했던 선조사 스님들의 지혜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6월29~30일 경북 영천 은해사, 철도불자들은 복을 구하려는 기복신행을 탈피해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수련회를 개최했다. 기도, 참선 등과 함께 사찰의 생태와 문화,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배운 1박 2일의 산사 체험. 철도불자들은 과감히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29~30일, 영천은해사에서 열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의 '사찰 주변생태' 설명을 듣고있다.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의 이번 수련회는 산사에서의 예불, 발우공양, 기도 등 불교 수행의식 체험은 물론 수련회의 틀을 깬 생태답사, 암자 순례 등 프로그램이 포함돼 1백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의 '환경친화적 불교의 가르침' '사찰 문화의 이해' 강의는 견문의 폭을 한층 넓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그냥 불교가 좋다는 막연한 생각을 뛰어넘어 불교가 이제는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피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얻은 확신 때문입니다." 참가자 윤석오 불자(부산철도차량정비창)는 수련회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 하나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체험하며 불교문화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되새겼다. 은해사 주변의 생태 답사 시간에는 사찰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공존하는 현장을 배우기도 했다.

기도·참선 함께 생태·생명존중 체험
참가자들 "가정·직장서 실천" 한목소리

철불협은 수련회 이후 참가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친환경적 사상을 실천하도록 프로그램을 안배했다. 소비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불자들의 삶을 생태적 삶으로 변화시켜 부처님 사상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98년 철불협 창립 이후 매년 실시해 온 수련회의 틀을 깨고 산사와 자연, 환경을 소주제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철도불자들은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철도청내 포교 활성화와 불자회간 교류 확대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철불협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확충, 미창립 계열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 수익사업 전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찬연 사무국장은 "이번 수련회는 참가한 회원들의 마음속에 알지 못했던 불교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철불협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불협은 6월 25일 전체 회장단회의에서 정동진 전 회장의 후임으로 이용일 차량본부장을 새 회장에 선출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관내 경찰서 불교회 창립 지원

전남경찰청불교회 창립1돌 기념법회

광주·전남 지역의 경찰불자들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관내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천승범)는 20일 오후 3시 광주 향림사에서 열리는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순천, 나주, 해남경찰서 등 관내 경찰서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같이 결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창립 경찰서의 불자 현황파악과 지역사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는 연합법회를 열어 경찰불자들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법회와 다과회로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쳐온 11명의 경찰불자에게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의 표창패와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천승범 회장의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한다.

박건희 총무는 "전남지방경찰청을 위시한 관내 경찰서 불자들은 지난 1년동안 꾸준히 신행활동을 펼쳐 신심깊은 불교회로 자리잡아 왔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찰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호남지역의 약한 불교세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내 16개 경찰서 불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창립 이후 1년동안 향림사와 원각사에서 조계종 원로 천운스님, 담양 정토사 주지 한탑스님 등을 모시고 매월 두차례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 등 직장불교회와도 활발히 교류하는 등 모범적인 직장불교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과천청사 공무원불자련 20일 영천서 여름수련회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나승렬)는 20~21일 경북 영천 보현자연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과천청사 공무원 불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예불과 정근, 108배 등 정진과 신행토론 등 모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회원들의 우의도 다진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부처님마을의 회원과 가족들이 동참해 교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영천 거동사와 정각리 삼층석탑 참배, 보현산 천문대와 임고서원 답사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소쩍새마을 장애인 위문

서울은행 불교행우회(회장 권태중)는 6월 30일 장애인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을 방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 농장 일손돕기, 잡초 제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축구공, 기저귀, 건어물 등 위문품과 전국금융단불교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단불교회 임원과 불교행우회 회원 20여명이 동참했다.

우리 모임에선

청주운불련 지역 독거노인 목욕봉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청주지역회(회장 류승준)는 10일과 24일 청주북부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펼친다. 목욕봉사에는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다. 청주 운불련은 매월 청주북부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목욕, 경로잔치 등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은행불자회 '알기쉬운 불교의식' 강좌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11일 오후 7시30분 본점 501호 강당에서 '알기쉬운 불교의식'을 주제로 강좌를 갖는다. 불교의식에 깃든 의미와 생활 속에서 쉽게 집전할 수 있는 의식을 배우는 이날 강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

동두천시청 삼보회 용화스님 초청법회

경기도 동두천시청 삼보회(회장 장석원)는 18일 오후 6시30분 동두천 보문사에서 중화사 주지 용화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 회장을 역임한 최용수 동두천시장이 참석, 삼보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본사 반야회 새회장에 이인규씨

전체회의서 선출, "계열사 불교회 창립 지원"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회장에 이인규(사진) 전력거래소 계통기술처장을 선출하는 한편 궐석중인 임원을 선출하고 반야회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인규 회장은 20여 전력계열사 연합체인 전력인불자연합회장직을 겸임한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홍보부장에 전자통신처 이정한 부장, 사무차장에 송변전처 이명희 과장 등이며, 김호표 사무국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이인규 신임 회장은 "반야회는 한국전력이 분사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분사된 각 회사에 불교모임이 구성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전력인불자들의 결속력을 키워나가겠다"며 "서인천화력 등 회원은 활동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불자회를 창립하지 못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대한불교진각종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佛法은 體요 世間法은 그림자라" 1, 2부를 제작해 보급합니다.

회당 다큐멘터리는 회당대종사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를 다루되 구도역정과 일화, 회당의 불교개혁론, 진각밀교 등이 복합적으로 1, 2부/1set로 구성되었으며, 비 공개된 자료와 함께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입문의처 : 02)942-0127 (해인서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
www.hoedang.or.kr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화제의 신간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화 체험기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중품·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
붓다의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722-0292~3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7월-인욕의 달
· 기꺼운 불편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기꺼운 불편 감수



◇모든 수행의 필수요건인 인욕바라밀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린이들에게 사찰수련회는 인내심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다.

입시철 등 각종 기도철은 물론 연중 참배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대구 팔공산 약사여래 도량. 일명 '갓바위 부처님' 도량으로 불리는 이 곳에는 간혹 자리 다툼이 벌어진다. 부처님이 마주 보이는 앞 자리나, 햇빛이 가려지는 장소에 기도객들이 몰리다 보니 사소한 언쟁이 있게 마련. 하지만 우연히 이 곳을 방문하는 불자들은 참배객들의 이런 모습이 의아스럽기만 하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기도성지에서 그것도, 힘겹게 쌀을 머리나 등에 지고 올라와 정성을 다해 막 기도를 하려는 찰나에…."

가장 성스러워야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자답지 않은 행태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복불교의 이기적인 신행의 모습은 아닌지. 기도성지나 대법회장 등 불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런 광경은 불제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의 후덥지근한 습기가 더욱 짜증을 자아내는 계절이 다가왔다. 사소한 언쟁이 말다툼으로 변하고 급기야 주먹질이 오가기 쉬운 이 때 한 번 참는 마음,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칭찬하면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모욕을 주면 화를 낸다. 불교에서는 이런 범부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娑婆世界)라 한다. '사바'는 의역(意譯)하면 인토(忍土)라는 뜻이다. 즉 이 세상은 인내를 강요하며, 인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니, 도를 행함에 있어서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법구경)고 설했다.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인욕행이란 이렇게 범부들에게 일어나는 모욕이나 고통, 번뇌 또는 박해를 능히 견디고 참아서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평안하게 해 자기 본래의 면목을 밝히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를 간곡히 권했고, 육바라밀 수행의 필수 요건으로 강조하셨다.

볼자라면 내가 먼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배려심부터 기르자. 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개인과 가정은 항상 평화롭고 화목하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인욕행을 실천한다면 개인적인 수행의 진보는 물론 선진 시민의식을 키우는 보살행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신행 캘린더

7월 10일 (수)

■광주 의재미술관 '전시회'=초의선사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불교 이해를 바탕으로 추사체를 창안한 추사 김정희.

부국문화재단이 31일까지 추사와 그의 지인들의 작품을 모은 '완당과 완당바람-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 주제의 전시회를 마련한다. 소천 허련, 석파 이하응과 중국학자 옹방강, 완원 등의 문인화 40여 점을 통해 동양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062)222-3040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아동영화 상영회'=보노보노, 신데렐라2, 아더왕의 검….

용호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어린이 극장' 시간을 통해 아동 영화를 상영한다. 다양한 아동용 만화영화 감상을 통해 꿈과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펴 보자.(051)628-6737

7월 11일 (목)

■불교환경교육원 '무공해 장보기' 행사=불교 신행은 청정국토를 가꾸는 일부터….

불교환경교육원이 오후 3시 서울 홍제시장에서 '쓰레기제로 1080운동' 실천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

완전 분해에 5백여 년이 소요되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장보기. 이번 행사에서는 비닐봉투 대용 투명망과 방수망의 홍보 및 판매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02)587-8997

7월 13일 (토)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불교학연구회가 13~14일 예산 수덕사에서 '명상과 불교수행' 주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수덕사 선원 무애스님과 보리수선원 붓다락키타스님이 직접 간화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할 예정. '간화선의 이론' '염불선의 이론과 실수' 등의 논문 발표도 함께 계획돼 있다. 누구나 참여해 불교수행법을 배워볼 기회.(02)2260-3128

■용진신행회 '성지순례'=지리산 법계사와 겁외사를 찾아서….

용진신행회가 적멸보궁 법계사에서 철야 정진기도를 올리고 성철스님의 생가터에 세워진 겁외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갖는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을지로 5가. 참가비는 4만 5천원.(02)2279-1191

7월 14일 (일)

■천불사 대법회=천안 천불사는 오전 11시 천불전에서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 초청법회를 갖는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선·교·율의 수레바퀴를 잘 굴릴 때 이 땅이 청정국토가 될 수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이 무엇인지를 배워보자.(041)557-3223

■신라문화원 '경주문화기행'=석장동 암각화, 정혜사터 13층석탑, 독락당, 옥산서원, 홍덕왕릉….

신라문화원과 함께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누벼보자. 오전 9시 신라문화원에서 출발하는 이번 행사는 신라문화원 최민희 전문위원의 안내로 진행된다. 회원 1만 3천원, 비회원 1만 5천원, 학생은 1만원.(054)774-1950

7월 15일 (월)

■옥수종합복지관 '요가강좌'='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옥수종합복지관이 현대인의 건강 지키기를 위한 요가강좌를 15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한다.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11시 1대1 강사지도를 통해 요가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 참가비 4만원(02)2282-1100

소외된 이웃에 사랑 베푸는 불자

우리 절 우리 신도

군산 성흥사 강근자 신도회장



◇강근자(오른쪽에서 두번째) 신도회장과 성흥사 불자들이 무의탁독거노인 무료급식을 위해 군산나운종합복지관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

군산 재소자법회 참석후 사회봉사 본격
독거노인 급식·소년소녀가장 돕기도

"불자라면 당연히 나보다 남과,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죠.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불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 성산면 성흥사 신도회장 강근자(61·법명 청정심) 보살은 스스로에게 늘 다짐한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불자가 되겠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념적 지식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에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청정심 보살의 이같은 생각은 신도회 운영 방침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성흥사 신도회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불자 개개인에게는 믿음의 사회적 실현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적으로는 포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잘 꾸며 놓았다고 해서 큰 사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을 하면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찰이 진정으로 큰 사찰이 아니겠습니까." 청정심 보살은 외형적 불사에 치우쳐 사회 회향에 뒷전인 일부 사찰의 행태를 꼬집으며,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부터 포교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역 불교가 타종교의 수적 우위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정심 보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신도회의 자비행은 군산지역 포교의 단비가 되고 있다. 청정행 보살은 99년 성흥사 주지 송월스님을 따라 군산교도소 재소자 법회에 참석한 후 사회 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재소자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대하고는 꺼림직한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았던 자신이 부끄러워 참회의 기도를 수도 없이 올렸다. 93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2000년 11월, 청정심 보살은 신도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다. 법회 때마다 매번 법당 청소와 공양 준비,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신도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결과였다. 신도회 김미숙 총무는 "청정심 보살의 솔선수범이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해 신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도회장에 선출된후부터 청정심 보살은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교도소 재소자 위안법회 등에 체계적인 운영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군산 나운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도 시작했다.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무의탁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직은 무료 급식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청정심 보살은 이를 정례화하고 직접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는 등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청정심 보살은 송월스님과 신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군산 임피면 자광노인대학에서 불가 기공 선체조 실습 조교로도 활동하고 있다. 선체조 조교가 필요하다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이것도 회향이다' 싶어 지원했다. 신도회장이 직접 조교로 나서자, 노인대학 어르신들의 강의 참석율도 부쩍 높아졌다.

23년째 성흥사에 다니고 있는 청정심 보살의 가족은 전체가 독실한 불자이다. 군산불교대학을 졸업한 남편과 1남4녀 자녀들 모두 절에 다닌다. 매일 새벽 집에서 천수경을 독경해 온 청정심 보살의 깊은 불심이 온 가족을 신심깊은 불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청정심 보살의 자비행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가정에 소홀할 법도 하지만 늘 충실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인 청정심 보살에게 가족들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군산=박봉영 기자

추천의 말

송월스님 성흥사 주지



92년 처음 부임했을 당시 성흥사는 쓰러져가는 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찰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지요. 맨손으로 시작한 불사였습니다.

강근자 회장은 이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남보다 먼저 절에 와 법당을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법당 불사 때는 솔선수범하며 신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신도회장 소임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신도들의 작은 일까지 함께 나누는 자상함이 성흥사를 단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일에 헌신적인 강 회장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신심으로 신도들의 사표가 되는 강 회장의 모습이야말로 참불자가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어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
변형국판, 72쪽, 값 : 8,300원
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이름운세풀이
신국판, 160쪽, 값 :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1차전 승리 예상 적중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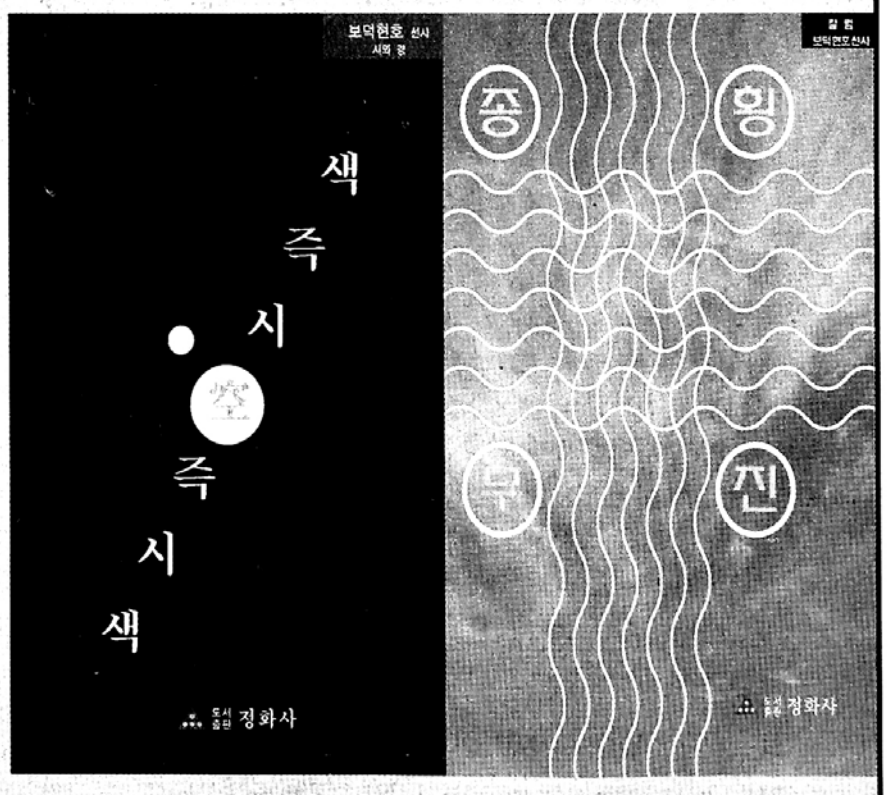
색즉시공즉시색
신국판, 112쪽, 값 : 5,400원
시와 경과 사진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종횡무진
신국판, 192쪽, 값 : 6,800원
창조적 지혜로 현실을 바로보고 진실을 일깨워주는 21세기 지성인의 교양서









도서출판 정화사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불교대학을 찾아서

⑤ 동산불교대학



◇지난해 개설된 '우리춤학과' 수강생 20여명이 일년간 갈고 닦은 춤솜씨를 선보이는 '소리선춤' 발표회를 2월6일 가졌다.

불교미술 · 우리춤학과 등 교과목 차별화
동산반야회 3개월과정 강좌가 모태
LA관음사에 분교…교민위한 통신교육

곽정현 전 국회의원, 안동일 변호사, 드라마 '용의 눈물'의 작가 이환경 씨, 가수 김흥국 씨 등이 모두 '동문'인 대학. 신입생의 70% 정도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남자 비율이 여자의 2배 가까이 되는 대학.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스님)은 졸업생들의 면면만 보아도 그 '유명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배출했다.

학기마다 300여명이 넘는 발길이 동산불교대학으로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준 높은 강사진과 특색 있는 교과목을 들 수 있다. 무진장 스님과 묘주 스님, 종석 스님을 비롯해 김상현, 권기종 교수 등 불교학 관련 교수들이 포진한 교수진도 정규대학에 버금간다.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 불교한문학과 등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교과목도 인기의 한 요인이다. 동산불교대학의 학생이기도 한 서울대 이애주 교수가 지도하는 우리춤학과는 지난해 개설돼 '소리선춤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원전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한 한문학과는 50명 도집 예정에 120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차문화와 침술 등에 관련된 학과도 개설할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의 초석은 재가불자단체인 동산반야회가 82년부터 시작한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강좌다. 이 강좌를 신청하는 회원들이 늘고 그 기대치도 높아짐에 따라 1992년 2년 과정의 불교대학을 열었다.

"기도만 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바로 읽어야 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2년 동안 체계적인 경전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 1학년 교과목은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한국불교사, 유식 · 정토사상 등 9과목을, 2학년 과정에서는 법화 · 반야 · 화엄사상과 불교사회복지론,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등의 9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년 과정의 불교대학을 마치고 경전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사람은 동산불교전문연구원에서 정토학, 근본불교, 대승경전, 인도 티베트어 등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대학 과정의 졸업과제물은 '나무아미타불'을 10만 8천 번 사불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목을 충실히 배우는 것만큼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 하다. 르완다 난민 돕기와 콩고 난민 돕기 등 대사회 활동을 펼치는 것도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학의 학풍이다.

11년 동안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재가불자들의 교화도량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산불교대학은 97년에 LA관음사 분교를 설치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통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는 학사를 조계사 옆으로 옮기며 전문 교육관을 확보하는 등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재일 이사장은 "앞으로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전문 교육자를 배출하고 싶다"며 "재가불자가 깨어있고 불교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세상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경 기자

동산불교대 4기 졸업생 종교편향 바로잡는 역할



임희웅 통일 · 종교편향특위장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의 통일, 종교편향 특별위원회 임희웅(사진) 위원장은 동산불교대학 4기 졸업생이자 동산불교연구원 1기 졸업생으로, 포교일선에서 불교를 바르게 알리고 종교편향 사례를 찾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위원장은 "불교교육기관의 문턱이 낮아져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인 김홍성의

네 팔 사 는 이야기

〈4〉 카트만두와 보리수



카트만두… '나무의 사원'이라는 뜻
보리수와 더불어 사는 지순한 사람들의 땅

카트만두 변두리 마을이나 설산으로 가는 길목의 어떤 마을에서도 보리수를 볼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마을 입구에, 마을 한가운데에, 또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목에 보리수들이 하늘을 이고 서 있습니다.

네팔에 이렇듯 보리수가 많이 자라는 까닭은 역대 통치자들이 보리수 베는 것을 엄하게 금한 것도 한 이유지만 보리수가 네팔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 속에도 아주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카트만두'라는 지명은 〈까뚬만답〉이라는 고어(古語)에서 온 것인데, 이는 〈나무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사방 어디서도 잘 보이는 카투만두 분지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물물교환을 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카트만두라는 도회의 기틀이 다져졌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저는 그 나무가 보리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모수(母樹)가 되어 카트만두는 물론 히말라야 전역에 자자손손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는 카트만두가 가덕만도(嘉德滿都)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팔어의 한자 음역이겠지만 굳이 그 뜻을 풀어 보면 '아름다운 덕이 가득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비록 현대 물질 문명으로 대표되는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급변하고 있기는 해도 카트만두가 여전히 그 이름 값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오늘도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보리수 덕택일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네팔 사람들은 보리수를 숭상하며 치성을 드립니다. 우리도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동구 밖 당 나무에 치성을 드렸듯이 네팔 사람들도 보리수에 실타래나 헝겊이나 종이를 걸고 소원을 빕니다.

돈 벌러 객지에 나간 자식이나 지아비가 탈 없이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기를 빌고, 떡두꺼비같은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빌고, 좋은 신랑을 만나 오순도순 살게 해 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보리수 밑에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보리수 밑에서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보리수와 더불어 아직도 이렇듯 지순합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판자집 독거 시각장애 할아버지

하루 하루의 삶이 '형벌'

온재산 아내 간경화 치료비에 충당
산허리 단칸방 붕괴위기…이사 '막막'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부는 때까지 /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 참으로 짧습니다 · (생략)'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마지막으로 눈감는 아내에게 읽어줬던 시다. 벌써 4년이 지났건만, 가는 길을 마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남편은 여태껏 사무친 마음을 편히 놓아둘 수 없다.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그 때 그 시는 지금 살아있는 남편에게 제사장의 주문이 되어 버렸다.

아내, 정말로 사랑했다. 21살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클래식 다방에서 7살 많은 아내를 만났다. 2년 연애 끝에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아내였다. 산모한테 위험하다고 해서 3개월 된 아이마저 유산시켰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아내를 위해 평생 아이도 갖지 않았다. 그러던 아내가 20년 전 간경화에 합병증까지 앓게 되자, 종로 원남동 서울대병원을 집처럼 드나들게 됐다. 병석에 누워 힘겹게 흘리는 아내의 눈물방울도 핥아 주었던 남편이었다.

최예효(64) 할아버지. 이제는 아내 김세복 씨의 빈 자리에 당뇨병과 가난만이 자리 잡았다. 급기야 2년 전에는 합병증으로 왼쪽 눈과 오른발 발가락 하나를 잃었다. 병수발만 들었던 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 챙길 여유는커녕 온 재산을 아내의 병원비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아내의 투병생활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4년 전부터 최 할아버지는 보증금 150만원에 사글세 8만 원짜리 판자집 단칸방에서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허리를 파고 들어가 위태롭게 자리 잡은 집. 낮은 천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그곳마저도 곧 비워야 할 판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28만원으로 근근이 연명만 하고 있는 최 할아버지 처지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최예효 할아버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눈도 잘 보이지 않다보니 밥 해 먹는 것부터 빨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중노동에 가깝다. 피부 건조증까지 다시 심하게 도져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물을 응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초점이 흐려진 최 할아버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잃어가는 시력만 탓할 수 없어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점자책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이나마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젊었을 때, 출판을 했던 최 할아버지로서는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형벌'이다.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최할아버지. 눈으로 읽었던 〈접시꽃 당신〉의 시구, 최 할아버지가 웅얼거린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인지, 한 평 반도 안 되는 옹색한 판자집 방안에 잔잔히 녹아든다.

주소 : 서울 은평구 역촌2동 210번지
전화번호 : (02)351-4550
후원계좌 : 국민은행 458302-01-030009(예금주 최예효)

김철우 기자

제 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직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수시모집)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011)849-0961
회 장 011)864-1518
총 무 017)563-3062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3일간의 체험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온갖 꿈의 시달림에서 해방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힘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부끄럼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여름수련일정
2002. 7. 5 ~ 2002. 8. 29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일주일전 예약

수 련 과 정

本 性 (3 일)	참마음, 無心, 無分別智 업장소멸
無碍法界 (3 일)	不空,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薦度) 마음의 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거듭남의 비결
無 上 覺	安息, 삶의 기쁨

033) 435-3166, 435-6166
FAX 033) 435-8166

참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⑤



그림 · 문병성

여성차별

성차별 근거 '비구니 8경법' 아직도…
불합리 계율 폐기…법사 배출 힘쓸 때

불교인들은 대개 불교가 매우 과학적인 종교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오고 있으나 냉철히 살펴보면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내재해 있다. 따라서 첨단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불교인들은 이제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 비과학적으로 댕신하고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 우선 시급히 고쳐야 할 관습 가운데 여성차별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이 구별되어 있는 생물체는 원래의 체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의 절반을 갖는 생식세포를 만든다. 이들이 세포융합 과정을 거쳐 반감되었던 염색체 수는 새로 만들어진 세포 속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 수정된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다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은 부모가 되어 출산을 할 경우, 자녀에게 똑같이 유전 형질을 평등하게 반반씩 물려주며, 자녀는 다만 XY 염색체의 조합에 따라 딸과 아들로 나누어지는 것일뿐으로 여기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뛰어난 과학자 중에는 여성이 그토록 희귀한가?' 서구 문화권에서 행해진 일련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문화적 ·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보부아르 부인은 '여성은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고 역설했다. 1970년대 미국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러 여성 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과학과 젠더(gender: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 시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의미하는 개념)' 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과학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 결실로 지난 1999년 7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국가의 대표들은 '과학에서의 남녀평등 문제를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 는 선언에 서명하였다. 그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정책적으로 여성 과학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종일반 학교, 탁아소 등 가정과 직업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장 잘 마련해 놓고 있어, 여성 교수 비율도 가장 높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젊은 여성 과학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결여, 동료 남성 과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으로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하려면, 재능 있는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불교적인 측면에서 여성차별 문제를 살펴보면, 그 발단은 여성을 교단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비구니가 비구를 공경해야 할 8가지 계율을 설정한데 있다. 〈사분율(四分律)〉에 나오는 비구니팔경법(比丘尼八敬法)은 교단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조항은 '비록 백세 비구니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계한 어린 비구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친절히 맞이할 것이니 이를 형수(形壽)가 다하도록 어기지 말라' 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세존께서 비구니 승단의 인정과정에서 이미 틀을 갖춘 비구 승단으로부터 수행에 관한 노하우를 철저히 전수 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여성차별을 전제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제 이 조항은 지혜로운 대덕 스님들께서 앞장서서 완전히 폐지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울 것이 있다면 비록 백세 비구니(비구)일지라도 어린 비구(비구니)에게 마땅히 스승의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청해야할 것이며 이를 다하도록 어기지 말라' 라고 말이다.

또한 계율의 경우도 그렇다. 비구계는 250계이나 비구니계는 348계인 것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나, 원래 계율은 승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범제계(隨犯制戒 :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직은 의지가 굳세지 못한 다수의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니 승단의 형성 과정에서 여성 수행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더 추가된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한국적 현실에서 불필요한 계율들은 폐기돼야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강구하고 있는 재능 있는 여성과학자 지원육성 정책처럼 불교계도 가부장적인 남성으로서의 비구와 종속적인 여성으로서의 비구니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끌어 줄, 비구 스님이건 비구니 스님이건 성차별이나 노소의 분별없이 스승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법사들을 다수 배출하는데 온 힘을 쓸 때라고 본다.

구름과 달은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으나 (雲月是同)
계곡과 산은 각기 다르네. (溪山各異)
얼씨구 좋구나 (万福万福)
이 하나인가 이 둘인가. (是一是二)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있는 그대로 삶' 인정했더라면…

생명 존엄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시력까지 잃은 아들이 죽여 달라고 하니,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훗날 저승 가서 자식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지난 2일, 1급 지체장애인으로 희귀질환인 윌슨씨병을 앓아 온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같은 장애인 아버지 김 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한 말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일 오후 7시 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죽여 달라"고 아들이 하소연하자 외면하지 못해 아들을 죽이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애끓는 부정(父情)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있는 그대로' 존엄한 존재다. 현재의 상황에 따른 '우열' 도 '공(空)' 한 본성에 비춰보면 보잘것없는 상대평가일 뿐이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생명' 그 자체의 존엄을 훼손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의 삶' 을 긍정하는 것만이 고통을 이기는 길임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들는다.

▨인욕(忍辱)의 힘은 수미산(須彌山)과 같다.
<월등삼매경>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병자가 꼭 죽을 것을 안다 해도 죽음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타일러 삼보에 귀의하여 불 · 법 · 승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공양에 힘쓰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선생경>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 변치 않아서 방편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구호해야 한다.
<범망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⑰

머묾없이 생겨난다

육체 · 느낌 · 욕망 · 의식 가운데 생과 멸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한다. 마치 양이 냄새를 맡아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속에 쳐 넣는 것처럼, 하인과 주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무리는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가고자 하므로 시끄러운 곳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름하여 '참된 출가인' 이란 바로 '참된 속가인' 이다. 무릇 출가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평상하고 진정한 견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며, 부처와 마구니?참과 거짓?범과 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마구니와 부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바로 한 집에서 나와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업을 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예컨데 지금 부처와 마구니가 한 몸으로서 나뉘어 있지 않는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더라도 거위왕은 우유만을 마시는 것처럼, 밝은 눈을 가진 도인이라면 마구니와 부처를 모두 쳐버려야 한다. 그대가 만약 성을 좋아하고 범을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본래 면목과 계합하려면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 본래 면목은 '여기다' '이것이다' 라고 의식할 만한 그 무엇이 아니다.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하여도 본래 면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본래 면목이라고 일컫지만 사실 본래 면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해진 대상은 없다. 본래 면목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가운데에서 체험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지금 한 잔의 차를 마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가?' 하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컵을 가지고 마신다든가, 손과 팔과 입술을 사용하여 차를 마신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다시 질문을 '무엇이 차를 마시는가?' 하고 물어보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내가 마신다' 혹은 '사람이 마신다' 혹은 '마음이 마신다' 등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나' 니 '사람' 이니 '마음' 이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니 '사람' 이니 '마음' 이니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 혹은 몇 개의 사물로는 지칭될 수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육체 · 느낌 · 기억 · 욕망 · 의식 등을 '나' 와 관련하여 열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곧 '나'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만으로는 '나' 를 말하기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육체 · 느낌 · 기억 · 욕망 · 의식 등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와 무관하게 '나' 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경험되는 모든 것들의 생멸 속에서도 생멸과는 상관없는 그 '무엇' 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짐작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짐작되는 그 '무엇' 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만약 이 '무엇' 이 육체 · 느낌 · 기억 · 욕망 · 의식 가운데에 속한다고 하면, 이 '무엇' 은 생멸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것이다. 만약 이 '무엇' 이 육체?느낌?기억?욕망?의식 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무엇' 은 짐작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무엇' 은 육체 · 느낌 · 기억 · 욕망 · 의식 등에 속하지도 않고 별개로 떨어져 있지도 않다.

자! 그러면, 이 '무엇' 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육체의 움직임 · 경험되는 느낌 · 떠오르는 기억 · 발동되는 욕망 · 이런 저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3. Four Scenes of Human Existence

This illustrates Siddhartha's decision to renounce his worldly life. First, Siddhartha saw an old person at the east gate of the palace and felt fear of aging. Then he came to know suffering from seeing a sick person at the south gate, later he felt sorrow when seeing a funeral scene at the west gate. Finally he felt happy after seeing an renunciant at the north gate.

이 장면은 싯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싯다르타는 성의 동쪽 문에서 늙은이를 보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남문 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고통을 알지 되고, 서문에서는 장례행렬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문 밖에서는 출가자를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4. Renunciation

Late at night after everyone had fallen asleep, Siddhartha is leaving the palace riding a white horse. He waned to become an ascetic in order to find the ultimate truth.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싯다르타는 흰 말을 타고 성을 떠난다. 그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자가 될 것을 결심한다.

육六임壬래來정情비秘법法

◎ 혁 신 판 (全12卷) 활인전문천역자용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 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 · 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 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 효 사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 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비디오강의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숙 입강안내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목어 '템플스테이' 국민도 원한다



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4강신화를 이뤄낸 이번 월드컵은 국가이미지 홍보에 더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전통사찰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토록 한 이른바 '템플스테이(Temple stay)'다. 월드컵기간에 33개 사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950여명의 외국인들이 머물고 갔다. 참가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관심과 호응은 아주 좋았으며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을 정도다. 정부와 불교계에서는 9~10월 아시안게임 기간중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양인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을 이 사찰체험이 왜 그들을 매료시켰을까. 단지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좋거나 불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지구촌의 현대인이라면 전통사찰에서의 생활문화체험은 신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선을 통해 자기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발우공양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도와 탁본 체험 등도 그들을 흥미롭게 하기에 충분했을 터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템플 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불교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당국과 불교계는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템플 스테이'는 외국인들만의 전용이 되어선 안된다. 불자가 아닌 내국인들이라도 산사체험을 묵말라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주말연휴는 길어지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한다. 이제 사찰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일 채비를 해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딱딱한 프로그램으로 점철된 하계·동계 수련회만으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한국의 산사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연다면 포교의 새 지평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국민정서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찰은 국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찰의 문이 자신들에게 열리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성큼 다가가야 한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항구평화 위한 근본해결책 찾아야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

'연평해전(서해교전)' 이후 잠잠했던 서해 바다에서 3년만에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했다. 꽃게잡이 철과 대선이 다가오자 '북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교전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왔던 화해협력 노력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남측에서의 월드컵 열기가 무르익고, 북미, 남북대화가 재개될 시점에서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서해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전은 연평해전의 연장선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9년 6월에 발생한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 해군이 언젠가는 '보복을 통한 명예회복'을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해군의 전투력 열세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화해의 진전 등으로 보복 시기를 늦춰오다가 이번에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기본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면서 '사상·군사우선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통치구호를 제시하고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국가'인 북한에서의 패전은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사태다. 북한군은 '백배, 천배 보복의지'를 거듭 다짐하면서 훈련을 강화해 왔지만 남북간 전력격차에 따른 역부족을 절감하고 무력사용보다는 새로운 '해상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 NLL 무효화에 주력해 왔다. 이번 교전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NLL 고수냐 무력화냐를 둘러싼 분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서해황금어장의 영유권을 노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고집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경제난 해결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을 통한 경제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유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일본의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로 무기수출, 마약 밀거래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의 서해교전도 결국은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사활을 건 꽃게잡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이다. 북한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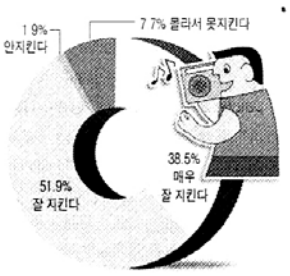
셋째, 북한 지도부의 '계획된 도발'이기보다는 북한 군부의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외 정세에 많은 정보를 가진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재개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미국 특사의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금강산댐 수위조절, 월드컵 한국경기 중계, 박근혜 의원을 통한 남북합의사항 이행의지 표명, 민간교류의 지속 등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정보가 통제된 군부입장에서는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서해교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는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북한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해교전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고한 냉전구조가 존재하고 냉전의 '관성(慣性)'이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민간급 교류는 지속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99년의 연평해전 1년 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북한 당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의 생각

사찰예절



불자들은 사찰을 방문했을때 대웅전 등 각 전각에서 삼배를 할까?

52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21명(40.4%)의 불자들은 "비교적 잘 지킨다" 51.9%

대웅전에서만 한다, 15명(28.8%)은 사찰의 규모나 시간 등 형편에 따라 한다, 9명(17.3%)은 일부 전각에서만 한다, 7명(13.5%)는 모든 전각에서 다 한다고 응답했다.

사찰 내에서 기본 예절을 얼마나 지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27명(51.9%)이 비교적 잘 지킨다, 20명(38.5%)이 매우 잘 지킨다, 4명(7.7%)이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한다, 1명(1.9%)이 잘 안지킨다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열린마당

2002년 한일 피파 월드컵 기간에 실시된 한국불교 전통문화 체험사업(일명 템플스테이)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인도에서 포교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고월 포교사와 김동훈 JTS 자원봉사자(본지 인도통신원)가 각각 우즈베키스탄과 인도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포교 및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글을 보내왔다.

중부아시아 포교에 관심을 — 김고월 포교사



세계 최초로 인체수술을 한 나라, 세계최초로 '0'을 사용했던 나라, 7~8세기까지 불교국가였던 나라, 화엄경과 법화경이 결집되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낙후된 나라, 이슬람국가가 되어있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소 생소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는 불연이 깊은 나라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불교 정식허가…종단·신행단체 포교서둘때

우즈베키스탄은 동서양을 잇는 문화적 가교이며, 과거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이었다. 136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국민의 70%가 이슬람이다. 우리 고려인들은 과거 24만명에서 독립 후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약 17만 명이 살고 있으며, 교민은 1,500여명이다. 그런데 선교사가 150여명, 가톨릭은 1곳, 불교는 2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97년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NGO의 이름으로 들어와 지하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작년에 3명이 다시 추방당했다.

불교는 정식으로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았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귀결시키는 개신교와는 달리 불교는 유화적인데다가, 고려인들이 불교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91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절이 섰을 때, 고려인 신문에 "드디어 이 땅에도 절따이(절땅, 절)가 들어왔다. 노란 옷을 입은 앉은 예수와 소리가 나는 나무로 기도를 한다. 우리는 부모들로부터 이어받은 종교이다. 크게 환영한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한국은 개신교 국가로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영국에서 발행하는 한국의 안내서 첫 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포교사를 돕자고 제안한다. 그 중에서도 중부아시아 지역에 나가 있는 해외 포교사업에 관심을 갖자. 이것은 비단 종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의 불자와 불교 단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당연히 총무원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예산이 없다는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포교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원동력이며, 희망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되어왔고 필요함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국제구호사업 적극 나서자 — 김동훈 JTS자원봉사자



인종, 국가, 민족, 종교, 계급,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려야할 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위해 행동하는데에 한국의 많은 종교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힘써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이웃사랑회'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원조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는 단체들이다. 이것은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던 국내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독교나 불교NGO들에 의한 사업들이 활발한 편이다. '우리는 선우'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이 주도하는 티베트지원이나 경불련의 네팔구호사업, JTS의 인도 천민구호사업 등이 그것이다.

종단의 규모에 비해 활발한 국제사업을 펴온 원불교의 경우 많은 수의 해외교당들이 건설되면서 복지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지원사업도 활발한 편이다.

해외원조사업에 있어 한국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는 99년에 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성과와는 달리 아직도 각 현지 사업장간의 네트워크나 정보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있으면서도 종교가 다르다거나 사전에 교류가 없어 상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열린마음·나눔 정신으로 '협력의 틀'을

계가 국제사업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여 매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장기적인 세계선교전략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해 한국불교계의 경우는 타종교에 비해 사회복지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해외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90년대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이나 수탁경영 등이 많아지게 되었고 각 종단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재단 등을 만들어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활동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포교와는 상관없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재가자 간의 네트워크나 정보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있으면서도 종교가 다르다거나 사전에 교류가 없어 상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국종교단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써 세계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종교계 내의 더 많은 자원들이 나눔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업의 주체들이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타종교 단체들의 장점을 취하고 서로 도와주는 협력의 틀을 만듦으로써 현지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장하다! 잘싸웠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우리선수들은 수신토종오가피를 먹고 있습니다.


국대태권 오기제 체육사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
그대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고 있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오가피 알고봤더니 '숲가피'
지난 98년 아시안게임때 국가대표 11개팀 68명의 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였습니다. 최하위로 전년시즌을 마감한 동양농구단이 우승을 차지할때도 수신토종오가피가 1년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수신토종오가피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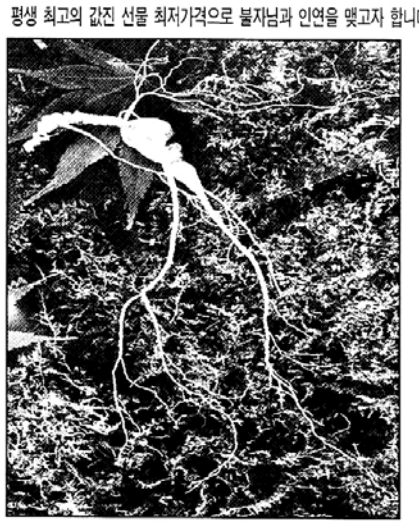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주문·문의전화 (02)447-004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랫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산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깨달음엔 남녀차별 없어요"



◇부처님 오신날 미국 관음선원 프라비던스 젠 센터에 모인 숭산스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제자들.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첫 번째 미국인 제자이자 관음선원(Kwan Um School of Zen, 원장 숭산) 부원장인 바바라 로드(Barbara Rhodes, 법명 성향).

미국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선 마스터(master)로 인가받은 여성 중의 한 명인 바바라 로드. 1972년부터 한국 조계종 관음선원의 설립자인 숭산 스님으로부터 참선을 배워 1977년 지도법사(Dhamma Teacher)로 인가를 받았다. 1992년 10월부터는 미

美여성 첫 선 마스터 바바라 로드 트라이시클誌 회견 내용 요약

국 관음선원의 부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플로리다, 시카고, 콜러라도, 코넥티쿠 등지의 선센터와 선모임의 지도법사를 겸임하고 있다. 그녀는 1969년부터 로드 아일런드(Rhode Island)의 가정과 병원 등에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를 펼치고 있는 간호사로서,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을 겸한 선 수행자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 계간지인 <트라이시클(Tricycle)> 여름호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중 주요 부분을 간추려 옮겨 싣는다.



숭산스님 첫번째 미국인 제자 ◇숭산스님의 첫번째 미국인 제자인 관음선원 부원장 바바라 로드.

무명 깨친 다음엔 남 돕는일 해야
병원서 하는 모든 일 수행으로 생각

◆당신의 스승인 숭산 선사께서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다니! 나는 화가 났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은 나의 '성별(性別)'이라는 정체성이었다. 여성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남성 역시 깨달을 수 없다는 말과 같았다. 즉 (보살이 性이 없듯이) 성별을 떠난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위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당신은, 자기 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머니, 간호사, 선사로서의 당신 삶이 다른 이들의 요청에 헌신한 것을 의미하는가?

숭산 선사는 제자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고만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고 강해질 것을 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책임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 선(禪)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이 누군가를 찾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진실로 무명을 깨쳤다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남을 돕는 것임이 명백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도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맹세를 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면, 새로운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하지?'라고. 우주는 매우 관대하다. 조금만 주의를 귀울여 듣는다면, 그 대답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고 사명감은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당신이 고른 직업과 사명은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의 일을 명석하게 자비심을 갖고 처리하라. 어디로 한 발 내딛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나아갈 수 없다.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며, 수행해야만 한다.

◆'나는 누구인가?'란 의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누구인가?'란 의문은 당신을 이 순간 진실로 이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화두 참구를 하는 것은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지혜가 개발될수록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은 당신이 어디로 다음 걸음을 떼어야 할 지 알게 한다. '나는 무엇인가?'란 화두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상태를 갖게 한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원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당신이 직면하는 그 무엇에서 배워야 한다.

◆당신의 스승은 "네가 지옥에서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살의 서원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 가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임종간호를 통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나의 능숙한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곳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지도하며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기꺼이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옥에서 중생들을 돕는 지장보살은 어느 곳이든 달려가 중생을 구제하라고 서원을 일깨운다. 그 서원에 따라 나의 파트너와 딸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할 때나 무엇을 하든 나는 수행으로 여긴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종말을 지켜본다. 그들이 눈을 감으며 "오,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시간은 어디로 가버린거야?"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도 못한 채 일생을 낭비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죽어가는 사실을 본다. 지금 즉시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수행 한번 해 본적 없이 죽어간다. 죽음이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나는 TV를 켜둔 채 죽어간 사람들도 본다. 그들은 전혀 이러한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끝날 때 의식이 명료해질 것이라고 영화를 통해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에너지는 급격히 약해지고 만다. 그들은 오직 생존하기 위해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욕창을 치료해 주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 시간은 이미 왔다가 가버렸기에.

◆30여년간의 수행중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는가?

"나는 엄청난 사랑과 동정심,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다. 숭산 선사께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 즉, 위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늘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수록 동정심도 커진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고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에, 보다 숙련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내가 알게 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만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
美서 8년간 2000여명 무료 진료

대만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불교사회복지단체인 자제공덕회(회주 증엄스님) 자원봉사자들이 미국 농촌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시술을 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고 '자제 저널'이 6월 29일 보도했다.

자제공덕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버나디노(San Bemardino) 마을에서 8년간 2000명에게 무료진료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자제공덕회 무료진료소의 200여 자원봉사자들은1년에 30회 이상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버스로 이동해 샌 버나디노 마을의 럭키 농장에서 의료봉사에 나섰다.

달라이라마 동·하계 궁전

中, 복원작업 착수

중국 당국은 6월 26일 망명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거처했던 2개의 궁전에 대한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이 수세기 동안 거처했던 라싸의 포탈라궁과 노블링카 궁전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는 총 4천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0. 아상가의 고행과 깨달음

4세기이후 인도불교는 나가르쥬나의 중관불교(中觀佛敎)가 개척한 연기무자성(緣起無自性), 공, 중도의 교리를 계승하여 인간의 심층심리에 관한 자각으로 눈을 돌렸고 번뇌의 미망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아서 그 성과를 체계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불교사상가들은 윤회와 해탈의 문제를 더욱 철저하게 해명하여 바로 아상가(Asanga 無着, 300-380), 바수반두(Vasubandha 世親, 320-400)에 의하여 유가행유식불교(瑜伽行唯識佛敎)를 형성하게 된다. 대승불교교학의 두 기둥은 바로 나가르쥬나의 중관불교와 아상가의 유식불교인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부톤(Bu-Ston, 1290-1364)과 타라나타(Taranatha, 1575-1615)의 인도불교사가 전하는 아상가의 고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한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상가에 의해서 완성된 유식불교는 외계의 제법이 자기의 마음이 실재한다는 우리의 집착을 자아의 심층에서부터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메마른 교리나 공허한 언어의 유희가 아닌 치열한 고행과 선정을 통해서 증득된 것임을 아상가는 보여준다.

개 썩은 상처 우굴대는 벌레
다칠세라 혀로 옮겨 놓자
홀연 찬란한 미륵보살이…

유식불교의 성자, 아상가는 간다라지방의 푸루샤푸라, 지금의 파키스탄 페샤와르지역의 바라문가에서 태어났다. 아상가는 처음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출가하여 소승경전에 정통하였으나 "흙가루를 아무리 정교하게 빚어도 결국 흙가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미륵보살을 친견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기를 서원한다. 아상가는 이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안락한 사원을 떠나 쿠쿠타파다산속의 한 동굴에 은둔하여 삼년동안 온 힘을 다하여 선정을 닦고 기도를 올렸으나 아무런 응답도 얻을 수 없었다. 절망한 아상가가 굴 밖으로 산길을 방황할 때 새들의 날개가 스치고 스쳐 움푹 패인 바위가 보였다. 아상가는 "나에게는 새들의 저런 열성조차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 수행을 시작했다. 또 삼년이 지났으나 아무런 계시도 얻지못한 아상가는 동굴을 뛰쳐나오다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은 것을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또 다시 삼년이 지났으나 그의 기도와 선정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망연자실하여 동굴을 나온 아상가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숫돌에 쇳덩어리를 갈면서 말했다. "젊은 수행자여, 나는 이렇게 세월을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있소." 노인은 이미 만든 바늘들을 보여주었다. 바늘노인을 만난 아상가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다시 삼년. 메아리는 없었다. 절망과 분노를 느낀 아상가는 아예 수행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먼길을 떠났다.

어느 마을 입구에 한 마리 개가 보였다. 개의 하반신은 벌레가 우글거렸다. 아상가는 자비심에 가득차서 생각했다. "저 벌레들을 떼어버려야 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벌레들은 죽고 말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개가 죽고 말리라" 아상가는 아찐다라는 촌락으로 가서 그의 승복을 맡기고 칼 한자루를 빌린 다음 자기 몸에서 살을 베어내어 벌레들을 유인해냈다. 그리고 벌레들을 손으로 집어 자신이 베어낸 살덩어리로 옮기면 벌레들에게 고통을 주리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아상가는 자신의 혓바닥으로 벌레들을 옮겨 자신의 살덩어리로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개는 사라지고 휘황한 빛살 속에 미륵보살이 앉아 있었다. 아상가는 벅찬 감격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찬탄의 노래를 불렀다.

미륵보살이 말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었으나 그대는 자신의 사념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의 수행과 자비심의 완성을 고하노라." 아상가는 미륵보살의 인도로 도솔천에서 불교의 궁극적인 비의(秘儀)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취하였다. 그는 이후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문자로 체계화하여 〈대승아비달마논집〉, 〈현양성교론〉, 〈섭대승론〉등과 같은 자신의 거대한 저작과 헌신적인 종교활동을 통해 대승불교사상의 가장 탁월한 스승이자 사상가로 존경받게 된다.

▩경학회 회주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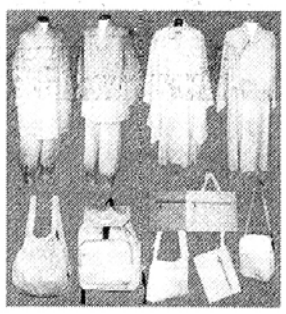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명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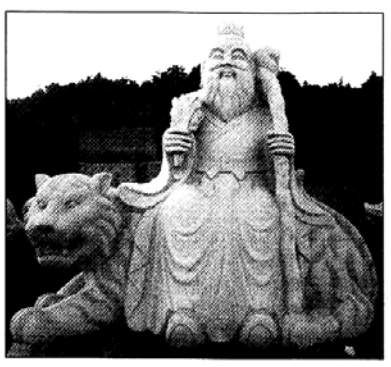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법보종찰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5일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세민 스님(해인사 주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연건평 1082평으로 국내 성보박물관 중 최대 규모인 해인사 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회화 전문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이나 스님들의 유품이 주가 되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처럼, 해인사 박물관도 '법보 종찰' 이라는 사찰 특색을 살려 대장경판 전시, 백남준 고려대장경 비디오 아트 상영, 인행체험실(印行體驗室) 등을 운영, 서지학 전문박물관으로 특화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전경.



◇개관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법문을 하고있다.

해인사 박물관 개관…화엄성보 한눈에

건물 곡선화…주변과 조화

해인사는 1488년 현재의 웅진전 자리에 해해당을 짓고 역대 고승의 영탱을 봉안한 것이 그동안 박물관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1995년 2월 11일 산중회의에서 현재 위치로 박물관 건립부지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박물관 건립에 들어갔다.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박물관이 건립된 것에는 자운, 성철 스님의 의지가 담겨있다. 원택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에 따르면 두 스님이 '해인사는 수행공간으로 하고 옛 초등학교 자리는 신행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는 뜻을 피력, 전 주지인 지관, 보광 스님과 현 주지 세민 스님이 차례로 불사를 추진해 왔다.

박물관은 해인사 신 불교문화단지의 한 부분이다. 1980년에 결정된 불교문화단지는 사찰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관광마을을 큰 절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됐다. 불교문화단지가 완성되면 해인사로 수련이나 참배를 온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러 희귀 성보를 참배하고, 역사를 배우며, 인경을 실제 체험하면서 불자로서의 뿌듯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유물 250점 일반에

해인사 박물관은 앞마당을 한국의 전통마당처럼 하고, 건물 높이도 위압감에서 벗어나도록 완만한 곡선과 평면성을 강조했다. 외관은 재료본래의 색채를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위의 환경과 친화되도록 했으며, 유물관 2층은 원형 돔을 형성하여 바깥의 가야산 자락과 유연하게 어울리는 유기적인 내부공간을 창출하려 했다. 건축가 김석철 교수(명지대)는 '21세기의 건축모형과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고찰인 해인사의 모습과 어우러져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했다' 고 토로했다.


◇해인사 일주문앞에 있는 길상탑 발견 소탑들.

◇전국 성보박물관 · 유물전시관

양산 통도사	055)382-1001
예산 수덕사	041)337-1969
해남 대둔사	061)534-5502
평창 월정사	033)331-6661
김제 금산사	063)548-7844
대구 동화사	053)985-4404
고성 옥천사	055)672-0100
순천 선암사	061)754-6062
영암 도갑사	061)472-0521
순천 송광사	061)755-0107
김천 직지사	054)436-6174
밀양 표충사	055)352-1150
영주 부석사	054)633-3464
보은 법주사	043)543-3615

해인사는 오랜 전통의 고찰답게 1천여 점의 소중한 성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50점이 일반에 공개된다.

1층 성보유물전시실 중 역사실에는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판, 국보 제206호 고려각판과 김정희 필 해인사중건상량문을 비롯한 해인사 관련 역사유물과 보물 제1273호 영산회상도를 봉안, 해인사의 역사와 변천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조각실은 보물 제999호인 목조희랑조사상(木造希朗祖師像), 목조 제석천상 등이 전시돼 있고, 불화실은 팔상도 병풍을 비롯한 조사도, 심우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공예실에는 보물 제1253호 해인사 대적광전 '홍치4년(弘治四年)' 명 동종을 비롯한 공예품이, 서화실에는 세조 진영(世祖 眞影), 어필(御筆), 대통령 친필 등 해인사와 관련된 서화가 전시된다.

이 가운데 특히 목조희랑조사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스님의 목조 초상 조각이다. 신라 말 고려 초, 화엄종의 고승이었던 희랑스님(889~956)이 수행했던 10세기 중엽에 조성된 걸로 추정되는 이 조사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초상기법이나 불상양식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추사 김정희가 직접 쓴 해인사중건상량문은 1818년에 추사가 감색 비단에 금니로 쓴 해서체의 글로 '완당집' 에 실려 있는 것의 원본이다.


◇보물 제999호 목조희랑조사상. 10세기 중엽 조성. 전래된 것으론 유일한 스님의 목조초상조각이다.


◇해인사를 개산한 순응 스님의 진영.


◇조선 순조 18년(1818)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추사 김정희 필 대웅전 상량문.


◇도제나한상. 진영각(옛 선열당)에 있던 것으로 각 얼굴이 매우 개성적이다.

'희랑조사상' 살아있는 듯 생생

이 밖에도 조선 초 1491년에 제작된 홍치4년명 동종은 대적광전의 의식에 사용되는 종으로써, 형태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종신에는 명문이 있어 그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신라 진성여왕 때 세정의 혼란기를 틈타 전국 각처에서 봉기한 도적의 무리들이 해인사를 침범하자 이에 맞서 사보를 수호하다 사망한 56명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길상탑 발견 소탑 및 탑지도 전시된다. 이는 1966년 여름, 석탑 내부의 유물을 절취한 전문 도굴범들이 검거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소탑 70기, 탑지 2매, 탁본 2매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해 9월 30일까지 전시한다.

한편 2층에는 백남준의 고려대장경 비디오 아트를 상영해 시각적 효과에 익숙한 청소년층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목판 대장경 인행체험실에는 화엄경변상도, 법화경 등의 원판을 모방한 판에 직접 먹을 발라 찍어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마련한다. ☎055)934-0988

해인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서지학 전문박물관' 특화

해인사 박물관장 향적스님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봉안되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목판과 서지학적인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경판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적 스님은 해인사 박물관을 서지학 전문박물관으로 특화시키려는 목적 외에도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박물관의 역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활동입니다. 사회를 교화하고 교육을 담당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야말로 교화와 교육 모두를 담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박물관을 통해 종교와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불교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간 5억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복안도 귀띔한다.

"입장료와 박물관 옆 부속건물에 매표소 겸 휴게실, 전통 찻집, 사찰음식 식당을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경비는 일단 사찰에서 지원받고 박물관 근처에 종합불교수련원과 만불전 등을 조성, 자급자족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기획전시실을 비롯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다. 스님은, 미비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완해 한층 내실 있고 모범이 되는 성보박물관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수련원·만불전등 조성

"한국불교 이해하는 교육장소"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는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㉝ 안락행품 제14

섭수와 절복

첫번째 안락행인 신안락(身安樂), 즉 보살의 몸가짐에서는 어떤 일에도 참고 견디며, 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가까이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좌선(坐禪)에 정진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제13장 '권지품'과 비교하면 매우 소극적인 처신이라는 느낌이 든다. '권지품'에서는 "내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다만 위 없는 깨달음만 아낀다(我不愛身命但惜無上道)"고 하며 인욕의 갑옷을 입고 〈법화경〉을 넓히는데 매진하는,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설해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결연한 모습은 없다. 이것은 다음의 구안락행(口安樂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천태는 "이 네 가지 안락행은 초심의 얕은 행을 하는 보살을 위해 설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삼론종의 길장(吉藏)도 똑같다. 즉 "초심의 보살이란 사실 사바세계에서 이 〈법화경〉을 전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국토에서 〈법화경〉의 홍통을 지원한 5백의 아라한, 8천의 성문들을 말한다. 〈법화경〉에 의해서 보살이 된 이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 위대한 보살로서의 힘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람들에게 사바세계에서의 경전 홍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설한 것이게 설하라는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 네번째의 안락행을 천태는 서원안락행(誓願安樂行)이라 이름한다. 그것은 홍통자에게 〈법화경〉에 의한 중생 제도의 서원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은 출·재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법화경〉 속으로 이끌어들이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설한다. 이상의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가 4안락행이다. 〈법화경〉은 "말법시대에 이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은 이 네 가지의 몸과 마음가짐, 즉 마음을 닦음에 의해 그 설법에 과실이 없어, 출가수행자나 재가의 국왕을 비롯하여 브라흐만·거사 등 온갖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찬탄을 받는다. 만일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천신들이 밤낮으로 항상 그를 지켜 줄 것이다"라고 설한다. 천태지의대사의 스승인 남악혜사(南嶽慧思: 515~577) 스님은 중국 남북조 말기에 강학(講學)불교로 변화한 당시의 불교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불교를 강하게 제창하였으니 그 때문에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의

혜사스님, 4안락행 수행 규범으로

日蓮 스님 "몸과 마음 '空'에 두라"

바로 안락행이다"라고 〈법화의소(法華義疏)〉 권10에서 말하고 있다.

두번째의 안락행이란, 천태가 구안락행(口安樂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름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언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홍통자가 〈법화경〉을 남에게 설하거나 경을 읽어줄 때에는 사람이나 경전에 대해 그 허물을 지적하거나, 다른 법사를 경멸하지 말며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얼굴로 설하라,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대승으로써 답하라 등과 같이 말이나 태도에 대해 설하고 있다. 세번째의 안락행은 몸(身)·입(口)에 이어서 의안락행(意安樂行)이라 부른다. 이것은 주로 홍통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한 것으로서 타인에 대해 질투, 거짓말, 아첨, 경멸 등의 마음을 품지 말며 다른 수행자의 장단점을 거론치 말라, 희론(戱論)으로써 남과 다투지 말라고 설한다. 그리고 홍통자는 모든 사람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부처님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慈父)라는 생각을, 보살에 대해서는 큰 스승(大師)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한다. 이와 함께 법을 설할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을 편애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그는 〈법화경〉을 보살의 실천 수행을 설한 경전으로 보고 특히 '안락행품'을 그 실천 불교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의 저서 〈법화경안락행의(法華經安樂行義)〉는 법화삼매(法華三昧)라는 〈법화경〉에 의거한 제법실상을 관(觀)하는 삼매행(三昧行)을 설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 그는 4안락행을 보살 수행의 규범으로 파악하고 이를 무상행(無相行)이라 이름했다. '무상행'이란, 항상 좌선을 행하고 일체법공(一切法空)의 입장에서 몸을 두게 하는 수행을 말한다. 그는 이 4안락행에 의거하면서 다시 독자적인 해석을 하여 적극적인 절복(折伏)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이 혜사 스님의 '법화삼매'는 제자인 지의 스님에게 이어져 그의 저서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에서는 이 4안락행이 그 행법으로서 채용되었다. 일본의 니찌렌(日蓮)은 이 14장의 4안락행을 절복, 즉 강제적으로 인도하는 행법이 아니라 섭수, 즉 온화한 태도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말법의 악한 세상에서 널리 유통케 하는 것은 섭수가 아니라 절복역화(折伏逆化)에 있다"고 하여 섭수를 부정한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산을 보며 잠시 놓았던 정신을 붙잡았을 때 금산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고 계셨다.

"작년에 요 아래 밭을 차밭으로 만들어 씨를 뿌렸더니 차씨가 나왔지. 아마 4~5년쯤 뒤에는 차를 딸 수 있을게야. 무안군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심었어요. 농촌지도소 다니면서 거름이랑 씨를 타오고, 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아예 이곳 몽탄면 사람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해서 기계화를 할 생각이야. 사찰도 자립해야지, 신도들에게 언제까지 손을 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차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스님 뒤로 스님이 직접 쓰신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차' 하면 떠오르는 초의선사.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음일까.

"초의선사와 백파선사가 벌인 선 논쟁은 유명하지. 백파선사의 〈선문수경(禪門手經)〉이 단칼로 치는 힘이 있다면, 초의선사의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는 모난 것을 부드럽게 다듬는 미덕이 있어요. 두 선사의 제자들까지도 1세기에 걸쳐 서로 논쟁을 벌였으니, 참으로 대단하지. 논쟁이라는 것은 흔히 분열을 의미하지만, 두 선사의 논쟁은 서로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지. 그런데 그 이후 무계무율(無戒無律)의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막행막식으로 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 한 순간이라도 놓치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선인데…."

스님을 뵙자마자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고 여쭈었을 때 "그냥 살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 스쳤다. 뜻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 선사들의 삶이야 그냥 살아도, 그게 어디 그냥 사는 것이던가.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달리 여쭐 길이 없었다.

"그래, 어디 요즘 즐거우신가?"

드디어 선문답이다. 큰스님들을 만나 뵈올 때마다 수미산처럼 다가왔던 알 수 없는 물음.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나. 그냥 즐겁게 사느냐고 물었는데…."

빙그레 웃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냥 즐기시게. 나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는 것을 그냥 즐기시게. 사람은 저 하기 좋은 일을 찾게 마련이거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으면서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성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걸 즐기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성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행복해야지. 그래야 공부도 더 잘 되는 것이예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상삼매(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하게 되면 일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삼매'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한 눈을 팔지 않고 온 사력을 다해 집중하면서 쥐구멍을 노리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한다면 쥐 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일상삼매란 바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일행삼매'는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오랫동안 알을 품고 있어야 하지, 때가 되면 알이 부화하듯이, 모든 일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즐거움이지."

우리의 삶·생활이 모두 禪

응용하면 즐겁고 편하게 돼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견성성불이다. 하지만 부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마저 놓아야만 가능한 일, 그것을 어찌 즐길 수 있다는 것일까.

"결과에 매달리면 그것은 벌써 실패한 것이야. 집착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무심(無心)해야 얻을 수 있어요. '무심'이란 무념무상과도 같은 말이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심'입니다. 무심해지면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즐길 줄 알아야해요. 선에 세간이 어디 있고, 출세간이 어디 있어, 세간에서도 무심을 얻으면 출세간이요, 출세간이라도 무심을 얻지 못하면 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선이고 공부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 삶과 생활에 선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선을 응용하면 그만큼 즐겁고 편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선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이 늘고 있는 요즘, 그런 불자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청했다.

"우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계율을 무시하고서 선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지. 재가자들에게는 '별시(別示)수행'이 가장 좋아요. 별시수행이란 대중수행을 말하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여럿이 함께 모여 수행을 하면서 계율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이 곧 선지식이

"무심경계서 일 즐기는



◇금산스님은 일상(日常)에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요체라고 강조하셨다. 생활과 선의 경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스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
"오랫동안 수행에 몰두해 오
"그냥 살고 있어."

노스님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예로부터 명산으로 불렸던 승
승 원명(圓明)이 소 한 마리가
이왔더니 실제로 산길에 소 발
했으며, 그의 제자 5백명도 따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평생 수행에만 몰두해온 금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다. 승
3Km 정도. 그리 가파른 길은 아



가까이

금산스

금산스님은?

늘 미소띤 얼굴에 온화하고 부
운 말투와 친절함으로 신도들에게
기가 높다. 하지만 공부하는 수좌들
게는 한여름에도 서릿발이 내릴 정
로 냉정하고 엄하다.

이곳에서 2년째 스님을 모시며 공

오는 사람 막지않

하고 있는 증보스님은 "조금이라도
부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
저만 호되게 야단치시는게 아니다
"수행을 오래하신 분답게 공부를 시
시는데는 한 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
다"고 말했다.

목우암이 위치한 이곳 몽탄면에
도 금산스님은 공부를 많이하고, 엄

불교성지순례전문

(주)대승항공여행사 ☎02)730-0202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 빌딩 4층
국외여행업 제21-448호 / 국내여행업 제21-138호

중국 불교 성지 기획행사

※지장도량 구화산/황산/남경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남경 — 구화산(육신보전, 백세궁, 천대 화성사, 저원사 등) — 황산 — 황산비경 — 남경 — 인천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족/중경/성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중경 — 대족(보정산석굴, 북산석굴 등)— 낙산(낙산대불, 대불사 등) — 아미산(금정, 보국사, 복호사, 만년사 등) — 성도 — 인천

※관음도량 보타낙가산/항주/영파/상해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항주(영은사, 서호유람 등) — 영파(아육왕사, 천동사 등) — 보타산(보제사, 법우사, 조음동, 혜제사 등) — 낙가산(백팔나한탑 등) — 상해(임시정부청사, 옥불사 등) — 인천

※문수도량 오대산/대동/태원/북경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북경 — 대동(운강석굴 등) — 혼원(현공사) — 오대산(북대, 중대, 대라정사, 현통사, 탑원사 등) — 태원 — 북경 — 인천

불교 성지순례

인도 8대성지 10일
▶주요순례지 : 델리—녹야원—부다가야—왕사성—열반당—룸비니—카투만두—인천

인도 8대성지/네팔 13일
▶주요순례지 : 몸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아그라—불교성지—포카라—카투만두

미얀마 6일
▶주요순례지 : 양곤(쉐다곤, 까바에 등)—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

미얀마 7일
▶주요순례지 : 양곤(쉐다곤, 까바에 등)—파간—만달레이—민군—혜호—양곤—인천

스리랑카 6일
▶주요순례지 : 인천—콜롬보—플론나루와—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캔디—인천

인도네시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루부드로 사원 등)—발리—인천

캄보디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호치민—앙코르지역(앙코르왓, 앙코르톰, 톤레삽 등)—호치민—인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주요순례지 :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2)—인천

민족의 영산 백두산 6일
▶주요순례지 :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3)—인천

비단길(실크로드) 8일
▶주요순례지 : 인천—서안—돈황(막고굴 등)—유원—투루판(천불동, 고창고성 등)—우루무치

구채구/황룡/성도 7일
▶주요순례지 : 인천—성도(문수원 등)—황룡—구채구—성도—대족—중경—인천

계림/장가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계림(이강유람, 관암동굴 등) — 장가계(천자산, 십리화랑 등) — 광주 — 인천

티벳/성도/낙산 8일
▶주요순례지 : 인천—성도—라싸—시가체—장체—라싸(포탈람궁 등)—성도—낙산—인천

대만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타이페이—대중불광사—화련—타이페이—인천

세계 문화탐방

중국 운남성 5일
▶주요순례지 :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곤명(원통사, 곤명호, 민속촌 등)

중국 운남성/대리/여강 8일
▶주요순례지 :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대리—여강—곤명(곤명호, 민속촌)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일
▶주요순례지 : 인천—오사카(오사카성 등)—교토—나라—벳부(온천)—인천

일본 핵심일주 5일
▶주요순례지 : 오사카—교토—신간선—하코네온천 동경—닛코—후쿠시마 또는 니가타—인천

일본 북해도 4일
▶주요순례지 : 인천—치토세—오타루—죠잔케이—삿뽀르—도야—노보리벳츠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하노이—하롱베이—땀꼽—하노이—인천

남부 베트남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호치민—메콩델타 구찌—붕타우—호치민—인천

유럽4개국 8일(영/프/스/이)
▶주요순례지 : 인천—로마—피렌체—베니스—밀라노—제네바—파리—인천

지중해 3개국+룩소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카이로—아테네—이스탄불—카이로—룩소—카이로—인천

동유럽+서유럽 완전일주 15일
▶주요순례지 : 인천—프랑크푸르트—프라하—비엔나—팔스부르그—로마—피사—밀라노—파리—런던—인천

미동부+캐나다 퀘백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오타와—몬트리오—퀘백—브리지포트—뉴욕—인천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시드니—크라이스처치—퀸스타운—오클랜드—로토루와—인천

캐나다 동서부 항공일주 8일
▶주요순례지 : 인천—벤쿠버—빅토리아—캘거리 밴프—나이아가라—토론토—인천

중남미 5개국 17일
▶주요순례지 : 인천—멕시코시티—리오데자네이로 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리마—꾸스코—인천

여행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상호와 가격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십니까?

"정성이 듬뿍 깃든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것이 최선의 '선' 공부"

…졸리면 자고 그러지"
…요즘도…."

…. 법당 둘레가 온통 산이다.
…華山). 고려시대 원나라 비구
…이곳에 이르는 꿈을 꾼 뒤 찾
…나 있어 암자를 짓고 수행을
…다 옆에 법천사를 짓고 수행

… 계신다는 목우암(牧牛庵)에
…에서 목우암에 이르기까지는
…만 다소 멀게 느껴졌다.

큰스님

… (목우암 주석)



◇일의 과정을 즐기라는 금산스님. 스님은 성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공부시키는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을 잡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의 가까운 지인이라도 "오셨는가" "가시는가"가 전부라고 한다.

1928년생인 스님은 56년 월정사에…출가해 지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31안거

…사람 막지도 않아

…성만했다. 63년 월출산 도갑사 주 …64년 조계종 감찰원 감찰부장을 …임한 뒤 67년 지리산 화엄사 주지, …년 동리산 태안사 금강선원장, 91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을 지내 … 이후 이곳 목우암에서 11년째 주 …해왔다.

…등의 힘으로 정진하다보면 올바른 수 …관을 체득할 수 있게 되지. 요즘에 …선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으로 바람직한 일이야."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비구 …스님이 삶은 감자를 내왔다. 문득 감 …를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하던 시절, 감자로 끼니를 때웠던 …아버지 세대의 고충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감자마저도 없어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 금산스님도 그랬다.

"한참 공부할 때 하루 한 끼로 살았지. 양식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탁발을 해서 저장해 놓고 아껴 먹으면서 한 철을 나곤 했으니까. 김치가 없어서 소금으로 반찬을 대신한 적도 많았지. 하지만 한 철 나고 나면 얼굴에 뼈만 남았을망정 무엇인가 얻었다는 느낌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계율무시 선수행 잘못된 것
재가자는 대중수행 알맞아

금산스님은 흰 눈썹만 아니라면 75세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살 하나 없는 건강한 얼굴이다. 91년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으로 계시다가 문득 이곳을 찾아오셨다는 스님. 그냥 산이 좋아 오셨다고 하셨다.

스님이 계신 방 창문 너머로 '보임선방'이라는 굵은 글씨의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재가자들이 선수행을 하는 곳이란다. 어디서 온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수행을 한다면 누구든 자리를 틀고 앉을 수 있다는 이곳. 하지만 스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단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신다.

"마음을 열어야 해. 스스로 열지 않고 무엇이 열리길 바래.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그 마음을 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지. 화두를 들든, 염불을 하든 자기를 봐야지. 그래야 마음이 열리지. '반문문자심 심성무상도(反問問自心 心成無尙道)'라 했어. '안으로 돌이켜 내 마음에게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그 마음이 더할 나위없는 큰 도를 이룬다'는 뜻이지. 스스로 묻고 또 묻는 그 마음이 곧 불성이요,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불성을 찾는 일이지요."

스님은 매주 첫째, 셋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참선법회에서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법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청하는 재가불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선에는 화두를 드는 선도 있고, 염불하는 선도 있고, 묵조하는 선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 일이지. 평생 관세음보살만 외던 사람에게 화두를 들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야. 지적(知的)인 사람에게는 화두를 드는 선이 좋고,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묵조선이 적합해. 화두 없이 그냥 앉아서 자기를 비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염불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서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테고. 염불이 무슨 선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마음이 부처라' 생각하면서 염불을 한다면 그것도 선이지. 선이라는 것이 내 안의 부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된다는 생각은 옳지 못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과 선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지. 무심하게 일의 과정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선공부가 또 어디 있겠나."

승돌이와 승이가 꼬리를 흔들어 댄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컹컹 짖어대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녀석들이 이제는 제법 친한척을 한다.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 앞마당에 석등 하나가 머리에 파란 이끼를 두른 채 지나온 세월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다. 대나무 울타리에 법당과 축성각, 요사채가 전부인 목우암. 그래도 금산스님은 이곳처럼 훌륭한 절도 없다고 하신다.

"8년간 전쟁 끝에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순치황제가 2년간 통치를 하다 출가하고 나서 한 말이 있지. '평생 산 것이 스님이 돼서 반나절 산 것만 못하다'고 말야. 죽으면 모두 뎃없고 부질없는 것을 왜 그리 욕심을 부리고 다투는지…."

어느 학자는 한국불교가 선에 매몰돼 하화중생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길은 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법.

'누가 묻지 않으니 답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일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화중생인 것을.'

금산스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옷매무새, 가지런히 놓여 있는 고무신. 우리네 그것을 떠올려보니 문득 부끄러움이 앞선다. 온종일 바람과 새들만 들락거리는 무심한 하루. 아무리 조주선사의 차 맛이 좋다고 해도 목우암의 하루만 할까. 지혜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 승달산의 경치를 묻거든 흰 눈썹 성성한 올곧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말하리라.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우스님

부처님의 설법을 수기설법(隨機說法),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각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설하셨고 중생들의 뭇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 교학에서 이런 근기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스님들에게도 이 용어를 적용시키고 있다. 중생들 삶의 방식이 다양하듯, 스님들 수행 방식에도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옛부터 불가에는 상근기가 선방에서 수행정진하고, 중근기가 경전공부 통해 강의를 하며, 하근기는 가람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보기에 말 그대로 상근기 중 상근기가 바로 지우스님인것 같다. 한마디로 지우 스님은 참 열심히 산다. 선방수좌로 화두를 챙기는 일은 물론, 화문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절을 수호하는 데에도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 스님은 운문강원에서는 선배로, 대학원에서는 후배로 인연이 맺어졌다. 스님은 강원을 졸업한 뒤 7~8년간을 선방수좌로 오로지 화두챙기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교학에 대한 갈증과 참선하는 데 대한 정립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런 목마른 갈증을 해소코자 중앙승가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 후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갔다. 스님은 주위에서 '선객으로 남아 있지 무슨 세속공부냐'고 염려스런 충고도 들었다고 한다.



스님은 이에 대한 답변처럼 내게 자주 "대학공부를 한 것에 후회는 없다. 학업의 길에 들어본인이 책임지고 학비를 마련해야 하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의식주 짐까지 떠맡다보니 수행이 아니라 삶의 고달픔도 함께 배웠으며, 중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되어 도리어 수행이나 포교에 도움이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교(敎)를 하다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선(禪)이라 하고 말씀을 교(敎)라 한다면, 수행자는 선교일여(禪敎一如)한 수행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열반경〉 성행품에 '흑암녀 공덕천 이야기'가 나온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에 수반한 좋지 않은 일이 꼭 생긴다는 것이다. 한평생 승려로서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구도자의 투철한 일념의 바퀴에도 가끔 핑크가 난다. 병고이다.

자비문중을 표방하지만 불가에서 병든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거나 보살피는 곳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그럼에도 근 25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청정승단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은 역대 스님들의 수행에서 나온 힘이 아닌가 싶다. 주위의 병든 스님네들에게서 한결같이 "옛 조사스님들이 수행자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병고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치유하는 약으로 삼고 수행방편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도 불문에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지만 육신의 병고를 겪는 스님들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 지우스님은 바로 수많은 병고를 겪어온 스님이다.

급성폐렴, 갑상선, 자궁수술, 발목부상 등 참으로 가지가지로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무리 수행자지만, 회의감이 없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참 꿋꿋하다. 몇 년전 대수술을 받은 두어달 뒤, 대학원 수업에 임했으니 말이다. 스님은 병고를 치르면서 힘이 부칠 때는 "이것이 업장소멸하는 길이며 육신의 고(苦)를 인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병마라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순리이거니, 수행자는 아픔이 클수록 깨달음의 깊이도 깊을 것이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아픔을 통해 성숙된 수행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병고를 치른 지우스님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도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다.

참선·교학공부 모두 열심
"많은 병고 인욕으로 승화"

선방에서든 학교에서든 포교를 하든간에 어느 위치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것, 그저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 열반의 언덕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가 상근기지, 참선만이 상근기요, 포교가 하근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한 상근기는 자신이 상근기라는 것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일 것이다.

지우스님은 매사에 열심이다보니 노래실력도 대단하다. 원래 스님은 음치도 보통 음치가 아니었다. 헤비급 수준의 음치인데도 본인은 상당히 노래를 잘한다고 여긴다. 대학원에서 학기마다 답사를 가면 꾀꼬리같은 목소리라고 자부하면서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를 끊임없이 흥얼댄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하다.

스님은 현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내원사에서 하안거 한철 공양주소임을 자청하였다. 결제에 들어가기 전 이런 말을 했다. "스님들도 부지런히 복을 쌓아야 해요. 복은 쌓지 않고 지혜만 추구하면 매사에 장애가 옵니다. 이번 철, 한소식 할 만큼 열심히 정진하고 싶어요."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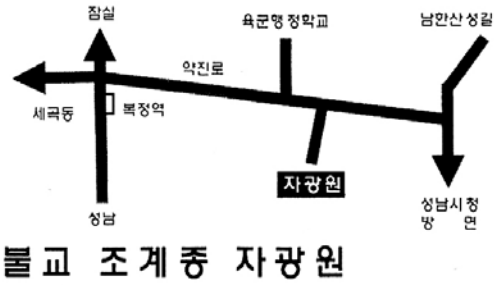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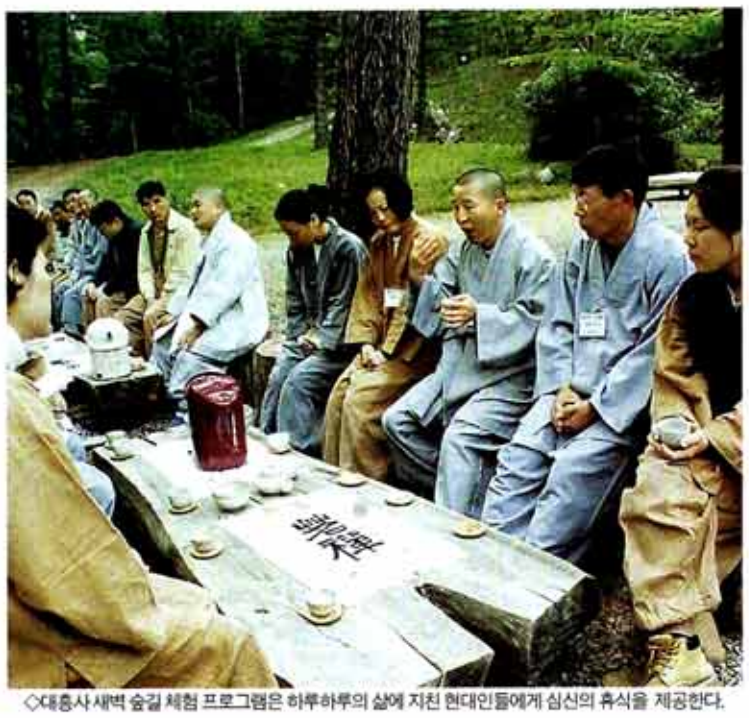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휴가철이 다가왔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쉬는 산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 속의 온갖 번뇌와 무더위를 한꺼번에 떨쳐보자. 권역별로 가볼만한 사찰을 소개한다.



풍경소리 벗 삼으니 번뇌·무더위 '비켜나네'

다가온 여름휴가…권역별 휴양 사찰 안내



◇대흥사 새벽 숲길 체험 프로그램은 하루하루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한다.

서해안권

전등사 경내 죽림다원 다도 지도
8월 2~3일 인취사 '백련시사' 개최

강화 전등사(032-937-0125)는 사찰을 찾는 이들을 위해 경내 죽림다원에서 다도(茶道)실습을 지도한다. 또 사찰서 제공해 주는 차로 인근 서해안 갯벌탐사와 환경 강의도 들을 수 있다(10인 이상). 강화 앞바다의 자그마한 섬인 석모도에 자리잡은 보문사(032-933-8271)는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에 회정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다. 눈썹바위 밑 마애석불좌상과 어부들이 건져올렸다는 전설로 유명한 22석불이 봉안된 석굴사원에는 기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간월도에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수행처 였던 간월암(041-662-2723)이 있다. 입구에 두 개의 호수와 서산 목장이 좌우로 펼쳐져 아름다움을 더하는 서산 개심사(041-688-2256)도 마음을 쉬고 오기에 좋은 곳이다. 일주문 앞 연못에 놓여 있는 외나무다리를 건너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길목도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 줄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 간월암은 철새들의 낙원으로도 유명하다. 연꽃으로 유명한 아산 인취사(041-542-6441)는 8월 2~3일 제9회 백련시사(白蓮詩社)'를 연다. 가족이 함께 백일장, 연차(蓮茶)시음회, 연꽃사진전시회 등을 둘러보고, 불교의 꽃이라는 연꽃의 아름다움도 다시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절

남해안권

첫째·셋째 금요일 '대흥사 새벽숲길'
미황사서 염불…백련사서 삼림욕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가장 끝에 위치한 미황사(061-533-3521)는 일몰이 장관이다. 8월 5일~7일 염불만일회 성지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참가신청: 02-732-1209). 또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림이 울창한 강진 백련사(061-432-0837)는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남해 바다를 박차고 떠오르는 일출이 멋진 여수 돌산의 기도도량 향일암(061-644-4742)과 남해 금산에 자리한 관음도량 보리암(055-862-6115)은 남해의 풍광을 감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권해줄 만하다. 보리암 인근에 있는 지장도량 용문사(055-862-4425)도 고찰의 풍모가 느껴지는 기도도량이다.

이밖에 불상과 불탑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해남 대흥사(061-534-5502)에서는 '새벽숲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찰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 규칙과 일정만 함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좌선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2월까지 매월 첫째 · 셋째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2박3일간 열린다. 인터넷(www.daedunsa.org)으로 신청 가능하다.

동해안권

8월 3일부터 백담사 '만해축전'
신흥사…설악 품에서 탁본실습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백담사(033-462-3224)에서는 8월3일부터 6일까지 만해 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4회 만해축전'을 연다. 만해상 시상식을 비롯해 전국시조시인대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만해축전 시인학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신경림, 이근배씨 등 유명 작가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만해축전 시인학교'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 속초 신흥사(033-636-7393)도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하다. 설악산의 수려한 풍광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요, 다도, 경판 · 기와 무늬 탁본 실습도 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동양최대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회암도량 양양 낙산사(033-672-2448)도 동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승지다.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홍련암에 들러 파도소리를 벗삼아 기도도 올려보자. 이밖에 남쪽 해안선을 따라 강릉으로 내려가면 대웅전에서 내려다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낙가사(033-644-5337), 신라 낭원국사 보현이 창건한 고찰 강릉 보현사(033-648-9431)도 가볼만하다.

중부내륙

인각사 일연문화제…시낭송 · 백일장
1400년 고찰 보경사 인근 시원한 호수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했던 경북 군위 인각사(054-383-1161)에서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2회 일연 문화제'가 열린다. 청소년 백일장과 학술대회, 시낭송회, 추모다례제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삼국유사와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도 스님이 눌지왕 2년에 신라 최초로 창건한 절로 신라 불교의 발상지인 선산 도리사(054-454-3737)에는 높이 1.3m의 석종형부도 세존사리탑이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탑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사자 머리 등을 새긴 솜씨가 일품이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시원지인 영천 거조암(054-335-1369)은 영험있는 오백나한으로도 유명하며, 12폭포와 내연산의 절경 속에 자리한 포항 보경사(054-262-1117)는 신라 진평왕 때 진나라에서 유학한 지명법사가 세운 1400년된 고찰로 인근에 넓은 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피서' 목적만으로도 가볼만한 절이다.

이은자 · 김주일 기자 ej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월드컵이 끝나자 태풍과 장마가 몰려온다. 6월 한 달 월드컵 축제에 들떠있는 동안 계절의 변화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비바람을 맞고 보니 여름의 습격을 받은 느낌이다. 이럴 때,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는 선지식의 행장을 읽어보는 것이 제격이다. 조선조의 큰스님 서산대사가 노수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력을 써준 편지인 「삼몽록(三夢錄)」과 함께 시를 읽다가 「가는 봄이 애석함(惜春)」이란 대목에서 눈길이 멈췄다. 계절적인 봄과 인생의 봄과 월드컵 축제의 봄을 한꺼번에 떠나보내는 감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붉은 꽃이 만개했다가 떠난 뒤 쓸쓸한 시청 앞 광장의 모습이 시의 이미지와 겹친다.

버들과 대화하는 꾀꼬리 소리 매끄럽고 (語柳鶯聲滑)
허공을 가르는 제비 춤 사선으로 비껐다 (剪天燕舞斜)
서글프구나 봄바람 (春風惟可惜)
정원 가득히 날리는 꽃잎 (吹落滿園花)

서산대사가 자신의 이력을 '삼몽록'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생이 세 가지 꿈의 기록이라는 말이다. 첫 번째 꿈은 부부가 동갑이였던 어머니가 나이 50에 준 태몽이다. 살며시 잠이 들었는데 곰속에서 어느 노파가 나타나, "태기가 있으니 사내장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례 드리러 온 것입니다."

서산대사의 '傷春'

허공을 가르는 제비춤
서산으로 비꼈다
서글프구나 봄바람
정원가득 날리는 꽃잎

하고 갔다. 이듬해 삼월에 아기가 태어났다. 두 번째 꿈은 아버지가 꾼 꿈이다. 대사가 세 살 때 사월 초파일에 아버지가 낮잠에 들었다. 꿈에 한 노인이 와서 "어린 스님을 찾아왔소" 하면서 꼬마의 손을 추켜들고 범어로 두어 마디 주문을 외웠다. 그리곤 이마를 쓰다듬어주면서 '운학(雲鶴)'이라 이름짓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이름의 뜻을 물으니 아이의 운명이 구름을 노니는 학과 같을 것이라고 하고 사라졌다. 이런 연유로 부모님들은 그를 '어린 스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운학'이라 부르기도 했다. 세 번째 꿈은 자신이 꾼 꿈으로,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 역시 하나의 꿈이라는 뜻이다.

대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다행히 열살 때 고을 군수에게서 시재(詩才)를 인정받아 서울로 올라와 서당에 나가게 된다. 열다섯 살에 스승을 따라 호남으로 내려왔다가, 친구들과 함께 두류산을 유람한다. 어느 날 숭인(崇仁) 노스님을 만나 "마음이 빈 공문(空門)에 급제하도록 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가 "무엇이 마음이 빈 공문입니까?" 하고 물으니 노스님은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알겠느냐?" 하였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는, 여러 경전을 내보이면서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면 점차 공문에 들 수 있다." 하였다. 동학들은 모두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는 혼자 남아 삼년간 수도 끝에 홀연히 시를 한 수 짓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갑자기 들리는 창 밖 두견새 울음에 (忽聞杜宇啼窓外) 눈에 가득 봄 산 모두가 고향일세 (滿眼春山盡故鄕)." 이후 그의 입에선 수많은 선시(禪詩)가 쏟아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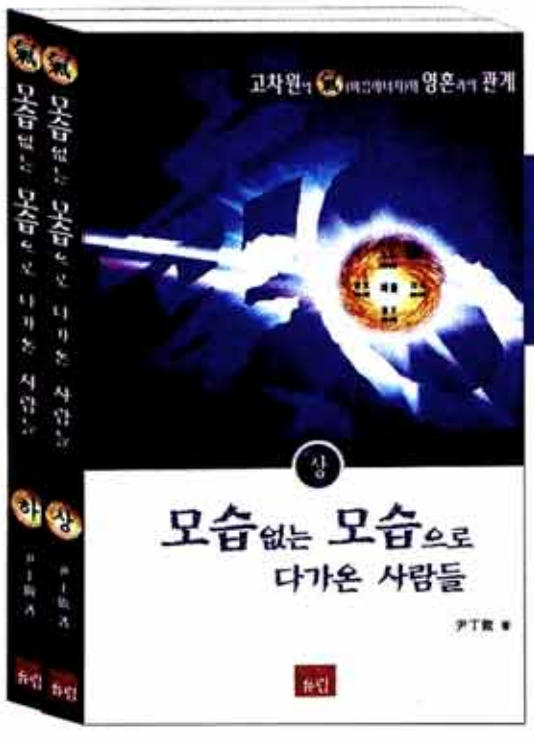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上,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 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 첨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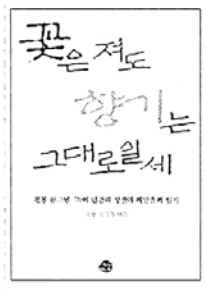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500여년간 머문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봉 스님.

경봉스님 깨달음의 일기 80편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 일세 명정 · 정성욱 엮음



"새벽, 극락선방에서 대중에 설하고 삼소굴로 돌아오니 수좌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붙들고서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옳은 것이냐를 묻기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따지지 말라 했더니 재차 물어 한 차례 때렸다. 수좌는 다시 알아야 한다고 따지기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물었더니 머뭇거려 생각하기에 또 한 차례 때렸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중 한 명인 경봉 스님(1892~1982)의 입적 20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일기를 모은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명정 · 정성욱 엮음, 예문)가 나왔다. 1927년 12월 7일부터 1976년 4월 2일까지 5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쓴 경봉 스님의 일기 중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 80여편을 골라 사진과 함께 묶었다. 일기는 주로 사건의 기록보다는 수행 과정과 근 · 현대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대선사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이 주를 이루며, 여기에 명정 스님과 정성욱 씨가 해설을 달았다.

일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수행의 향기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또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향곡, 효봉 스님 등과 수행의 방법과 경지를 묻고 답하는 편지들은 문학적 가치를 넘어선다.

대선사들과 주고 받은 글에 해설 달아
만해 · 효봉과의 문답 문학적 가치 초월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경봉 스님은 1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907년 통도사에서 성해 선사를 은사로 입산했다. 1953년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82세부터 시작한 극락암에서의 정기법회는 90세가 되는 노령에도 시자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법좌에 올랐으며, 매 회마다 천여 명 이상의 대중들이 참여했다. 1982년 7월 17일 91세의 스님은 당신의 입적을 알리기 위해 문도들을 모이게 했다. 이때 시자 명정 스님이 "스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하고 묻자 "야반 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하신 후 열반에 들었다. 스님이 남긴 일기는 세권의 책으로 묶여 발간될 예정이다. 값 8천 8백원.



깨달은 자에게는 향기가 없다 범진 지음

도서출판 한가람이 펴내는 '다시 읽는 대승경전' 시리즈 두 번째 권인 유마경 강의서 〈깨달은 자에게는 향기가 없다〉(범진 지음, 한가람)가 나왔다. 책은 스님이 지난해 성주사 불성회에서 '재가불교의 성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유마경을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마경'은 유마힐이라는 한 재가불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승불교 초기 경전으로, 경전 성립 당시의 재가불자들의 수준을 집작하게 하는 책이다. 값 1만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광덕스님 시봉일기 송암 지원 엮음



린 글은 광덕 스님의 법어와 동정을 엮은 1권 〈내일이면 늦으리〉와 2권 〈징검다리〉에 수록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도 있고, 새로 청탁한 글도 있다.

책에는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를 맡았던 시기부터 74년 월간 '불광'의 창간, 75년 종로 대각사에서의 불광법회를 발족한 일 등 스님의 포교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사부대중 70여명 스님과 인연담 담아

수행공동체 불광법회를 창립해 마하반야바라밀운동, 보현행원운동 등을 펼치며 대중포교의 기틀을 다진 금하당 광덕(1927~1999) 스님의 시봉일기 일곱번째 권이 나왔다. '사부대중의 구세송'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책에는 칠보사 회주 석주 스님과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무용가 홍신자 씨 등 사부대중 70여 명의 스님과의 인연담이 담겨 있다. 책에 실한 강남 봉은사가 팔릴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일 등 스님 가까이서 보고 겪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범어사 행자 시절부터 20년 넘게 광덕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적어두었던 수십 권의 기록을 바탕으로 '광덕스님 시봉일기'를 펴내고 있는 송암 스님은 앞으로 8권 '아, 광덕스님'을 비롯해 10권까지 출간할 예정이다. 값 1만원.

한국의 정원 허균 지음 / 이갑철 사진



해 소나무를 심고 못가에 소금 굽는 연기를 솟아오르게 하여 안개를 대신하는 등 자연물에도 인간의 체취가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정원은 가급적 인간의 손길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한국정신문화원 책임편수연구원인 허균 씨가 전국 곳곳의 정원을 답사해 얻은 결과물을 모아 정리한 책 〈한국의 정원〉(이갑철 사진, 다른세상)은 이런 차이점을 통해 우리 옛 정원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지은이는 "우리의 옛 정원을 들여다보면 자연과 융화해서 살려는 선조들의 의식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한다.

원형 잘 보존된 옛 정원 28곳 소개

우리의 전통정원과 외국 정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옛 정원에는 분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국인의 심성이 반영된 때문이다. 굳이 물의 흐름을 감상하고 싶을 때는 분수 대신 폭포를 만들었다.

우리의 정원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정원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의 정원은 석가산을 쌓고 태호석으로 바위풍경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의 인위적인 공간이 주를 이룬다. 일본의 정원은 연못 속에 여러 개의 작은 섬을 배치

전남 담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정원, 경북 영양 서석지 정원 등 한국 정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원형도 잘 보존하고 있는 옛 정원 28곳을 골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과 사진으로 간추린 '놀라운 한국의 정원(The Amazing Beauty of Korean Garden)'을 덧붙였다. 값 1만 8천원.

장편 '마하신돈' 네티즌 펀딩형식 출간

김성동씨 등장인물 등 간략한 줄거리 홈페이지에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 씨가 신간 장편소설 〈마하 신돈〉을 '네티즌 펀딩' 형식으로 출간한다.

'네티즌 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모으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이다.

김성동 씨는 현재 논장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onjang.co.kr)에 '신돈을 복권시켜야 하는 까닭'과 '당시 시대상황', '등장인물' 등 창작 동기 및 간략한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정리한 원고를 올려놓았다.

네티즌들은 이 계획서를 읽고 1인당 1만원 이상 신간 제작비를 투자하면 된다. 출판사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 입찰에 참가하고, 네티즌들의 투표에 의해 출판사가 선정된다. 투자 마감은 30일까지다.

올 가을쯤 선보일 '마하 신돈'에서는 고려 말의 요승으로 알려져 있는 신돈이 미륵신앙으로 민중을 해방하고 정계와 군부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물로 그려질 예정이다.

'유심' 신인상 효림스님 '소년의 절규' 외 4편



불교문예지 〈유심〉의 유심신인상에 효림 스님이 당선됐다. 그동안 선정작을 내지 못했던 유신신인상은 복간 후 첫 당선작으로 효림 스님의 '소년의 절규'와 '한 그루 나무올시다' 등 4편의 시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신경림, 이근배, 오세화, 박시교 씨는 심사평을 통해 "'소년의 절규'는 시대의 요구에 대해 치열하고도 정직한 응답으로 여길 만하고 '한 그루 나무올시다'는 넉넉하고 따뜻하며 종교적인 깊이까지 느끼게 한다"고 평했다.

1993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창립하고 실천불교운동에 앞장 서 온 효림 스님은 "시를 쓴다는 것은 삶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이며 그 기회를 〈유심〉을 통해 얻은 것은 만해의 후손으로 더없는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18년 9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한 불교지 〈유심〉은 같은 해 12월 통권 3호로 종간됐다가 81년만인 지난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낙산사 회주 오현 스님, 신경림 시인 등의 후원으로 복간이 추진돼 3월 1일 통권 4호를 발행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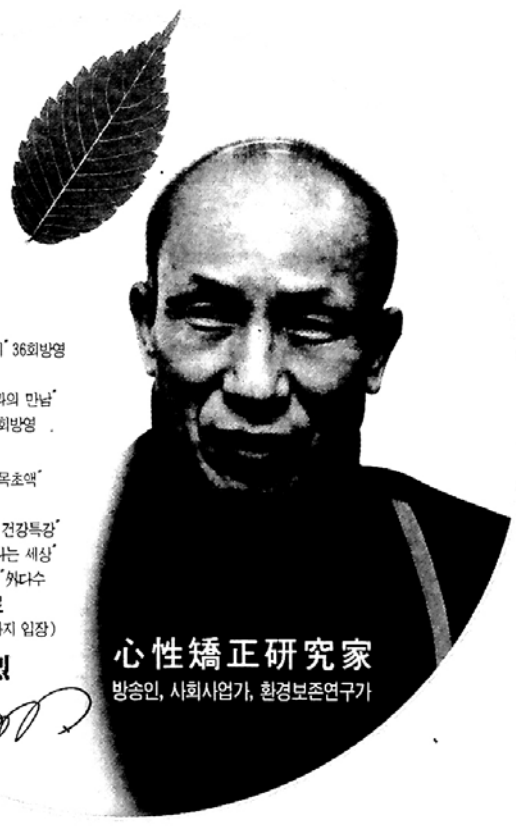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3	보왕삼매론강의	김 현 준	효 림
4	차 한잔의 풍경	김 창 배	솔 과 학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6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다 라 니
8	찻잔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범 공 양
9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10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달라이라마	문 이 당

도서 안내: (02)737-0695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CHAMP 챔프그룹

참향 참나무 류창열 목초액 木酢



방송출연
•인천방송(iTV) "도전건강백세" 36회방영
•e채널 (정보통신) 케이블TV
"전자상거래와 네트워 마케팅과의 만남"
•ch26 케이블TV "건강특집" 44회방영
•MBN 매경TV ch20
"OK 한방스페셜-사람 살리는 목초액"
방송출연중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삶 맛 나는 세상"
•저서: "심뵤를 고쳐야 病이 낫지" 外다수
저자 건강특강 - 청강무료
•월~목: 14시~16시(13시 45분까지 입장)
柳 昌 烈
心性矯正研究家
방송인, 사회사업가, 환경보존연구가

매스컴이 격찬한 목초액의 신비!
• KBS다큐멘터리(1997년 11월) ····· 목초액 효능, 효과 및 연구과정
• MBC, SBS, CJB뉴스(1999년 5월) ····· 식용목초액 항암, 당뇨병 치료 효과
• MBN매경TV ch20(2002년 2월 11/12일 2회방영) ····· 사람 살리는 목초액
• KBS다큐멘터리(2000년 6월) ····· 참나무도 자원이다

무점포 SOHO 지사장 모집안내
전업자, 퇴직자, 남여노소 구분없이 지역사회 인맥, 신용, 덕망있는 자로 소자본으로 누구든 환경을 살리면서 손쉽게 평생사업을 할 수 있음.
지사: •제주(064)726-3213 •정읍(063)532-8210
•전주(063)285-7258, (063)244-8901

CHAMP 한국 농·중·소(주) CGN Co., Ltd. | www.champgroup.co.kr (02)516-8939 (080)595-2929
사단법인 코베트: 코리아 · 베트남혼혈아 : 자립, 양자녀, 장학, 취업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목초액의 신비!!



류창열 참나무목초액은 참나무를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참나무의 200여가지의 성분이 연기로 변할때 급냉하여 액화시켜 숙성후 식업용, 임업용, 농업용, 축산업, 생활용으로 정제하고, 식첨용은 고도의 첨단 정밀, 정제기술에 의해 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식첨용은 오래 두어도 색깔이 투명성을 유지하여야만 고순도 및 고기능, 완전 무해한 식첨용으로서 강력보습효과, 강력천연방부제, 강력탈취, 강력해독, 강력살균 및 멸균, 강력항산화력등에 의해 광물, 미생물, 식물, 동물을 自然으로 회생시키고 세포를 공명, 공진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인체의 항상성기능을 강화시키므로 인체 스스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참나무 목초액을 이용한 생산제품
•식첨용 : 1ℓ, 150㎖, 40㎖ •생활용: 1ℓ, 150㎖, 40㎖
목초 고기능비누, 발시트, 고기능스킨, 고기능로션, 고기능크림, 고기능바디샴푸, 고기능바디크렌져, 고기능발크림, 고기능치약, 수질개선 주방세제(주방식기, 세탁용)
9월 출시예정 목초 자매품
목초껌, 사탕, 우리밀과자류, 우리밀빵류, 라면, 우동, 냉면, 칼국수, 김치, 된장, 간장, 젓갈

특별할인행사(선착순 99명) : 목초식첨용1ℓ ~~₩496,000~~ ⇨ ₩297,000

불교 등 동양사상은 현대 서구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론이나 페니미즘, 생태주의 등의 이론적 근거를 여기서 찾고 양자를 접목시키려는 노력 또한 다양하다. 동 · 서양 사상과 문학의 비교연구를 해온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가 4일 개최한 춘계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불자의 관심을 끌 만한 논문 세 편을 소개한다.

불교, 과연 서구문명의 대안인가

동서 비교문학회 춘계발표회 주요논문 내용요약

미국의 불교 붐

류황태 동의대 교수



1879년 영국인 아놀드가 쓴, 석가모니의 삶을 다룬 책 〈The Light of Asia〉는 미국에서 80판, 영국에서 60판을 기록하며 100만부나 팔려나갔다. 이발소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어난 불교 붐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류황태 교수(동의대)는 이러한 불교 붐의 배경에는 미국 지성계가 협동하여 불교를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종교나 믿음의 대상으로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종교 철학, 다시 말해 사색의 대상으로 미국 지성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다.

류 교수에 따르면, 〈The Light of Asia〉에서 아놀드는 기독교 독자의 구미에 맞게 석가를 묘사했다. '니르바나(열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이라며 무신론적인 면을 제거했고 미국인의 입장에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생략했다. 대신 진리 탐구자의 모습을 한 석가를 묘사하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와 카스트라는 계급제도의 반대 등 미국 문화의 특성에 맞게 석가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종교로서의 불교보다는 윤리적, 도덕적, 과학적인 모습의 불교를 강조했다.

류 교수는 "불교에 매혹된 자들은 미국의 지성인이지 대중이 아니다"며 "만약 대승의 기복적, 주술적 면이 먼저 소개됐더라면 19세기 말에도 불교 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양담론은 공허한가

박경일 경희대 교수



최근 한국의 동양철학 전공자와 인문사회 연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오늘의 동양사상〉 2002년 봄호)를 보면 이들의 80%가 동양철학이 현대문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타학문과의 대화 부족, 현대적 해석에 소극적, 대중과의 호흡 부족 등을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박경일 교수(경희대)는 이 가운데서도 학제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 해 봄 〈교수신문〉에 게재된 김진석 교수(인하대)의 '동양담론의 공허함'이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동양 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동양 철학의 실체를 부정하고, 노자와 해체론의 접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 사건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간의 갈등과 대결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학문 태도 및 방법론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을 새삼 반성해 보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박 교수는 "동양에서 발생한 도가와 서양에서 발생한 해체철학 간에 어떤 유사성들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고 묻고 "서양에서는 유불도를 망라하는 동양철학과 해체론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정작 본고장이라 할 우리 나라(동양)에서는 외면되고 경시되고 있다면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며 학제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경별찬' 통해 본 김시습 문학 · 사상

이기운 경희대 강사



'심유적불(心儒蹟佛)', 즉 '마음은 유교이고 행동은 불교'라는 평가는 설잠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일까?

이기운(경희대 강사) 씨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 씨에 따르면, 이는 설잠이 남긴 해석하고 있는 설잠 김시습의 불교사상은 선사이면서도 법화, 화엄에 관한 저술을 남긴 함허득통(1376~1433)에 이어 조선초기 불교사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표적 저서 가운데 하나인 〈연경별찬〉에서 설잠은 〈법화경〉의 일불승(一佛僧) 사상이야말로 선(禪)의 증오(證悟)로 가능하다며 법화를 선으로 회통하고 있다. 즉 설잠은 선적 진리체계 속에서 법화의 제법실상이 그대로 체득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선교일치를 주장해 온 의천이나 지눌의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후기 통불교적 조계종의 전단계로서 중요한 불교사상사적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씨는 말했다.

덧붙여 이 씨는 〈연경별찬〉의 편찬시기는 학계의 통설인 29살이 아닌 〈화엄일승법계도주〉 등을 지은 40대 초로 봐야 한다는 설을 지지했다.

믿음의 대상 아닌 종교철학으로 접근
'기복' 먼저 소개됐으면 붐 없었을 것

광범위 학제간 교류협력 필요성 절실
서양, 동양철학 · 해체론 비교연구 활발

시 2200수 · 100종 저술 남긴 산승
조선초기 불교사상사적으로 큰 의미

선림원은 한국선종의 태동지

권기종 교수 "화엄종으로 출발, 염거화상때 선종 변모"

'하늘 아래 끝동네'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구에 자리잡은 선림원지(강원도 기념물 53호)는 진전사지(강원도 기념물 52호)와 더불어 우리 나라 선종의 개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폐사지이다. 도의 선사의 전법제자인 염거화상이 주석했고, 염거화상의 제자이면서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 체징이 수도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절터에는 초기 선종 미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444호)과 부도(보물 447호), 석등(보물 445호), 홍각선사비 귀부 및 이수(보물 446호) 등이 전한다. 또 1985년 동국대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시대 당시의 가람배치가 그대로 남아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4일 개최한 '양양 선림원의 사상과 불교미술' 학술대회는 바로 선림원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불교사적으로 볼 때 선림원지는 화엄종 사찰이 선종 사찰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화엄종 승려들이 선종으로 이적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뚜렷한 증거이기도 하다. '홍각선사비문을 통해 본 선림원'을 발표한 권기종 교수(동국대)는 신라의 대표적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802년)를 세운 순응이 2년 뒤 선림원 범종 주조에 상화상(上尙和)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선림원이 화엄종 사찰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전사에서 도의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염거화상이 선림원(억성사)으로 옮겨와 체징에게 법을 전하면서 선종 사찰로 변모했고, 870년 홍각선사가 대대적으로 중창했을 시기에는 완전히 선종화 되었을 것으로 봤다.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강원도 기념물 53호) 근경.

권 교수는 "선림원(억성사)은 염거와 체징, 홍각에 의해 초전선법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선종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림원 본존불상 문제'를 발표한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머리가 없는 상태로 선림원지 아래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놓여 있는 석비로자나불상이 선림원지의 금당에 봉안되었던 본존불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문 교수는 이 불상의 사각형 지대석 크기와 선림원 금당터의 사각형 불상대좌 기초석의 크기가 같고, 9세기 중엽 조성된 다른 비로자나불상 양식과 일치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전시된 국보 104호 염거화상탑.

염거화상탑(국보 104호)은 원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반출하려다 실패한 이후 지금의 경복궁 뜰로 옮겨왔다. 그러나 원주 흥법사지를 샅샅이 조사한 미술사학자들조차 이 탑의 원래 자리가 흥법사지였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그런데 한 아마추어 문화재애호가가 염거화상탑의 원래 위치를 추적한 책을 출간해 화제다. 이순우 발류투자자문회사 상무가 최근 펴낸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하늘재)는 일제 강점기때 강제로 옮겨져 현재 경복궁 내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구역에 전시 중인 석조문화재의 행적을 추적한 책이다.

문화재에 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이 씨는 주말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들락거리며 관련 기록을 찾고, 현지 답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 문화재의 이동경로와 시기, 그 이유를 추적했다.

2년여 노력 끝에 이 씨는 이마니시류의 고적조사보고서 기록을 토대로 "염거화상탑은 원래 경기 가평의 종현암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또한 천수사 삼층석탑은 원래 가마지삼층석탑 중의 하나였던 것이 박물관 수장품 카드의 작성과정에서 빚어진 오류 때문에 천수사 석탑으로 둔갑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실상은 영전사지 삼층석탑 혹은 영천사지 삼층석탑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염거화상탑 원위치 종현암지 가능성"

이순우씨 조사보고서 주장

이 책은 이밖에도 진경대사탑비, 보원사지 철불,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에 대해서도 위치이동과 그 시기 및 배경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1만2천원.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佛經漢文敎育科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7월 5일 ~ 8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大學院 과정
3. 敎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4. 敎育期間 ● 3년 (6학기)
5. 敎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 1회 출석특강
6. 卒業惠澤
   - 수학증서 수여
   - 불경한문강사 자격증 수여 (심사 합격자)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 (무료)

※ 자세한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法華三部經講院

책임교수 崔光永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053)952-8711 · 017)501-8711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악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붓기가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정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성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순수복 재질 목올 50%
1 직삼, 바지, 쪼끼 ₩130,000
2 동 방 ₩110,000
3 두루막 ₩120,000

화복 재질 목올 50%
1 직삼, 바지, 쪼끼 ₩130,000
2 동 방 ₩110,000
3 두루막 ₩120,000

※ 순면(무늬 없는 먹물) ₩130,000
하복 구입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 · 중백 셔츠



7 조끼, 중백 ₩50,000 7 셔츠 ₩3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희소식 圓梵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歸依三寶 하옵고,
諸方寺庵 佳持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메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世上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發願!!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佛嚴寺 梵鍾에
自動시스템을 설치
춘하추동 四時節 朝夕禮佛 時間과
正午에 人跡이 있고 없고,
크나큰 鍾에서는
치는 이 그림자도 없이
圓梵音이 三世를 뚫어
오늘 지금까지 또 다함없는 미래까지
울려 울려 퍼져
모든 衆生苦는 사라지고
解脫의 法悅이 充滿함이여!!
寺中外護와 佛事에 餘念 없으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스님들께
작으나마 편이를 드렸으면 하고!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불기 2546壬午年, 오월, 단오.
부영공업사 대표 신 현 직 두손모음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주인공' 찾는 게 아니라 발현하는 것

근본을 의심없이 사랑하려면…

문 스님, 저는 주인공만 찾으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근본과 상봉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이렇게 골이 아파와서 공부를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본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간혹 의심이 되는데, 저의 근본을 의심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주인공은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발현하는 겁니다. 찾기는 뭘 찾습니까? 그리고 누가 머리가 아프게 하랬습니까? 욕심부리고 빨리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마음을 편안히 두고 항상 순리적으로 흘러 돌게 해야합니다.

상을 찌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주인공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돌아가지 않느냐. 몸을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당신이지 않으냐?' 하고 그 자리를 믿고 안에서 일어나든 밖에서 들어오든 일체를 맡기면서 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근본과 상봉을 하는 날이 있을 텐데 왜 머리가 아프도록 애를 씁니까? 신경을 써 가면서 골치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려면 진짜 무심의 사랑을 하세요.

주인공의 사랑은 진정 끊임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몸이 조금만 어떠해도 큰 내 손을 빌려서 요기도 만져 주고 저기도 닦아주고, 일 분 일 초도 떼어놓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님입니다.

주인공의 그 짙은 사랑은 수 만금을 주고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을 다 주고, 아니, 세계적인 대통령을 하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정말이지 그것은 말로는 할 수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때 혼자 싱긋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투면서 바뀌지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추운데 너 지금 어딜 가?" 그러면 '그래, 내가 추우면 너도 춥고, 네가 추우면 나도 춥고, 네가 따뜻하면 내가 따뜻하고 내가 따뜻하면 네가 따뜻한데 뭘 그래.' 이러고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죠. 맡할 것이 없는 반면에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가랑잎들을 다 구겨 넣으면 그 풀잎에서 화기가 나와서 더워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두 무리 긁어다 넣을 수 있게 네 손 좀 빌려달라 이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손 좀 빌려 줘.' 하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납득을 못하고 다 쓸어모았어요. 쓸어모아 가지고 다 넣고는 '추운데 들어가야지.' 그러고 내 몸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에 아하, 이 원리가 바로 십대 제자는 나를, 몸을 위해서 이렇게 신장이 돼 주고 발은 내 님의 발이요, 손은 임의 손이요, 눈도 임의 눈이요, 코도 임의 코요, 모두가 임이시구나.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구나. 단지 임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임만이, 이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많은 것을 송두리째 느끼고서 송두리째 내던지게끔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숨쉬고 움죽거리고 지금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운용을 해가면서 살아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바로 주인공의 묘용이고 깨우치게 하려는 주인공의 참자비, 참 사랑임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와 뿌리가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주인공과 내가 본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의 연꽃을 피우려면…

문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고, 선가(禪家)에서는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요, 이심전심의 묘법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부처님 재세시에 어느 날 영산회상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였는데 제자 중에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홀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희처럼 세간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범부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마음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어떠한 사람이 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고 타의에서 나를 찾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몸 속에 들어가서 찾을 때에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속을 세계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흙탕도 있고 진흙 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 온통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으러 거기 들어갔을 때에 소임을 맡은 구비구비, 그 개체 하나의 소임자들을 다 만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흙탕물에 빠져가면서 걷는다면 그것을 '고'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구비구비 넘어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걸 거기 놓고 가라 이랬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그 자체가 구비구비 닥쳐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상세계를 찾아서 향해 가는 길이죠.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도 중세계에서 살면서 상세계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세계에서 맴도는 사람, 하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한테 어떠한 게 앞에 닥치든 안에서 일어나든, 모든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가 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고등동물이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누적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식처다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입력되어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하는 농간이라는 겁니다. 의식들이 모두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 헤아릴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팔자 운명이니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 속에다 다시 놔라, 다시 놓으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고 현실에 입력하는 것만이 다시 나온다 는 겁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듣기는 들으나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대치가 되지 않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부처의 마음도 알고, 부처님이 공체로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는 도리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겪어야 할 문제가 지금 우리 생활에서 겪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둘로 보지 말고 맡겨서, 놓고 또 놓아 간다면 홀연히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성의 고난을 다 겪고 나면 연꽃이 피듯이, 홀연히 진흙 땅에서 연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보고, 누구나가 말하고, 누구나가 행할 수 있지만, 내 몸 속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있고 밀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있어야만이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역할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감응이 되고 거기에서 절대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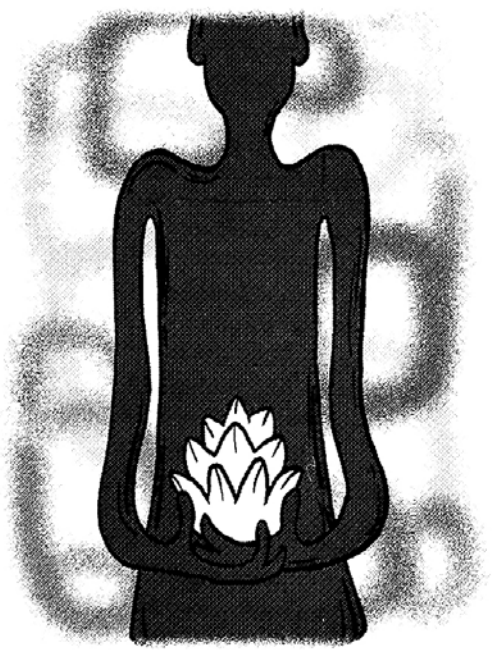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무와 뿌리 뗄 수 없듯이
나-주인공은 둘이 아니요
자기 영원한 친구이기에
주인공의 참사랑·참자비
진실되게 믿을 수 있어야

나 먼저 알아야 부처 마음 깨닫고
공체로 나투시는 도리도 알게 돼

자녀 결혼시켜야 하는데…

문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사위를 보든 며느리를 보든 통상 어느 집안에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융성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망하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사람마다 인연 지어진 업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좋게 입력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나쁜 업을 지은 신부나 사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업이 좋게 인연 지어진 사람과 나쁘게 지어진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저희들 눈으로서는 도저히 가늠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나는 여러분에게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 또는 더 좋다 더 나쁘다를 따져서 고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악과 선을 한마음 주장자에다 놔라 이겁니다. 너만이 다 이끌어 줄 수가 있다. 그 사람도 한마음이 돼서 좋게, 어떠한 애고가 생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다복하고 화목하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형제들간에 우애 있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딱 믿고 거기다 맡겨놓고, 아들이 좋다고 하거나 딸이 좋다고 하거나 그런다면 그게 그냥 궁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권리가 있고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내 안에 있는데도, 모두에게 능력이 다 있는데도, 모두에게 자유가 있는데도 못한다면 아니 되죠, 공해서 찰나찰나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데 어떤 발자국을 떼어놨을 때에 내가 떼어놨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공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 참자기가 과거의 업을 멸하게도 하고 입력이 된 걸 지워지게도 하고 이러는 거죠.

얼마나 살기가 편리합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법이 정말이지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생활 자체가 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참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성으로 보지말고 우선 나부터 관하는 도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풍수지리와 천도

문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묘지에 모신 후 그 묘지의 풍수적인 길흉에 따라 자손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으로써 풍수지리는 수 천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학문적인 체계가 서 있습니다. 저희 집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인데, 집안에 많이 아픈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나 건강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묘를 보면 풍수지리적으로 역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도재를 두 번 올렸고 합동천도재도 두세 번 올렸건만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큰 효험은 없는 듯 하군요.

왜 물질의 잔존물일 뿐인 조상님 뼈를 묻은 곳의 풍수지리에 따라서 이렇듯 자손의 길흉마저 좌우되는 것 인지요? 이것은 마음도리만으로 안 되는 것 인지요? 천도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또한 풍수지리 효과는 계속 장구한 기간 동안 작용하는 것 인지요?

답 옛날부터 산소를 잘 쓰면 천석군을 내고 산소를 못 쓰면 대대로 가난하다 하는 말이 있죠? 또 산소를 잘 쓰면 후손들이 잘 되고, 조상이 잘 돌봐 줘서 정승 판서가 되느니, 임금이 되느니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거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체 만법의 근원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 하나의 근원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뭣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 끄달리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 자리가 좋다 하고 심봉을 꽂으면 그냥 좋은 거지 무엇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며 찾습니까, 좋은 자리를. 전체의 보배자리 한 자리인데 자리를 어디 가서 따로 찾겠습니까. 알고보면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패가망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이 산소를 쓴 곳이 좋은 자리라고 해서 남의 산소를 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남의 산소를 파 버리고 자기네 조상 갖다 묻기 일쑤고 말입니다. 지금도 좋은 자리 찾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간편하게 볼편치 않게, 물 흘러가듯이 순수하게, 순리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금은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옮겨갈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인제는 허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마는 도자기를 만들어 놓는 순간 벌써 이 모습으로도 전달을 했고 마음으로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죽고 사는 게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쁜 자리다 좋은 자리다 할 게 없이 자기가 좋다 하면 그 자리가 그냥 좋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디든지 '이 자리야' 한다면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저 자리다' 하면 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쓸모 있게 생각하면 쓸모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도리를 실천 안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말을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겨 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인내가 있고 패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밀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있어야만이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역할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감응이 되고 거기에서 절대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상사와 성격 안맞아

문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분과 저의 성격이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무조건 그분 말씀을 따르려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나를 공부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도 내어보지만 가슴 한켠에는 응어리가 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제가 오히려 업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제가 얽른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올립니다.

답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 자체가 공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주인공에 의해서 움죽거리기만 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직장상사와 화합하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한마음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인공에다 맡기고 진짜로 믿고 나가다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고 체험해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연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데서부터, 내 생활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기 이전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화가 돼서 형성되면서 이렇게 수 억겁을 돌아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했죠? 그래, 아무리 밉고 싫다 하더라도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괴로움 같이 생각하고, 내 몸 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항상 부드러운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따로 본다면 말도 거칠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도 그렇지마는 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마음이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상사다 직원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있으니 내 버튼을 누를 때에, '저기도 불이 들어오게 해.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버튼을 누를 때에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것대로 들어오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버튼 누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좀더 다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자꾸 맡기세요. 그리고 차차 지켜봐요. 그러면 나도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로 물러서지 않고 믿는다면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진짜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닥쳐오는 상황에 끄달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뜻대로 잘 안되면 '아이구! 아무것도 아니네.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지 딴 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자 공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몸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끔 돼 있는 자체가 자기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돼 버려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죽으나 사나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해요.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그 자리에 놓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가 편찮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회사 상사한테 구속을 받든지 또 아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위치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상이 없이 하다보면 아래 사람들은 잘 이끌어가고, 또 위 사람들은 잘 모시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면서도 지킴이 없고 지킴

☞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연꽃 피면 그것이 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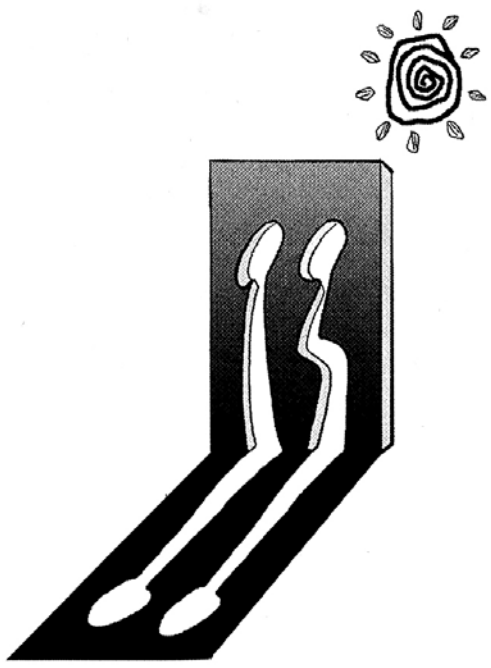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이 없으면서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건 에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면, 자동적이고도 활용적이고 영구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데…

문 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감정만 좀 가라앉을 뿐 증상이 그대로 있어서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맘속을 다 아는 것 같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성적인 것도 있고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것, 그냥 혼자만 알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아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스님, 어려운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도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안절부절해서 그것마저도 잘 안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신분열증은 잘 낫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무리 밉고 싫다고 해도
> 내 아픔 · 내 괴로움 · 내 몸같이
>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 마음 · 행동 부드러워져…

답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 분열이라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돼서 몸 속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익하게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전자에 인과가 있어서 배신을 당하고 그랬던 인연은 나쁘게 몸을 망가뜨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신 분열증이라 하더라도 타의에서 귀신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의에서 일어난 건데, 자의에서 일어난 거는 다스리는 자가 자기의 주인공밖에는 없어요. 자기의 불성 주인공만이 그 의식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다 밀어 던져서 일임하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맡겨 놓으면 그대로 낫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귀신이 나한테 들렀다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유전이 됩니다.

본래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무슨 유전성으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원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암으로 죽었으면 자기도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패기가 없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하니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게 생각을 하면 속의 의식들이 다 약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요.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그대로 속의 의식들이 따라가는 거죠.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러면 또 좋은 일하는 대로 따라주고요. 그냥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약하게도 되는 수가 있고, 과거의 업보와 팔자운명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계성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내 몸 속계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좋게 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한 겁니다.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 재워라, 모든 것은 한마음 속에서 나으니, 의식 속에서 나오니 한마음으로써 대치를 해라 이 겁니다. 모든 거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라하고, 속지말고 잘 다스리며 나가라 이거죠.

동짓날 수좌들이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가마솥에서 팥죽 방울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니까 방울이 올라오는 거를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아! 이러고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알고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네 몸 속이 즉 팥죽이다, 네 몸뚱이는 팥죽솥이다. 그런데 네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것을,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각각인 줄 알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곧이 듣고 말리니까 요것도 고놈, 요것도 고놈, 문수란 놈! 하고 쳤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한 몸 속에서 나오는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까. 모두 한 속에서 나오는 것을요. 그러니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어!' 하고 거기다 되 맡겨 놓으면, 되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데에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단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대로 바닷물이지, 그게 이 물 저 물 섞여서 딴 물이라고 이름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면 말입니다. 생활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 따로 없고 다만 옮겨갈 뿐
좋고 나쁜 묘지 끄달리지 마세요

그러니 따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행동이 나오는 것, 말이 나오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내 몸 속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어!' 하고 다시 돌려놓고, 마음을 돌려서 나오는 대로 다스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유자재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길 겁니다.

나 · 주인공이 나눠진 이유

문 저는 한마음 법을 알게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실상 공부를 게을리 해오다 앞으로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마음먹고 글을 올립니다. 제 안에 주인공 불성이 있고 그 주인공을 깨치는 공부가 이 공부라 하지만 어째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주인공의 존재가 나뉘어졌을까요. 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지요.

답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란 말입니다. 정신과 자기 마음이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 놓고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폭이 되는 거죠.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따로 있는 줄 안다고요. 영화배우들이 배역을 맡아 가지고 감독에 의해서 영화 배우로서 역을 하는데, 감독은 쑥 빼 버리고 연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감독이라는 참자기가 있고, 지금 현재 물질 세계에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운용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합니다. 정신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 점점 살기가 급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 의지해서 살다가 자식이 자라면 부모는 껍데기가 되고 그 자식은 오히려 알맹이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알지 못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버지를 붙잡아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키울 수 있고 모든 걸 다 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근심을 하고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자라지도 않은 자식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네 아버지가 너한테 있는데 왜 너의 아버지를 잡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고아로 사느냐? 네 아버지를 네 집에다 두고도 왜 고아로 사느냐, 이 소립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놔두고도 고아로 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子)가 진실로 믿어야 할 자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로 불성이고 주인공이죠. 우주 전체를, 삼라대천세계를 끼고 있는 그 자체죠. 그런데 자기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나인 줄만 알기 때문에 참 딱해서, 부처님은 딱해서 중생들을 보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대성인들도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모른다면 우주의 섭류를 모르느니라, 네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다 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겠죠?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실천의 행을 해봐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묵대사님은 동양의 소 석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묵(能印寂默)의 자리에 오르사 진묵이라 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기신 행적은 하도 기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혜안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하는 처사님과 아이들을보고 황급히 달려가 야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농하여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 엎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곳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룁니다.

성모암 대중일동

■ 일시 :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능제 연꽃축제 대행사장

※ 모든 방생물은 주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은 방생금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코골이, 당뇨, 암, 특효"



달마사 백련스님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무 료 침 술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여성 장군과 여성 경찰서장이 배출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이 그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점을 부각해 '뉴스'로 다룬다.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여성'이라는 희귀성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7회 여성주간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남성과 여성이 가정은 물론 직장,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돼야 함을 강조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설치작가 조미영 씨가 꾸민 '부엌에 관한 즐거운 상상' '여성의 공간'으로만 여겨지는 부엌을 지하철이라는 외부공간으로 끌어냈다.

여성주간 이색행사… 위민 메트로 여성발전 30년 사진전

"남녀는 조화로운 동반자"

열차내 주방 … 부엌을 생산 · 평등의 장으로
민주 · 정보화 주역으로 미래여는 과정 조명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여성부가 마련한 7호선 여성테마열차 '위민 메트로(Women Metro)'는 모든 이에게 친숙한 공간인 지하철을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8월말까지 하루 6차례 운행하는 '위민 메트로'는 전동차 한 대를 '평등, 인권, 인력개발'을 주제로 한 설치 미술작품으로 꾸몄다.

설치작가 조미영 씨가 첫 번째 칸에 꾸민 '부엌에 관한 즐거운 상상'은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부엌이란 공간을 밖으로 끌어냈다. 냉장고와 고무장갑, 싱크대 등을 통해 '부엌=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엌을 생산과 평등의 현장으로 표현한다.

여덟 번째 칸에 마련된 '여성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의 기록'은 21세기 여성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미술가 방효정 씨가 꾸민 이곳에는 컴컴한 실내에 거대한 시계가 붙어있다. 유리창에는 빨래를 하거나 가방을 들고 휴대전화를 받으며 뛰어가는 여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방씨는 "숨가쁜 맞벌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나머지 6개 칸은 여성부 주요 정책을 담은 홍보물을 부착하고 열차 외벽도 남녀평등 메시지를 담은 그래픽으로 처리했다.

(사)21세기 여성미디어 네트워크(공동대표 이계경 · 이경순 · 김효선)와 신주부캠페인추진본부(공동대표 김수자 · 김용림 · 이숙경)가 마련한 '한국의 여성발전 30년사 사진전시회-여성의 영토전'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자리였다.

7일까지 시청역 전시장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여성들이 생산현장과 민주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정보화의 주역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한걸음씩 넓혀온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기획된 이번 행사는 '70년대-그녀 세상을 일구다, 80년대-그녀 세상과 맞서다, 90년대-그녀 세상을 바꾸다, 2000년대-그녀의 딸들'이라는 주제로 선보였다.

수출주도의 산업구조 속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던 70년대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들이 세상과 맞서기 시작한 80년대, 여성이 차츰 사회의 중심으로 진출하며 사회를 바꾸어 가는 90년대, 여성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딸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찬 내일을 여성이 가꾸어 본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2000년대로 구성됐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카드에부부가 함께 설거지하는 그림을 새기고, 포함시는 '부부 문패달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생활 속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 여성주간은 끝났지만, 사회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생활 속에서 이어질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ya.com

부모님께 좋은 선물 '마야 관음'

생전에 늘 의지해온 호신불이 사후까지 당신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될까?

덕우코퍼레이션이 '마야 관음'이 바로 그 호신불이다.

7.5cm 크기의 '마야 관음'은 몸에 늘 지니거나 집안에 모시다가 생전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귀의하면 사람이 타계한 경우, 위패를 절에 모실 때 고인의 명패와 함께 모셔 고인의 음덕을 기릴 수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모셔온 '마야관음'을 봉양하면서 기도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02)461-2037

여성 탐신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씨 전통누비 강좌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씨가 '전통누비 강좌'를 상설한다.

우리 전통문화인 누비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일회성 강좌형식에서 벗어나 학기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 일요일 경주 누비침방에서 실시되며, 누비실습과 염색실습을 겸한다.(054)775-2631



◇전통누비 강좌를 여는 김해자 씨.

9월 3~6일 혼인준비교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 결혼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부딪히게 될 어려움과 갈등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혼인준비교실'을 마련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혼인준비교실에서는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갈등, 새로운 가족 간의 올바른 호칭 사용법, 의사소통기법, 아름다운 부부의 성, 결혼생활 설계, 혼수 및 결혼준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다. 02)752-4227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총화종 총무원장상

속죄의 그날까지 (下)



어머니 말씀따라 불자의 길 7년
오계 · 10선 생활화 … 속죄 · 갱생의 삶

물욕에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이곳에 와서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종교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야 잘못을 깨닫는 나약한 인간의 본질. 법정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오는 서러움을 참으며 오히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살다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겠지요' 하며 위로를 하니 어머니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차라리 내가 너 대신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니' 하며 더욱 구슬프게 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끝이 없는 모정이란 이런 것일까요? 죄 없으신 당신의 육신까지도 못난 아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시겠다는 애타는 모정 앞에서 저는 마음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과 가정에 무엇을 해왔는가? 주는 것 보다는 받는 것을, 도움보다는 걱정을 끼친 것이, 기쁨보다는 슬픔을 준 기억만이 남아 앞으로 헤쳐 나갈 기나긴 세월이 두렵고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의와 비애에 빠져있던 저의 마음에 강한 희망의 불씨를 당기게 된 도화선은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세상에 얼룩진 상처 없이 단번에 날아오르기에 성공한 새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현재의 불교방에서 생활하면서 7년째 아침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립니다. 서투르나마 제 손으로 치는 목탁소리가 번뇌에 쌓인 저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모든 생활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모든 일들이 즐겁고 잘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수계식과 더불어 법계(法界)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죄인을 법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은혜를 죽는 그날까지 아니 세세토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약속한 오계를 지키고 나아가 10선을 생활화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속죄의 길이요 재생의 길이라 믿습니다.

저 때문에 고인이 되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드리며 피해자님들의 마음의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그 아픔을 씻어 주시리라 믿기에 부처님께 참회의 백팔 배를 오늘도 올려봅니다.

어머님이 달아주신 날개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제 꿈과 땀이 결실을 맺어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날 이 세상 그 어떤 날개보다 더욱 찬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기약 없는 무기수의 삶에 용기와 힘을 심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최종해(전남 무안군)

다 이 어 트

단지 몸매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과 인생까지 변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명산을 오가며 한방에 관심이 많으신 법우스님.
만병의 원인인 비만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선전광고에 의존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순수 한방 약이면서 무독성으로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한방 다이어트 약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동안 2000여명의 복용자 중 95%의 효능이 입증된 전주 W대 한방병원 임상실험 결과 한방다이어트 약은 신진대사 촉진으로 기 순환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속의 유해수분과 지방질 흡수작용을 강하게 하여 한달복용으로 4~5kg 감량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인류의 적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만의 합병증인 관절통을 치료하며 외형적 변화가 놀라워 변화된 모습에 주위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며 본인도 상쾌하고 가벼워진 자신의 몸매에 감탄할 지경입니다.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요요현상을 다스리는 방지책이 준비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안성맞춤이라 하겠으나 좋은 만남도 불가의 인연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순이익금을 불사자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우합장

비만에 특효
(한달 복용 4~5kg 감량)

■ 한달 분 가격 : 30만원
■ 전화 주문 시 택배 무료배송
■ 주문 상담문의 : 011-615-7630
농협 100115-52-232981 김종석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등
이중에서 50~60%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머리글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
041)567-6820, 567-6822

退 퇴 魔 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러증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 간질병환자 처럼 발작을 일으킨다.
●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아이의 눈동자가 가끔 사시가 된다.
●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돼다갔다 흔들린다.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는다.
● 가끔가다 경기를 자주 일으킨다.
● 아이의 몸이 사지가 뒤틀린다.
● 아이가 울때 울음소리가 아이 울울소리가 아닌것 같다.
● 아이의 목소리가 가성이 나온다.
● 고개를 앞뒤로 꾸벅이거나 좌우로 흔든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한군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음이 온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다 잘 알 수 없으니 큰병원에 가보라 등의 말을 해 주며 악을 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은 대부분 어른이 상용해도 몸에 해로운 신경 안정제 입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때 완벽한 영체를 형성하여 다른 영들의 침입을 받지 않으나 편하게 살려는 부모와 의사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배를 가르고 집게로 아이를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때로는 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아 영체가 깨어져 나쁜 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위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영에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상성격자가 되거나 신기를 보이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요.
중생구제와 포교의 일환으로 도심에 정욱사 포교원을 개원하신 정욱스님이 여러분에 아이들을 마군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초월견성하신 정욱스님의 육신에서 나오는 순수한 원광에 의한 오라와 법력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든 영가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이 들려 정신이상증세나 이상성격이 나타나는 자나 중풍, 암, 전신마비, 신체일부마비, 디스크, 골프병등 각종질병을 가진 분들을 퇴마술과 기적의 포기 회생술로써 구제하여 드릴것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7-16
정 욱 사 주지:정욱스님 02)382-2217, 017)217-2219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문탁리니, 비전과 빅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이직,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펄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주국OEM)
* 광한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행자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락산 백운사
02)939-0221
011)9162-4517

산수수려한 서울 인근 사찰에서 기도하고저 합니다.
연락주십시오
016-811-6787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경북 청송군 국립공원 주왕산 대전사
054)873-2908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조용한 산사
강원도 강릉
033)661-5878

공양주를모십니다
[불심있고 성실하신 보살님]
[부부도 가능 함]
▷나이 제한 없음,
안성과 서울 중 택일
02)577-0007/578-5508
011)9864-1095

제의식 불공천도 전문 스님입니다
양제훈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62)952-301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교육생모집
불교영산작법 전통범패의식
일시 : 7월 19~23일(4박5일)
접수기간 : 6월20~7월15일
(선착순)
문의전화 : 062)362-8604
011)624-8604
011)614-8604

◎ 모십니다 ◎
무료 양로원에서 입소할 독거 노인을 모십니다 (만 65세 이상)
천혜의 자연조건, 깨끗한 환경
●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30분거리
● 순천시에서 30분거리
● 주소 :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873번지 홍산 보금자리
전화 061)363-8898
팩스 061)363-8897

신심좋고 평생스님을 모시고 살 공양주보살님을 구합니다
▷정읍 보림사
063)535-68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 877-7514

『모십니다』
섬진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운산 자락 무등암에서는 함께 수행정진할 행자와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무등암
전화 061)772-4109/772-5401
휴대폰 011)351-6067

심야전기 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엘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 강 기 전 02)338-040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경남 거창군 덕유산 입구 소재 사찰 터 싸게 내려 합니다
016)857-4500

해 원 사
연쇄적 사업실패, 잦은병고, 가정불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며 불면으로 고생 하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031)532-6661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 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산세가 우렁하고 물이 최고 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불사하면서 가족처럼 사실분
비구니,행자,신심있는보살님
▷나이불문
031)582-0635

법납 5년 미만 행자 또는 비구니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북한산 선봉사
02)387-8445
016)381-1319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장수건강 돌침대 最大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사계절용)
돌침대는 세멘바닥의 사기(邪氣)와수맥을 막아줍니다.

▲싱글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암자 안내
● 법당, 삼존불, 요사채 (새로건립)
● 방 5개, 거실, 주방, 심야전기, 보일러 기름보일러 2개, 주방시설 완비
● 전세 2천만원, 월 10만원
● 왜관 IC에서 5분거리
017)565-1599

사찰 안내
● 사찰, 양로원, 사회복지사업하실분
● 대지 : 1950평 ● 건물 : 100평
● 수영장 : 50평 ● 통나무집 : 2채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월산면 회방리(죽림원)
011)9604-4730
062)652-4730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청양소재 청양, 공주, 부여 각각 20분거리
● 대지 : 362평(텃밭 약 150평)
● 건물 : 임법당 약 25평 방 2칸 입식부엌 절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특징 : 초 현대식 완전수리 기와지붕 각종 유실수 다수, 은행한가마 수확
● 가액 : 5천만원
016)294-5264

사찰 안내
● 가액 : 1억 9천만원(조정가능)
● 임야,대지 : 5000평
● 대웅전 : 30평, 요사채 : 2동
서 산 사
061)434-7724
019)660-6954

사찰(급)안내
● 위치 :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1구
● 총면적 : 약 4천평, 대지 1천평 40평 임법당
● 식당 16평 산신각 10평 산세수려 대둔산 앞머리 명당터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041)741-6701
016)515-789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소태동 제2순환도로 무들산 진입로 부근
● 임야 : 4천 20평
● 대형차량 진입가능
● 대지 : 400평, 전환가능
● 평당 : 14만원
016)471-8758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
● 면적 : 170평
● 법당 : 23평
● 요사 : 20평 (마을과 인접한 아담한 사찰)
● 양도가 : 1억 5천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면접 : 400평
● 법당 27평 요사 40평 (산속에 위치한 도심사찰)
● 양도가 : 6억

토굴 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 면접 : 379평
● 요사채 : 20평 (풍수만점의 마을 인근 토굴)
● 양도가 : 1억 5천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옆
● 건물 : 5층 건물 중 4층(53평)
● 특징 : 시설완벽 포교당 최적지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68-5997
051)761-1573

포교당 안내
● 부산 법천로타리(지하철)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3층
● 평수 60평
● 삼존불 모셔져있고 신중탱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탱화, 산신탱화, 시설완벽 방 4개, 주방시설 완비
● 시설비 : 3천만원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땅 : 650평, 평당 40만원
● 특징 : 건물 20평 포교당이나 절 지을에 최적지, 유동인구 多, 바다가 보이며 공기 좋고 경관이 수려
02)6245-8710
018)603-871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도리원
● 53년된 목조로 지은 ㄱ자 한옥 황토집 보존상태 양호
● 대지 150평, 건평 30평 방 3개 대청마루 부엌, 목욕탕, 곡간, 창고,
● 암자나 토굴로써 적합
● 가액 : 4000만원
011)9376-4684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 ● 법당 : 10평 ● 요사 : 35평 ● 부지 : 6300평 ● 가액 : 3억 7천
● 위치 : 경북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570평 ● 가액 : 1억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3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대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같이 운영하실 분 모심
● 위치 : 동서울 버스터미널 근교
● 법당 : 평수 70평
● 방 4개 욕실 주차장완비
● 비구, 비구니 보살도 환영
02)2201-0796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양시내 2층 53평 법당주방 방 각 1개씩
보증금 17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내방 후 절충
011)9638-8229

사찰부지안내
● 12500평중 대지 500평 큰사찰 창건하여 불자 중 같이 사실 분을 찾고있습니다. 전통범패를 가르치는 강사스님입니다.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 납골당 적용지 가능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011-661-9119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여름철 피서객 예약접수
여행경비도 절약하고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피서지 예약으로 듣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거제도 숲속의 사찰. 걸어서도 5분이면 바닷가를 갈수 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 피시객 1인 하루 3만원이며 야영객은 텐트 장소 1만원 불자들은 기도접수 하면 가능 밤에는 모닥불 켜놓고 손뼉치며 노래할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해수욕도 하고 산사의 정취도 맛보고 동산도 할수있으며 특별히 모든행동 자유롭게 개방합니다. 광고는 단한번 뿐이며 예약접수 하신분은 저의 서예작품 한점씩 드립니다.
055)687-5358/055)687-592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 대지 :470평
● 법당 : 80평
● 요사 : 170평
● 양도가 : 15억
● 역사깊은 도량 임
● 위치 : 서울시 소재
● 법당 : 25평
● 요사 : 방 1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수도권 - 신도시 중심상가 대형 포교당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 후 절충 가능
011)9634-053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지층 방2개 사무실1개 주방1개 법당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 70만원
017)217-221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 50평
● 법당, 주방, 방 3개
●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4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017)843-9144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375번지
● 면적 : 준농림지 약 7500평
● 대지 : 900평 ● 건물 : 약 30평
● 평당가액 : 4만원 (분할 판매 가능함)
055)283-1733
018)577-5581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권 대창불교건축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권 대 창 목 재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 건물 : 2층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대지 : 360평
1층은 원룸형태로 10평, 시설완비
● 속리산 봉림사 법주사와 25분거리
● 신설법당으로 7년 되었음
심야전기시설
● 가액 : 7000만원(새로단장하는데 2억정도 비용이 소요되었음)
043)832-4260
호국사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 600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35평
● 특징 : 50년 전통사찰로 경관수려한 기도도량
● 가액 : 3억(절충가능)
019)380-39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유 1동
● 가액 : 만나서 상의 (절충)
● 법당 : 주방, 방3개
● 건물 : 4층건물 중 2층 65평
● 특징 : 지장보살 小 108분 모심
● 전세도 가능함
공양주 보살 구 합 니 다
02)907-1643
016)243-1643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입
● 위치 : 부산 약 30분 울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부지 : 110평
● 법당 : 27평
● 요사 : 50평
● 가액 : 3억 8천만원
※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트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암자(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5,500만원(용자포함)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거의 새집
061)762-2630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4150평
강원도 명산이 사방에 있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진입로에서 10분거리에 들어서면 깊은산속같은 민가없는 청정도량임 뒤에는 높은 돌산이 앞에는 일급수가 흐르는 보기드문 도량임
종교부지 천평 토목, 진인로, 조경완료. 현장을 보시고 확인한다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2억 2천(꼭 인연있는 분만 연락 요망)
011)321-0194

암자 용도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불교 이래서 좋다

임선미 안동대 불교학생회장

"청정 · 고요 가슴에 와 닿아"



내가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전엔 종교를 갖지 않았고 나 자신만 굳게 믿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몇몇 시련과, 채워도 채워도 허전한 생의 구석진 감 등이 불교로 이끌었다. 처음엔 기독교에 잠깐 인연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도무지 그 멀고 크신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는 것 같아 나 자신도 속이고 신도 속이는 듯한 자책감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권유로 불교 학생회인 대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지금껏 잘 다니고 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일 땐 절에 들르게 되면 법당에는 스님과 불자들만 드나들 수 있고 일반인은 감히 못들어갈 것 같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주 드나들게 되니 그 모든 것이 선입견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법우들과 함께 산사에 머물러 자원봉사도 하고 예쁜 연등을 손수 만들어 보는 것, 전국 유명사찰을 답사하는 것 등이 잔잔한 감동으로 더욱 불교를 이끌어 주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불교특유의 청정하고 고요함은 위안 같은 평안함, 그런 은근한 공감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인간미가 물씬 느껴지는 법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공감대가 훨씬 커진다.

한없이 자비로워 보이시는 부처님 전에 절을 하게 되면 평소 울컥했던 마음도 조용히 사그라들고 더불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

교리부분은 소홀히 한 탓에 잘 알진 못하지만 불교 소설 등을 통해 더 흥미 있게 알아가고 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실천이자 마음이라 여겨 수행정진에 관심을 쏟아가는 중이다. 연꽃과 탱화, 향과 촛불, 목탁소리 등 여러모로 불교는 아름답고 예술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난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제2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통일 · 수행 화두' 청년대회

대불청 · 대불련, 청년불교침체 원인분석 · 활성화 모색

'통일'과 '수행'이란 화두로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결집한다.

한국청년불교의 양대 산맥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이하 대불청)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문수, 이하 대불련)는 전국불교청년대회와 1600년 대회를 통해 청년불교운동의 현실진단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속초서 통일 손도장찍기' '1080인 선언'

대불청= 7월13~14일 | 대불련= 8월2~5일

미황 · 대둔사서 '한국불교 1600년 대회'

창립 82주년을 맞는 대불청은 7월 13~14일 양일간 강원도 속초 설악 한화리조트에서 '제2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갖는다.

'준비된 불청의 대도약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대회에서는 6 · 15 공동선언의 실천운동 및 성공월드컵 정신 계승을 위한 청년불자 선언문 발표를 비롯해 '청년 만해 통일다짐-통일 손도장 찍기' 행사, '2002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성사를 위한 청년불자 1080인 선언 등이 진행된다. (02)738-3385

대불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해남 미황사, 대둔사 등 전남일대에서 '제21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연다.

'발걸음마다 평화! 몸짓마다 자비! 어울림마다 행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생 불자들의 역할과 대불련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비롯해 달마산 산행과 문화유적 탐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불련 국토순례단발대식 등이 마련된다. (02)732-0239

올해 이들 단체는 회원수 격감, 재정자립도 빈약, 결속력 약화 등 줄곧 제기되어 왔던 청년불교의 고질적인 침체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활성화 모색방안을 '통일 분야'에서 찾으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대불련의 경우 문화행사를 통해 '학교축제' 분위기로 열렸던 예년의 대회와 달리 '참다운 구도자가 되기 위한 수행 · 정진' 프로그램에 주력한다.

또한 대불련은 '제40년차 여름교양학교'를 7월 12~14일 대전 충남대에서 연다.

이번 교양학교에서는 사이버 논객 진중근 씨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폭력성에 대하여'란 주제의 강의, 전통춤 배워보기, 단편영화 감상, 대불련 활성화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청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테마별 청소년 자원봉사 잇달아

청교련, '효실천의 날' '수영교실' '우리문화보존' 등



◇6월 23일 학생들이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마'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잇달아 열린다.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이하 청교련)는 6월부터 12월까지 무의탁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2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노력봉사 · 문화재 안내 · 점자도서 제작 등 '테마'별로 열리는 이번 자원봉사 한마당은 총 4차에 걸쳐 서울 일대 관련 시설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지도자 등 연인원만 700여 명이 참가한다.

6월 23일 서울 혜명양로원에서 '제1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행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청교련은 8월 15일, 25일 양일간 구립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및 서울 곰두리 수영센터에서 '장애인과 하나 되는 수영교실'을 열고, 9월 15일에는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에서 '외국인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 보존하기' 자원봉사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청교련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함께 하는 밝은 세상' 행사를 청교련 중앙사무국과 마포점자도서관 등에서 실시한다. 특히 7월 27일에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에티켓 특강, 도서점자화 교육 등 한층 심화된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이 마포점자도서관에서 열린다. (02)735-8165

청소년 단신

파라미타 전북 · 대전 · 경북지부

24~27일 여름수련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 · 대전 · 경북지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속리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여름'이란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협동과 우애, 신앙심 배가 등을 목적으로 문화재 애호 캠페인 등을 벌이며, 생태답사 체험도 진행된다. (043)294-0107

담배를 끊읍시다

청소년 흡연 이유

중학생 경우 "호기심 때문" 34%

1.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이 가장 왕성할 때. 1997년에 연세대 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31.8%, 여자 중학생의 경우 33.3%가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대답했다.

2.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는 가족 내 부모와 형제에게 떨어져 나와 또래 집단, 즉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호기심보다는 오히려 친구가 담배를 피우니까 따라서 피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있다. 반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4.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는 어린이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닌 약간은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어린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성인이 되고자 기웃거리며, 성인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내불동

사이버 신행의 대표적 동호회

일주 · 불이문 등 4개 코너

포탈사이트 네띠앙의 불교인동호회인 내불동(forum.netian.com/@buddhism · 시삽 김규회)은 사이버 신행의 대표적인 동호회로 네티즌 불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998년 7월 16일 창립한 내불동은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맺어진 불교인 모임으로 비록 역사는 짧지만 현재 회원이 2300명이 넘는 대형 동호회로 성장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 내불동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서울 · 경기, 강원도, 대구 · 경북 등 지역모임을 가지는 등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사이버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사이버 법당. 바쁜 일상으로 고즈넉한 산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불동 사이버 법당을 참배하며 부처님께 헌화를 한다. 사이버 법당에서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음성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이를 클릭하면 오프라인 법회에서 도반들과 함께 독경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나 홀로 신행활동도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찾아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불동' 초기 화면.

내불동 도량은 일주문, 불이문, 수행문, 원융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일주문은 사찰의 처음을 알리는 일주문의 역할처럼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속 대화, 법문 모음, 가입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이문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통해 전국의 회원들이 하나가 되는 지역모임의 활동 공간이다. 또 수행문은 위빠사나, 경전 읽기, 궁금증 해결 등 불교 교리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원융문은 환경시사, 경전자료실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전자료실에는 다양한 경전과 선어록들이 소개되어 있어 불교에 대해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네티즌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있다. 김두식 기자

海水觀世音菩薩像
인연있는 분을 찾습니다



海水觀音菩薩像 諸元

NO	종 류	높 이	가 로	세 로
1	해수관음보살石像	340		
2	2단 연화	63		
3	8각 연화좌대 받침석	26		
4	4각 받침석	49	180	180
5	4각 지반 기초석	20	347	347
6	4각 올탈리석(9개돌기둥)	81		
7	석등 2개	110		
8	중간 4각 지반 기초석		90	235
9	아치형 석교 (10개 난간 지주석)	81	127 38	353 110
10	초입 4각 지반 기초석			

연락처 011)752-0324

불교수행프로그램

은평구 불광동 화원사에서는 근본불교의 기초강좌와 실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교를 기초부터 실천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법의 원형을 체험해 보고 싶으신분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수 행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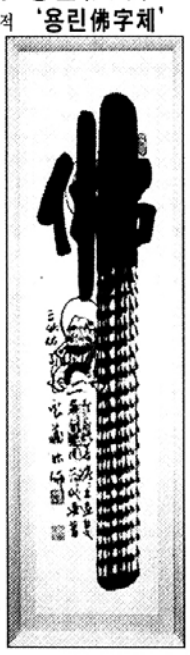
■ 매주 월요일 : 14시 ~ 16시(제1강)
19시 ~ 21시(제2강)
김 열권 선생 : 위빠사나
(1) 부처님의 안반수의(Anapana sati)호흡과 몸 · 감각 · 마음 · 법의 관찰 등을 지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禪을 할 수 있도록 참선체조와 호흡법 등 조도법도 수련함.
(2)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한 「위빠사나 Ⅰ·Ⅱ」와 체험사례로 엮은 「보면 사라진다」 등을 직접 강의함.

■ 매주 수요일 : 14시 ~ 16시(제1강)
19시 ~ 21시(제2강)
채 인환 스님 : 근본불교
계 · 정 · 혜 삼학을 비롯해서 사성제와 팔정도 등 불교의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수행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 매일 : 오후 2시 ~ 4시까지 참선체조 · 좌선 · 실수
◆장 소 : 서울 은평구 불광 3동 484-78번지 화원사 법당
(전화 : 02-383-9003/4(Fax 겸용), 011-392-3241)
◆교 통 : 전철 3·6호선 연신내역 1번 출구, 구파발 방향 도로변 80M지점 우측건물 4, 5층 청구성심병원 맞은 편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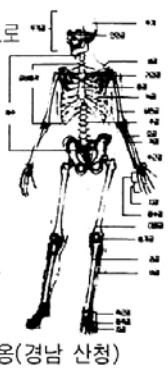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풍 및 유사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조계종 9교구신도회와 대구지역 20개 신행단체 임원 등 400여 불자들은 6월28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오른쪽)으로부터 종책설명회를 듣고, 종무행정에 자발적인 동참을 다짐했다.

신도들에 종책설명회 '눈길'

대구 동화사, 교구신도회 · 20개 단체에… '종무행정 동반자' 인정

현재 출가 수행자의 단체만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 초기에는 비구, 비구니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 남성신도인 우바새와 여성신도인 우바이를 포함한 4부대중(四部大衆)을 의미했다.

이처럼, 출가대중의 파트너로서 재가대중이 법륜(法輪)의 한쪽 수레바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지성)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책설명회를 가져 화제다. 그간 말사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종책설명회는 간혹 있었지만, 신도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등화사는 6월 28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주지 지성스님과 소임자 스님, 말사 주지 스님, 장영관 9교구 신드회장를 비롯한 20개 신행단체 임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4년간의 교구 종책을 설명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지성스님은 이 자리에서 "21 세기를 선도할 기품있는 수행도량 조성, 지역 불교계의 화합, 수행과 기도, 봉사하는 대구불교 건설을 3대 운영지표로 삼아 임기 동안 교구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성스님은 이와함께 수행 기풍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 7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백일동안 백분의 고승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마련하고, 기초선원 및 승가대학 학사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화사는 특히 백고좌 법회 기간 100 좌의 부처님을 통일 대불전에 봉안하고 범국민적인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교통안전당을 설치해 교통안전 기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신도회 박진수 국장은 "이례적으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책설명회를 가져 신도들이 환희심을 느끼고 있다"며, "스님들이 신도들을 종무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승가상의 모범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종책 실현을 위해 신도들의 동참을 당부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종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신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신도회 한 간부는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종단 및 사찰 운영을 위해 '사찰운영위원회법'(신도회 회장 및 부회장의 의무적인 사찰운영 참여)을 제정했지만,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가자를 고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 전환과 신도들의 참여의식 제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부터 백고좌법회 · 수행 풍토 조성

"바람직한 승가상" "입안때 신도의견 반영"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306보충대대 법당기공식

총 180평규모, 군불교위 · 군불교진흥회 건립후원

경기도 일원 3군지역의 신병 입대 부대인 306보충대대 법당 기공식이 13일 의정부 306보충대 법당부지에서 열린다.

독실한 불자인 대대장의 발원으로 추진된 이번 불사는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와 군불교진흥회가 부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립을 후원함으로써 성사됐다. 306보충대 법당은 제2군수지원사령부 호국호원사와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3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진행된다. 법당 150평, 요사 30평 총 180평 규모로 불사가 추진되며, 토목공사 비용 등은 해당부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2훈련소 입소대대와 102보충대대는 군법당이 마련됐지만, 육군 신병 입소부대 3곳중의 하나인 306보충대는 연 12만명의 장정들이 거쳐가는 관문 부대이면서도 법당이 없어 대회의실에서 법회를 열어왔다. 또 기간병들은 적십자에서 장병 휴게실로 제공한 10평 남짓의 공간을 법당으로 개조, 법회를 진행해왔다.

법당이 건립될 경우 군대내 종교가 최초 종교행사 참석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영 기자



◇농업회생연대가 6월25일 발대식을 가진 후 '우리쌀 지키기'를 위한 1백일 대장정에 돌입, 진도대교를 넘어가고 있다.

'우리쌀 지키기' 대장정

100인 1백일 걷기운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축이 된 농업회생연대(준)의 우리 쌀 지키기를 위한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이 1일 진도 용장산성을 출발해 10월 10일까지 장장 1백일간에 걸쳐 전개된다. 6월25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원모임을 가진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 참가자들은 진도-광주-전주-대구-대전-원주-서울 등 총 1449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답사하고, 벌교, 광주, 부안, 대구, 대전 등 10개 도시에서 '우리쌀 지키기' 릴레이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불국토' 창립 7돌…새도약 다짐

22일 기념행사, 부산불교복지 큰 기여

부산지역 불교사회복지의 선두주자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95년, 불국토는 부산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개금복지관을 위탁받았으며, 이후 양정청소년수련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타, 컴넷 하우스, 보현어린이집, 영주암어린이집, 용호어린이집 등 7개 산하기관을 위탁받으며 복지분야에서 급성장했다.

특히 4월 29일 개원한 컴넷하우스는 불교복지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정신 장애인의 복지까지 불교복지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7월 22일 대도부페에서 열리는 7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산하 기관간의 화합과 정보 공유의 시간과 함께 2002년 상반기에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모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당선된 당선작과 당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가진다.

불국토 산하 기관인 양정청소년회관, 용호복지관, 개금복지관은

컴넷하우스 개원 정신장애인도 수용

우수프로그램 자료집 발간 배포키로

부산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등에서 실시한 공모전에서 장애우와 장애우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정신지체아와 재활관련 프로그램 등 8건에 대해 총 4천8백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성과를 거뒀다. 불국토는 2001 · 2002년 당선 우수프로그램 자료집을 제작해 프로그램 보급과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초의선사 생가복원

다성사 · 기념관등 개관

독특한 선풍과 차문화를 보급시키며 침체된 조선불교의 중흥을 꾀했던 초의선사의 생가가 복원됐다.

전남 무안군은 초의선사 생가터인 삼향면 왕산리 산 94-3번지 일대 3만 331㎡ 부지에 생가와 다성사, 추원비 및 기념관 등을 건립하고, 6월 22일 성상 봉안과 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초의선사 생가와 기념관은 97년 5월 초의선사가 문화인물로 선정되면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며 '초의선사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완공됐다. 투입된 공사비는 총 31억여원.

무안군은 추가로 일지암, 다문화관과 인근에 대규모 차밭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초의선사 생가와 화산 방죽연꽃군락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풍경소리를 아시나요?

이 은 자 (취재2부 차장)

"옛날 옛날 히말라야 산에 공명조를 아시나요?…"

기자가 대학재학시절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찬불동요 '공명조 이야기'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다할 찬불동요가 없었던 그때 종이에 복사된 악보를 나누어주며 춤과 노래를 어린이불자들과 함께 배웠던 이 노래가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의 오늘을 있게 한 시발점이라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다.

지난 1994년 찬불동요 · 가요 창작과 보급의 원력을 세우고 이종만, 정유탁씨 등 몇몇 젊은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활동을 시작한 좋은 벗 풍경소리. 그동안 총 14장의 찬불동요 앨범과 법회의식곡집 등을 펴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 찬불가를 지켜온 사람들이다.

이같은 풍경소리가 지난 5월초 서울 마포의 사무실을 비워야만 했다. 사무실 사용료를 제때에 내지 못해 자비를 모아 마련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모두 까먹고 거리로 나앉을 형편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풍경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청도 운문사 대중스님들과 몇몇 스님들이 뜻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고, 조계사 인근의 불구용품 전문점 길상원 사장이 마음을 내어 길상원 2층 창고 한 켠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3일 한국불교 1번지 견지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좋은 벗 풍경소리. 지나온 시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 감로불교대 첫 졸업생 배출

253명 수료식, 1천200만원 모금 학교발전기금 전달

계율과 수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개설됐던 부산 감로불교교양대학(학장 혜총)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장 혜총스님, 부학장 관일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졸업생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감로사에서 열린 감로불교대학 1기 졸업식에서는 계율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아울러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253명의 졸업생들이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학생회 회장단에서 1천2백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해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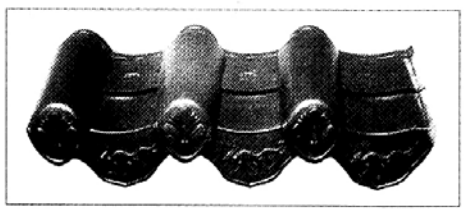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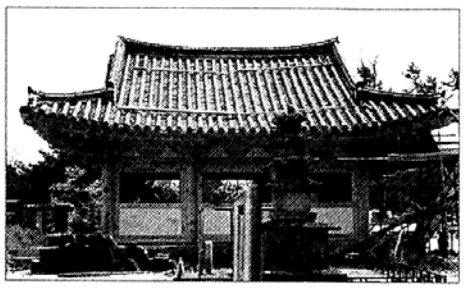
부산=천미희 기자

수련법회자료집 증보판 발간

조계종 포교원 사찰수련법회종보센터(소장 용하스님, www.pogyo.org)는 4일 수련법회 자료집 〈참나를 찾아가는 수행〉(조계종출판사) 개정 증보판을 발간했다. 사찰 예법,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수행법, 사찰의 이해, 수련법회 운영프로그램 소개, 예경, 의식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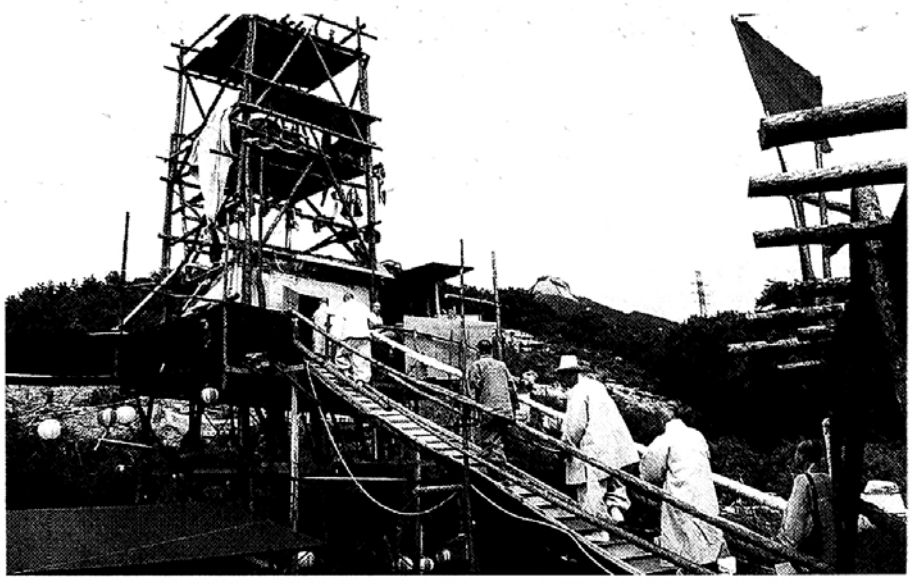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워저드 김희균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 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청기와 오지기와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부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긴장 감도는 송추 철마선원

'건물 철거' 가처분 선고연기…12일 보강심리키로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이 4일 송추 철마선원을 방문, 망루에 올라 북한산 파괴현장을 둘러보았다.

'북한산 지키겠다' 스님들 기도정진 계속
공사 차기정권 이양 등 요구 청와대 전달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천막농성장으로 꾸려졌던 의정부 송추 철마선원. 4일 오후, 태풍 라마순의 북상에 대비한 건물 점검으로 분주한 가운데 철마선원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 신청'을 5일 의정부지원이 받아들일 경우, 철마선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강제 철거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월드컵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건교부의 약속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후 늦게 5일로 예정됐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가 12일 보강심리를 여는 쪽으로 확정되자, 철마선원을 지키고 있던 환경수호단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북한산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 6월26일 '북한산 수호 범불교대회'에서 발족된 환경수호단은 이날부터 20~30명씩 조를 편성해 철야로 철마선원을 지켜왔다.

6·26 범불교도대회에서 혈서를 쓰며 수행환경을 보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회룡사의 종호 성엽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은 수경스님과 함께 매일같이 철마선원 주변에 설치된 망루와 철책을 살피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자연 및 수행환경의 소중함을 열심히 설명한다. 북한산 수호를 발원하는 기도정진은 가장 중요한 일과다.

조계종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4일 철마선원을 방문, '의정부지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종단이 송추 현장을 외호하겠다'는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굳은 의지를 전달하면서 "환경은 불교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철마선원에 대해 종단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연기할 것 △다음 정권으로 이 문제를 이양할 것 △노선검토위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5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철마선원장 수경스님은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환경수호를 위한 철마선원 지키기에 모든 불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승가대 학인스님들 훈훈한 보살행

외국인노동자 산모에 성금·유아용품
합창단원들 번갈아 산후조리 돕기도

젖병과 기저귀 든 스님을 보셨습니까?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 회장 해인스님(사회복지학과 3년)과 혜범스님(승가대신문 전 편집장)은 3일 오후 경기도 김포 양천면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집을 찾았다. 일주일전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병원비는 물론 산후조리마저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에 놓였다는 방글라데시인 사두씨(21)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두 스님은 학교 교수와 동문, 학인들에게 모금한 100여만원의 성금과 함께 젖병과 기저귀, 유아복 등을 사두씨에게 내놓았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두 스님은 중앙승가대 합창단원들에게 연락해 산후조리를 마칠 때까지 돌아가면서 산모를 돌봐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성금만 전달하고 곧바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3평짜리 지하방에서 아이와 함께 누워있는 산모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군요.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6시간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김포 지역에는 대략 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자여서 드러내놓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다. 이들에게 인권은 먼 나라 얘기일 뿐, 그날그날 사는 것조차 힘겹다.

처음엔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사두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들이 정말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사두씨였다.

"공부도 좋지만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 역시 소중하지요."

두스님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돕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2일 복지재단 2층 법당에서 우수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최한 '자원봉사한 마음축제'에서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3곳, 개인 6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시상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행활동 부문=강릉 자비봉사회, 충북혜능보육원 소속 불교신행회, 여수 보현행원회, 부산불교신도회복지분과 △운영지원 부문=향림사반야봉사단, 대한적십자사 거재신현봉사회, 김포 홍련회, 부산진구불교자원봉사회, 통도사 금강봉사회, 서울 보리수회, 문경시운정자불자연합회 △전문기술활동 부문=서울 사랑나눔수지침봉사단, 서울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수지침봉사단 △개인활동 부문=충북혜능보육원 허운 씨,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석문숙, 유정환 씨, 영등포보현의 집 윤홍자, 김춘자 씨.

김철우 기자

민간단체 대북사업 차질
남북협력기금 지원 연기

서해교전 이후 한반도에 냉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대북지원이 전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JTS와 평화통일불교협회의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본지 377호 1면 참조)도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계 2개 단체가 통일부에 신청한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지원금 책정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우 기자



고엽제 후유증 이영춘씨 평생모은돈
"좋은일에 써달라" 동국대 기증·별세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한 불자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도 평생동안 푼푼이 모아왔던 돈을 불교종립대에 기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3일 동국대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용사 이영춘(60·사진) 불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투병 중이던 4월 22일 동국대에 '좋은 일에 써달라'며 30년간 군납 일을 해서 모은 2천만원을 기부한 뒤 5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2년 전 육종암 판정을 받고 불교에 귀의한 이씨는 불교병원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는 게 보람이 있을 것 같다. 병원 건립에 보태달라"며 동국대에 돈을 기증했다. 이 씨의 49재는 과천 청계산 정토사에서 봉행됐으며, 유해는 4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박봉영 기자

신도단체들과 마찰 마곡사 주지문제
12일 중앙선관위 심의 매듭

마곡사 주지 임명을 둘러싼 문제가 12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각스님 주지후보 이의신청 심의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76호 23면 기사참조)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총무원 호법부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각스님의 마곡사 주지 임명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신도단체 대표들은 3일 조계종 총무원사서실에 "진각스님의 마곡사 주지 임명은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 지도자를 선출케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첨부서류로 '김병관과 현문스님의 전화통화 녹취록', '마곡사 보고서', '김경범 황성월스님 신도성의 대화 녹취록', '동학사 검수보고서' 등 마곡사와 현주지 진허스님, 주지후보 진각스님의 비위내용이 담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신도대표인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는 "진각, 장곡스님을 제외하고 재선거를 실시, 흠흠한 스님을 모시는 것이 단체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각스님은 "장곡스님의 백제불교회관 산하 신도단체들이 제기한 날조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따르겠다"며 "다만 상대에 의해 고발돼 작년에 공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건과 호법부 조사를 끝마친 내용을 버젓이 비위사실로 배포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각스님은 6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한 대전지역 신도단체대표 3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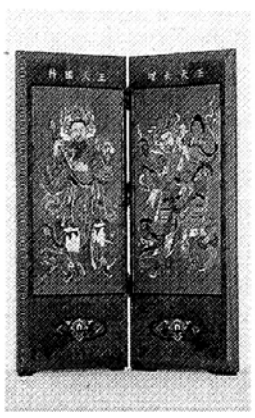
또 마곡사 김철현 사무장도 "신도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없음으로 본사에서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앞으로 모든 일은 종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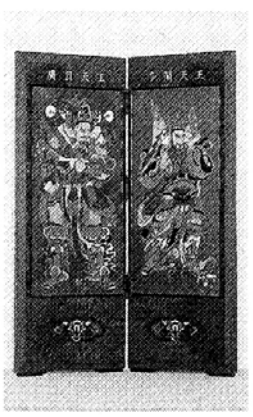
한편 갑사주지 장곡스님은 4일 '교계의 모든 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대전지역 신도단체를 뒤에서 배후조종하지 않았으며, 선거전에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선거후 종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 선거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영험이 일어나고 있는"

사천왕 병풍의신비(神秘)한위신력!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2,500,000~~ → ₩2,000,000

※ 현재 본회에서는 전국사찰을 계속적으로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부담느끼지 마시고 연락만주시면 날짜를 정하여 직접 찾아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조성방법

먼저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병풍 전체를 고급무늬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해서 색채도 화려하고 장엄하게 조성 하였습니다. 직접보시면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실 정도이며 일차로 이번에 300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풍 뒷면에는 법기(法氣)와 생기(生氣)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본회의 비법(秘法)인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황동판 팔괘불탑다라니를 4폭 모두 부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천왕 병풍 자체에서 나오는 법기와 합일(合一)되어 사찰 내 사방 50m 이내에는 강한 법기와 법력으로 충만되어 주위의 사악한 기운이 소멸되어지고 있으며, 사찰 내를 신령스러운 법력이 항상 감싸고 있게 되므로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위신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위신력의 현상

(1) 매 법회때 마다 신도들이 50여명 정도 밖에 안나오는 사찰의 경우에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고 난뒤부터 신기하게도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법회에 80여명 이상의 신도가 나오고 있고 어느 때는 100여명 이상씩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2)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보시금을 내는 신도가 생기는가 하면 불전함의 보시금도 배로 늘어나 사찰의 어려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스님들께서 불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우연이 마련되어지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순순히 풀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기 사례는 그동안 사천왕 병풍을 모신 사찰의 스님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알게된 현상들을 종합해 본것 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천왕 병풍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위신력의 작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그 위력이 하나둘씩 알게 모르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불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사천왕 병풍을 본인들이 다니시는 사찰에 시주(施主)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공덕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범어사 일주문은 독특하게 돌기둥으로 되어 있다.

등나무 군락 등운곡…전체가 천연기념물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 금정산 범어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5월엔 연보라 · 흰 등꽃 구름처럼 계곡덮어

어산교~금강암 아교목 절경 '금강만풍' 연출

신라 의상스님이 창건했다는 금정산 범어사. 금정(金井)이라는 이름은 정상인 고당봉에 있는 전설의 금샘에서 유래한다. 옛사람들은 이 암상금정(岩上金井을) 두고 '금정산'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금빛샘에 범천으로부터 내려온 금어(金魚)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고 해서 '범어사(梵魚寺)'라는 이름을 지었다 한다.

화엄사찰답게 범거사는 일주문-천왕문-불이문-보제루-대웅전 등이 만드는 일직선이 가람들의 축을 이루고 있다. 산의 경사를 이용한 나트막한 계단과 절묘하게 배치된 산문들은 직선의 경직성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려 준다.

원래 범어사의 들머리는 동래 팔송거리였다. 개발시대에 들어와 팔송은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에 지하철역이며 버스주차장이며 유흥가가 들어섰다. 그 바람에 숲 그늘에서 운수승들을 반겨주던 새들만 삶터를 잃었다. 직박구리 몇 마리가 유흥가의 간판에 올라앉아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엿보고 있다.



◇'금정산 범어사', 이호신 作(57×93cm), 2000년.

팔송거리의 운명처럼 요즘 범어사는 고속철도의 금정산 뚫과 문제로 법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금정산의 말립응단을 훑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턱없이 평가절하된 허구의 환경영향평가를 등에 업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 보면 수맥변화와 지반침하로 자연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파괴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범어사 들머리는 등운곡이다. 등운곡이라는 이름은 수백 그루의 등나무들이 계류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군락지 전체가 천연기념물(제176호)로 지정되어 있다. 5월이면 등꽃이 피어 구름처럼 계곡을 뒤덮는 장관을 이룬다.

숲속에는 높이 15미터를 웃도는 노등(老藤)도 간간이 눈에 띈다. 그러나 등나무는 아무리 밑동이 굵어도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버팀나무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노송을 비롯하여 팽나무, 왕버들, 서어나무 등의 노거수들이 혼생하며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등나무는 결국 생존의 의지처였던 나무를 죽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고 마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등나무가 너무 번창하면 숲의 식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갈등(葛藤)'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진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등운곡의 갈등이 속계와 불계를 나누는 어산교 위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산교 위쪽이 갈등과 번뇌를 씻은 불보살의 경계이기 때문일까. 갈등의 상징인 등나무는 현상 속계(俗界)의 나무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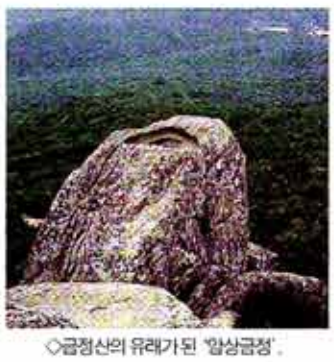
범어사의 일주문은 원래 나무기둥이었던 것을 숙종 때 명흡대사가 돌기둥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아마도 흰개미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범어사가 습한 지역이라 흰개미의 피해가 적지 않다. 대웅전까지 건드리는 실정이라 한다.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의 공간에는 전나무, 삼나무, 편백나무가 건장하게 열병하고 있다. 좌우의 담장들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보이는, 선방의 입승같은 나무들이다. 한울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꼿꼿한 자세의 나무들이 경건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공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범어사 큰 법당 주변은 온통 새들의 세상이다. 지장전 맞배지붕의 합각풍판 틈새는 박새 한쌍이 보금자리를 틀어놓고 연신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 어디선가 알을 품다 나온 노랑할미새는 용마루에 앉아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한 후투티는 먹이를 물고 북문 아래쪽으로 포르륵 사라진다. 딱새는 인기척에도 아랑곳없이 육회행료 안팎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수다쟁이 직박구리는 불이문 영역에서 논다.

대성암 옆으로 금정산의 정산인 고당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있다. 대성암 주변은 군락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서어나무가 많다. 이 서어나무는 범어사 들머리인 어산교 주변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금강암 주변에까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범어사의 대표적인 수종이라 할만하다.

서어나무와 어깨를 나란히 한 팽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왕버들 등의 멍지들도 다들 좋다. 숲속에는 물푸레, 생강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노린재나무, 노각나무 등등의 아교목들이 층위구조에서 하층을 우점하고 있다. 금정8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금강만풍(金剛晩楓)'도 이들 활엽수들이 연출해낸 것이다.



◇금정산의 유래가된 '암상금정'.

범어사 계곡은 온통 바위투성이이다. 그것도 지름이 2~5미터에 이르는 큰 바위(巖塊)들이 골짜기를 그득 메우고 있다. 특히 대성암-금강암-고당봉 8부능선 구간의 암괴류는 금정산 지질과 지형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암괴 사이사이를 맑은 물이 거미줄처럼 흐른다. 금정팔경 중 하나인 '대성온수(大聖溫水)'는 바로 이 암괴류 밑을 흘아돌아 흐르는 그윽한 물소리를 이르는 말이다. 이 대성온수는 금정산의 생명수이다. 특정야생동물로 지정된 도룡용, 산개구리, 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 등등 금정산의 양서류들은 모두 이 생명수로 해서 태어나는 것들이다.





◇등운곡 등꽃과 갈색여치는 금정산을 상징하는 동식물이다.

범어사 골짝들은 수영만으로 들어가는 온천천의 상류이다. 하지만 봄과 1킬로미터 아래쪽 상가지구에 이르면 법써 냄새나는 4급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의 버들개가 다른 지천의 버들개와 생태적으로 고류한 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생태적으로 갇힌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범어사 버들개들은 부득이 저들끼리 근친혼으로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 났다. 그런 환경이기에 이 버들개들은 금정산의 자연생태와 수질환경의 지표종일 수밖에 없다.

북문 성곽 옆, 갯버들을 비롯해, 동의나무, 고마리, 골풀, 방동사니, 물억새, 갈대 등이 자라는 습지를 끼고 정상인 고당봉까지 오르는 데에는 봄과 20분이면 족하다. 등산로 주변의 숲들은 비교적 층위구조가 양호한 편이다. 숲 속 양지볕에 털중나리 몇 포기가 다투어 꽃을 피우고 있다.

고도 상으로 보면 북문 위쪽 높이에는 소나무와 활엽수가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산불 때문인지 상수리, 떡갈나무, 졸참나무 등의 교목도 노거수급은 드물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군락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때죽나무와 쪽동백이 우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밖에 리기다, 붉오리나무, 붉나무, 개암나무, 생강나무, 옻나무, 산초나무 흔히 말하는 잡목림이다.

때마침 숲속에서 탈두꺼비하늘소 한쌍이 짝짓기에 열중이다. 털두꺼비하늘소는 흑갈색의 몸통에 딱지날개가 두꺼비 등처럼 우툴투툴하다. 날개 안쪽에 털다발이 있다고 해서 '털' 자가 붙었다. 참나무 숲이 있는 곳이면 여름철 어디서나 관찰되는 종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갈색여치는 바늘처럼 생긴 산란관이 몸보다 길다. 일반여치와는 달리 산림생태계가 튼실한 곳에 잘 나타나므로 금정산의 곤충지표종으로 삼을 만하다.

정상인 고당봉은 화강암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정산의 화강암들은 약 8천 5백만년 전에 지하에서 형성된 후 단층활동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 수직과 수평으로 틈 절리(節理)이 생겨 하나하나 독립된 바위(핵석)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전설의 금샘은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고당봉 바위능선을 타고 10분 거리에 있지만 바위에 가려져서 찾기가 쉽지않다. 1년내내 마르지 않는다는 돌샘의 물 위에 파란 하늘이 떠있고 흰 구름이 지난다.

영상법당! 불교텔레비전



• 동국대 TV 불교아카데미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정토사상(수)
여래장사상(목)
한국 선사상 연구(금)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혜거스님의 유식 삼십송강의
매주금,토요일 08:50 / 19:55

성운스님 불경강좌
매주토요일 10:15 / 20:35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매주수요일 09:20 / 19:15

구본일의 태교와 명상
매주화요일 09:20 / 19:55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매주목요일 09:20 / 19:15

최고의 진리 바로 당신의 소중함입니다.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btn.co.kr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금호전기빌딩)

불교TV시청방법 [유선방송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이프신청문의 (02)3270-3366~7]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불교텔레비전에서는 불교인터넷방송
불교위성방송을 하기 위하여
법당을 건립합니다.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저
지혜와 복덕 구족하도록
큰 공덕 지으소서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회 장 석성우
대표이사 이수덕

• 삼천불은 청동불로 조성됩니다.
• 가족단위 원불조성도 가능합니다.
• 삼천불조성금은 분할하여 입금하셔도 됩니다.
• 법당위치: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번지
(지하철2호선 봉천역 3번출구)
• 입금계좌번호 : 827-25-0015-134(국민은행)
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주)
•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02)2648-0108,1211 사찰순례팀